— 1 —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87 1981년8월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8.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7 1981

협상성공! 우편업무 1주내 재개될듯

39일째 파업에 종지부, 노조원 가부투표 절차남아

◇우편협상을 성공시킨 알란·골드판사가 잠정협정 체결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에 패럿 노조회장이 지켜보고 있다.

(오타와) 우편노조(CUPW)와 연방정부는 6일 저녁늦게 새 노사계약에 잠정적으로 합의, 39일 간의 우편파업이 1주일내에 끝날 전망이다.

중재자 알란·골드 판사는 이날밤 8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끝난후 이같은 잠정합의를 발표했으나 내용은 23,000명 우편노조원들 의 새 계약 수락여부 투표때까지 보류됐다.

잔크로드·패로 노조회장은 "회원투표는 1주내에끝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슨 조건을 양보했는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노조원들은 노조 간부들이 승인한 협상안을 수락할것으로 예상된다.

39일째를 맞은 우편파업 해결을 위해 약 3주간 협상이 계속 됐으며, 여러 차례 결렬 위기가 있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골드판사는 "이번 우편협상은 노사분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을 대표한 도날드·존스톤 연방재정위원장은 "정부와 노조가 모두 조금씩 양보, 새 노사계약을 맺게 됐다"고 말하고, 우편파업의 고난을 견디낸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존스톤위원장은 가장 문제됐던 임산부의 17주간유급휴가와 5년근무·4주휴가 조항이 어떻게 타결됐는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타결로 우체국이 9월초 국영기업체가 됐을때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했다.

한편 우편업무 중단으로 막대한 타격을받은 캐나다 우편산업협회(다이렉트·메일·마케팅)는 우편노조원의 파업중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우편서비스를 계속 하도록 하는법적 투쟁을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파업이 해제되더라도 장래의 파업에대비, 연방법원 명령서를 위한 제소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러 사업체협회들이"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어 우체국 직원들의 파업권을 박탈시키겠다"고말했다.

파업한 우편노조원들은 주 12시간을 파업시위에 참여한 경우 총60달러를받아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당했다.

연방정부는 우편파업이 시작되자 예상을 뒤엎고파업노조의 직장복귀명령 입법조처를 거부했다.

정부는 파업 발생시마다 정부가 강재조처를 취하는 것은 건전한 노조발전을저해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경우는 우편노조가 굴복할 때까지 타결을 지연, 노조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 현 투쟁적 간부진이 제거될것을 기대, 입법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노조간부진이 앞으로교체될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우편파업 타결을 위해 가장 고통을 받은 소기업체를 회생시킨 것이다"라고 일부서는 보고 있다.

수도경비사령관해임

박세직소장 사업청탁 관련혐의

(서울7일=연합) 6일 한국 국방부는 군부 실력자로 알려진 수도경비사령관 박세직 소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대변인은 박소장이 미국에 있는 이규환 예비역중령으로부터의 사업청탁사건에 관련되어 현역에서 물러나고 박소장을이용하려던 이예비역 대령은 군대 말단계급인 2 병으로 재강등되었다고 말했다.

이대령은 78년3월 뇌물수수사건에 관련되어 육군징계위원회는 그를 예비역 이병으로 강등했었다. 퇴역한 이씨는 78년 미국 에이민했으며 지난2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은 해외반정부인사들의 사면령에 따라 예비역대령으로복직됐다.

뉴욕에 카스코무역 회사를가진 이씨는 지난6월 한국방문, 육사12기 동기생인 박소장등 권력층을 이용하여 사업특혜를 받으려했다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전두환대통령은 육사 11기 출신이다. 수도경비 사령관직은 집권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군부요직이며 사령관으로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장성이 임명된다.

이번 박소장의 제거와지난7월16일 노태우보안사령관의 전역은 한국군부 수뇌부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세계야구 서울서 열려

(에드몬톤7일=연합)6일 열린 세계 아마추어야구총회는 내년도 서울에서열릴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참가국을 12개 국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서울 참가국은 전년도 [illegible] 쿠바와 미국, 캐나다, 호주및아시아에서 3개국, 유럽2개국, 중남미 3개국이다.

아시아, 유럽, 중남미대표 8개국은 차기총회에서 결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전년도 전적및 수준으로보아 아시아 대표로 확정적이며 나머지 1개국은 대만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에 참가한 세계야구협회 아시아지역 김종락부회장은 일본, 필리핀대표들과 만나 오는 11월 일본에서 아시아지역 총회를 갖고 아시아 대표팀을 확정키로 했다.

(해설)세계 아마추어 야구는 쿠바가 지배국이다. 쿠바는 작년도 동경대회는물론 각종대회를 석권했다.

쿠바는 프로팀도없고 미국 프로시장에 선수를 빼앗기는일도 없으므로 항상 강력한 팀을 보유할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미국, 일본3개국이 2~4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추세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세계대회에서 1번 우승했지만 그때는 쿠바가 불참했었다.

쿠바가 내년 서울대회에 참가할지는 의문시 된다.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79년 쿠바에서 열린 수퍼·월드컵 야구대회에한국팀의 참가를 거부했었다.

현재 세계선수권 대회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이 대회와 올해 캐나다에서열리는 수퍼·월드컵 야구대회가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아파트에 화재 1명 소사

1일밤 토론토 스프링허스트·애비뉴의 작은 아파트에서 불이나 마가렛·에더링턴(35)여인이 소사했다 이 여인의 9살짜리 딸과 남편 데니스(55)씨는 3층에서 40미터 밑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으나 마가렛여인은 아파트 뒷쪽에 있는 쇠층계까지 나오자마자 쓸어졌다

목격자 도날드·코너 13)군은 마가렛의 "머리 옷 모든 것에 불이 붙어 있어 인간횃불 같있다"고 말했다 화인은 부주의 한 담배불로 추측된다

1일 오전 다우링 애비뉴에서도 화재가 발생 62세의 도로시·파이크 여인이 죽고 3명이 부상을 입엇다

社說

빈집살림

한인회 정상화의 길

한동안 잡다한 잡음으로 교민들의 이마쌀을 찌푸리게 한 토론토한인회는 회장단과 이사장이 사퇴하고 임시 집행부가 탄생, 이들은 새회장단 입후보·등록을 공고했다. (※한국일보 7월27일자)이제 온 교민들은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가 나와 땅에 떨어진 한인회의 신망을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빌고 있다.

이번 한인회의 경우, 강회장과 K부회장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불협화음에 보태어 조간사 사퇴문제등 복합적인 난맥상이 이사회에까지 불꽃을 튕겨 "회장단 불신임"결의와 회장측의"이사회 해산"요구등 빙탄불용(氷炭不容)의 막다른데까지 간것은 3만교민의 정점기관의 치부(恥部)를 여지없이 드러낸 일대 불명예가 아닐수 없다.

원래 이번 분규는 정책상의 대립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의 감정 대립으로시작되어 다분히 감정적으로 끝난 인상인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원리원칙이 결여됐고 회칙이나 관례, 선례등을 따르려는 것보다 아전인수격마구잡이 비난, 졸렬한 행동, 압력적 권고, 폭언등이 따랐다. 한마디로 치졸했다.

이제 일꾼 없게된 한인회 진통은 쓰라린 상처로 돌리고, 과도기적 대행기관인 한인회 임시집행부(위원장 박인순, 부위원장 장순채 장영채)가 구성되어, 새로운 회장단 선출때까지 그 빈집 살림을 맡아 꾸려나가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나선 과도위에 격려를 보내며, 그간의 회무처리상 공백상태를 신속하고 바르게 처리해줄것과, 정식 집행부의 공정한 선출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곁들이는 바이다.

한편 한인회원인 일반교민들은 그아무리 잡음많고 지탄받을 양상이 있었다하더라도 역시 내 집안 일이니 비난이나 방관만 일삼지 말고, 좀더 잘되어 나갈수 있도록 최대의 우정적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마땅하다하겠다. 따라서 한인회를 맡길 인재를 발견하면 서슴치 말고 출마를 종용해야할 것이다.

또한 한인회와 이사회의 경우, 3만 교포의 대표, 대변기관답게 자중과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여 결정 한가지, 실천 하나에도 허실 없는 도도록 높은 지도기관다운 비중을 지니어 나가야 한다.

당사자들이 잘해줄 때, 전체 교민은 미더운 협조자가 되어줄 것이고, 소아병적 처사나 근시안적 편견등으로 멋대로 처리할때 3만교포는 감시자와 비판자의 입장에 서서 질타할 것을 마음새겨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맨먼저 알아야 할것은, 회장이나 이사장 자리가 결코 권력위치가 아니라 봉사자의 희생직이라는 점이다. 봉사자는 철저히 공익을 앞세워 자기를「소금과 촛불」의 위치에 놓고 희생을 감수, 독주(独走)하거나 아집을앞세우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아량있게 공무를 처리해 나간다.

토론토는 캐나다 전국중 교민의 절대다수가 살고있는 도시이고보니 그 한인회는 자동적으로 전국을대표하는 모범적 기관이어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토론토 한인사회, 특히한인회의 일거수, 일투족이그대로 타도시 한인계에 파장(波長)크게 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한인회 분규중 미해결의 장은, 강회장이 이번 구성된 과도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인계에 불응태도를 보인 점이다. 이유는 "불법적 방법으로 구성된 기구"라는 것이다.

강회장단은 이제와서 무엇을 더 따지겠으며 따져본들 무엇하겠는가? 모든 것이 빨리 손털고 물러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보겠다.

본란은 약4개월간 어려운 한인회 살림을 맡아한 강우석회장및 박태식, 김광석부회장과 분규에책임을 지고 사퇴한 최양옥 이사장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새로운지도자가 나와 한인회를 잘 이끌어 주기를 기원한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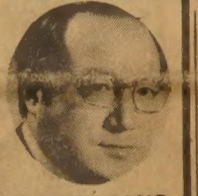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 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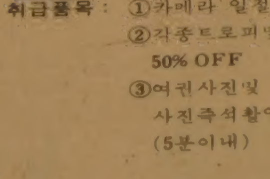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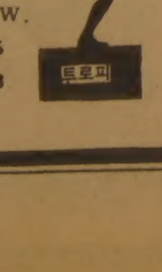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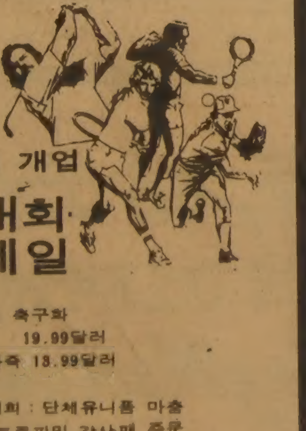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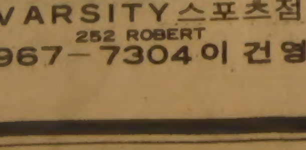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운동구점 개업
축구대회·특별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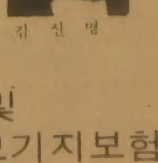
①어린이 축구화
가죽 19.99달러
합성가죽 13.99달러
②축구대회 : 단체유니폼 마춤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967-7304 이 건 영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 922-3111 R) 439-888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파업관제사 파면

미정부 강경책에 노조서 반발

(워싱톤)리간대통령의파면경고에도 불구, 3일 부터 파업을 벌이던 미항공관제사들이 구속됐다.

미항공관제사노조 29지역(버지니아)분회장 스티븐·윌라트씨는 "법원의 직장복귀명령에도 불복 하겠다"고 도전한뒤 ; 법정모독죄로 즉각 체포되어60일간의 구금처분을 받았다.

6일상오 캔사스·시티에서도 4명의 관제사가 직장복귀 법원명령 거부로 체포됐다.

불법적으로 파업하는 관제사는 가차없이 해고 하겠다는 리건정부의 강경책에 대응, 미국노동자들은거센 반발을보여 사태가 심각화하고 있다.

1,500만명의 회원을가진 미국최대의 노조연합회AFL－CIO등 노조들은 관제사노조 지원을 발표, 미국관제사 파업은 전국적으로 다른분야 노조에게 번질 기세이다.

9만명의 노조원을 가진 항공정비사 노조는 관제사들을 위한 동정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이다.

한편 미국경제에 큰 영향력을가진 AFL－CIO 의 레인·커크랜드회장은"우리는 관제사노조의 입장을지지하지만 AFL－CIO 산하노조의 동조파업여부는 각 노조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국은 6일 현재까지 13,000의 관제사중 4,645에게 피면을 통고했다 또 피면된 관제사 자리에는 약2만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다고 당국은 발표했다.

연봉 3만4천달러의 미국항공관제사들은 봉급1만달러 인상과 각종후생조건개선을 목표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미 교통부 루이스장관은 13,000명 관제사중 471 명이 직장에 복귀했고, 군관제사등을 이용, 곧 항공운항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관제사들의 파업은 3일 하루동안 미국국내에서만 14,000대의 비행기중 8,000대를 스톱시키는 대혼란을 가져왔다

레이건행정부의 직장복귀명령에 맞춰 연방법원은 "파업을 끝내지 않으면 하루 1백만달러의 벌금형을 노조에 내린다"고도 판결했다 항공관제사중 약 70%가 파업중이며, 정부는5일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는 파면시키다고 경고했었다 미국정부 공무원은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결혼축하

신랑：권장하군
신부：장헬렌양(장순채씨 장녀)
때：8월7일 하오7시
곳：던다스 성당
주례：고종옥 신부
※한국서 결혼식을 했으므로 이날 혼인성사만거행.
피로연：오리엔탈팔레스 (8일 하오1시)

신랑：임영택군
신부：천명식양
때：8월8일 정오
곳：쌘·폴성당
주례：고마태오 신부

신랑：정세교군
신부：박혜경양
때：8월8일 하오5시
곳：던다스 성당
주례：고종옥 신부

교민동정

◆신동헌(화가)＝서부캐나다및 록키산맥등 그림·글 취재차 뱅쿠버에 머물고 있는 중 8월8일 그곳에서 그림 개인전을 연다.

오는 중순께는 다시 토론토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이병권(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장)＝미국 캘리포녀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월드·게임Ｉ에 캐나다 대표 태권선수단 단장으로 다녀온 후 곧 뉴욕으로 날아가 뉴욕한인회장등 간부들과 만나 양도시 공동의 체육행사등을 논의하고 왔다. 오는 15일 캐나다전국체전이 눈앞에 다가오자생업인 상점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체육회사무실에서 사는 이회장은 "많은 교포들이 이번 체전에 참가해 주어야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겠다"고 말했다.

「상점경영의 묘미」… ①

상품전시회를 중시하라

◇피터·테사씨

로스만 담배회사의 소매상·경영학 연구소(Retail Services Insstitute)피터·테사(Peter Tesar) 소장은 최근「상점경영의 묘미」라는 글을 캐나다 도산매계 전문지「캐네디안·디스트리뷰터&리테일러」잡지에 기고했다.

이 글에서 테사씨는 소매상 경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헤치고, 이에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본사는 테사씨의 협조로 그의글을 몇차례에 걸쳐연재, 많은 교포 소매업계 종사자에게 도움 주고자 한다.

테사씨는 최근「강도예방과 대책」이란 소책자도 발행, 전 토론토경찰국장잭·아크로이드씨등 경찰간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한국일보〉7월30일자)

소매경영학 연구소는 소매상 경영자들에게 재정관리등 소매상 운영상의 제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가르치는 무료교육 기관이다.

① 상품전시회

최근 수년간 백화점이나 체인·스토어 경영자들은 상품전시회, 특히 국제무역전시회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바라이어티·스토아나 코너가게들은"시간낭비이며 귀찮은 일"이라고 무시, 외면했다. 조심성있고 계획성 있는 소매상경영자라면 이런 전시회가 결코 시간낭비도 아니고 귀찮은 일도 아니 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소매상들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 자기상점의 상품과 관련있는 전시회를 관람해야 될것이다. 소매상자들은 현재 생산시장의 최신모델은 어떤 것인가, 어떤상품이 생산되는가 하는 정보를 파악, 고객에게 서비스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단골도매상만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경영방침에서 벗어나 소매상 스스로가 생산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소매상들에게 어떤 특정 전시회가 좋다하는 논리는 없다. 예를들면 토론토에 에서는 소매상에게 유익한 수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해마다 CNE 콜리시엄 전시장에서는 봄·가을 두번에 걸쳐 국제기프트쇼가 열린다. 매년 2월에는 동전시장에서 하드웨어 전시회가 열리며, 토론토공항 근처 국제회관(인터내셔널·센터)에서는 매년 6월첫주에 기프트쇼가 열린다.

이 쇼는 점차 "버라이어티·스토어·쇼"로 바뀌가고 있다.

이밖에 무인판매기 전시회, 요리전시회, 스토아진열전시회(Display Show), 장난감 전시회등 소매상에 유익한 전시회가 토론토, 몬트리얼, 위니펙, 칼가리, 뱅쿠버등지에서 매년 개최된다.

전시회를 어떻게 관람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소매상경영연구소가 마련한 상품전시회관람지침을 따르면—.

(1) 전시회 관람전에 오늘 어떤 상품을 볼것이며가격이 어느정도이면 주문할 것인가하는 마음의 결정을 미리내려야 한다.
(2) 먼저 전시회안내서를갖고 천천히 회장 이끝에서 저끝까지 살펴보자.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말고 계속 훑어만 보라.
(3) 대강 전시회를 관람한 다음 안내서를 보면서 자기상점에 중요하고 그자리에서 즉석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정하라.
(4) 특정상품이 정해졌으면 전시회관람전에 생각했던 상품을 중심으로 즉석주문하라.
(5) 모든것을 놓치지 말고 봐라. 또 전시회에 참가하는 상품생산자및 공급자들에게 당신이 관람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라. 생산자들은 소매상의 중요성을 재인식, 소매상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방영시각 변경

한국TV,주4회 방영

◇〈한국TV〉김정숙양

이제까지는 주3회 방영됐고 이중 1회는 로저스·케이블을 통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채널 47, 케이블2의 MTV전파로만 방영된다.

지난 7월2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프로는 과거 것중에서 선택, 재방영하고 뉴스는 20일자부터 방영된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는 캐나다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해서 보내겠다고〈한국TV〉에 통고해 왔다.

〈한국TV〉는 현재 아나운서 김정숙양이 제작도 맡고있다.

토론토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국TV〉는 지난2일부터 방영시각을 변경하고 횟수를 주4회로 증가했다.

★한국TV방영시각★

(1)목요일	낮12시～12：30
(2)금	밤11시～11：30
(3)일	밤8：30～9：30
(4)월	낮1시～1：30

EXPERT BODY REPAIR & PAINTING
O.K. Auto Body
친절과 성실한 서비스
20년 경력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Res.242-4551 Res.251-0256
도와드립니다 Call 251-9889
138 SIXTEENTH ST.
TORONTO, ONT. M8V 3K1
YOU'RE MORE THAN WELCOMED"
QUALITY & WORKMANSHIP GUARANTEED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㊲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이것은 마치 바렌에서인디언과 백인이 여행할때돛을단 배와 엔진을단 배에 비유할수 있을 것이다.

항상 기계에 의존하는백인들은 환경에 도전했다. 기계를 장치한 배로 바다와 풍랑에 도전하고, 또그 복잡한 장비가 완전하게작용할때만 일이 순조로워지지만 바렌에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과 혼연일체가 되었다.

마치 돛단배처럼 그들은 바람과 물결에따라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연의 본질적인 리듬에 자신들을 맞추어 겪어야할 제반일들을 무리없이 순조롭게 살아왔다.

리틀레이크가 눈에 들어올때쯤은 나는 곳 미처버릴만큼 지쳐있었고, 그땅과 나를 여기까지 오게만든덧없는꿈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프란쯔와 그리고 끈덕지게달려드는 파리떼에게 물려 퉁퉁부어올라 거의눈이 잠겨버린 개들까지도 저주했다.

나는 얼마나 지쳐버렸는지 살고 죽는것 까지도 상관하지 않게 되었다.

피에굶주린 파리떼가 나를 평화롭게 죽게해 주기를 바랬다.

마지막 날에는 프란쯔가 개세마리를 끌고 앞장서갔고, 나는 반마일뒤에 처져서 개들을 억지로 끌고 쫓아왔다.

프란쯔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앞을 바라보니 프란쯔 혼자만 보이던것이 세사람이 보였다.

프란쯔는 언덕위에 서있고 옆에다른 두사람도 합세하여 나에게 손짓을하며 언덕밑으로 소리를 질렀다.

낯선사람을 발견하고 기운을 내서 비틀거리는 개들을 팽개치고 넘어지고미끄러 지면서 언덕으로 간신히 올라갔다.

꼭내기까지 올라가 보니 프란쯔와 다른 두사람은바위위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산들바람에 땀을식히며 파리를 쫓고있는 중이었다.

그중 낯선사람 하나가활과 화살처럼생긴 드릴을가지고 무엇인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화살같은것은 땅바닥에놓인 나무조각에 꽂혀있고 화살대에 두어번 끝으로감은 활같은것을 수평으로 세워 앞뒤로 문지르고 있었다.

화살같은 드릴 끝에서는 노란연기가 솟아 올라오는데 보니까 털로 몸을 감은 사람이 불을 피우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강을 건느면서 성냥통은 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다. 그래서 연사흘동안 담배도 못피우고 차도 끓여먹지 못했었다. 그 두가지는 바렌에서 백인이 겨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였는데, 이제 언덕위에 숨을 헐떡거리며 우뚝하니서서 옛날 우리조상들이 했던것처럼 에스키모가 불을 피우는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올려다 보면서 씩 웃는 것이었다. 마치 그의 얼굴에 불빛이 번지는 것처럼 천천히 번져오르는 미소였다.

프란쯔는 바께쓰에서 젖은차 봉지를 꺼내면서 나더러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작고 몸집이 건장한 또다른 에스키모는 바께쓰를 들고 큰 미소를 지어 보이드니 밑에있는 툰드라의 연못으로 물을 길르러 언덕을 잽싸게 내려갔다. 프란쯔는 물뜨러가는 사람에게 목을 끄덕이며 "오호토"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이들중 가장 좋은 사람이고 여기앉은 사람은 헤콰우이며 제일유명한 사냥꾼이지"하며 차례차례 인사를 시켰다. 인사소개는 프란쯔답게 매우 짧았다. 프란쯔는 그들과 오래 사귀는 동안 직선적으로 모든것을 보기 때문에 인사소개가 그렇게 짧았지만 문명한사회에 살던 나같은 사람의 간접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 이상해서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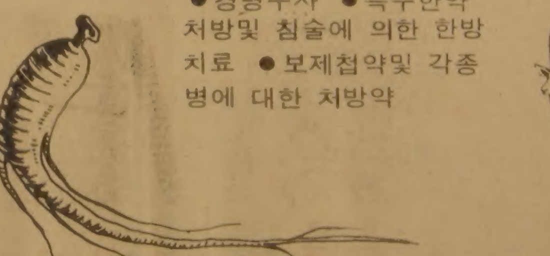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 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진풍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원 PETER CHAN 배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 × 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1981년8월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8. 198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뉴스·안테나

國內 同姓同本 禁婚등 완화
政府、社會부문개선책마련

政府는 男性위주로 돼있는 現行 相續制度를 女性의 지위를 향상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고 同姓同本간의 혼인금지제도도 재검토키로 했다.

『[illegible]長發展 沮害要因改善 審議委員會』(위원장 南悳祐 국무총리)가 27일 확정한 19개 社會部門改善과제 및 改善방향에 따르면 政府는 男女間에 不平等하게 이뤄지고 있는 財產및 戶主 相續制度를 개선하는등 현행 民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政府는 또 同姓同本結婚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民法改正을 검토하는 한편 賃借人및 擔保權者의 權益을 보호할수 있는 규정과 當事者의 約定이 없거나 他法律에 規定이 없는 法定利率을 現實化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社會 性能시험하려 사람 쏴
공기총事件 큰 衝擊 던져

더 할말이 없다. 그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가.

지난달 25일 서울江南구 遁村동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했던 공기총사건은 어이없게도 한 고교생이 사람을 표적삼아 총의 성능을 시험한데서 발단됐다.

경찰의 수사끝에 검거된 범인 金모군(18)의 범행동기는 듣는 사람들을 아연실색케하고 있다.

「총알이 얼마나 멀리 나가나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가 사고를 냈다」는것이 범인 金군의 대답이었다.

모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金군은 1개월전부터 매부 丁모씨집(둔촌아파트 307동)에 기거하면서 집에 있던 국산 배어압축식 공기총으로 벽에 매고 쏘는 연습을 해왔었다.

지난25일 낮12시께 그는 매부가족들이 加平으로 휴가간 사이 혼자 집을 보다 베란다에서 건너편 305동801호앞복도에 서있던 崔金정림씨(40·여)와 701호의 모여인(30)을 연달아 쐈다.

총알이 표적으로 삼았던 사람의 몸에 맞은 것을 깨달은 金군은 흥미를 더해 제3의 표적을 703호 창문에 앉아놀던 金보라양(8)으로 삼아, 또 한발을 갈겼다.

심심풀이 치곤 그 결과가 엄청났다. 눈밑에 총알을 맞은 金보라양은 중상을 입었고 두여인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부상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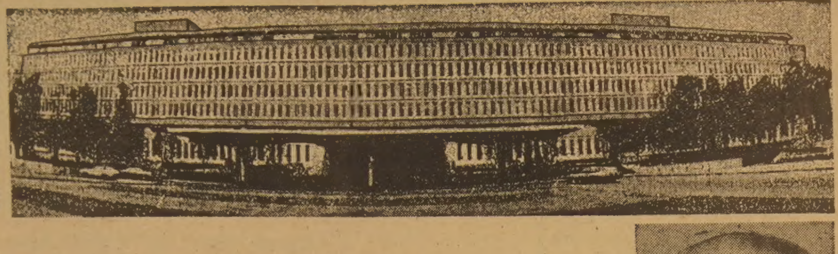
金군은 이 총으로 전에 옹진실에서 여러번 사격연습을 해왔었고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다.

비교적 성능이 좋은 이 공기총을 아무렇게나 간수해온 것도 문제지만 함부로 실내서 사격연습을 하도록 묵인해온 것이 사건을 저지르게된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또 사람을 시험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인명천시의 사고방식이 한창 배우는 학생에게 들어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아무튼 이사건은 청소년범죄를 둘러싸고 사회에 또 하나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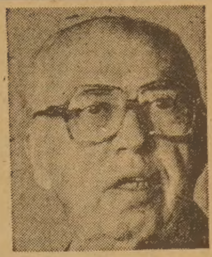
주간女性



◇世界情勢를 한 눈에 보고있다는 美CIA本部청사.

困辱 치르는 美CIA

잇단 疑惑事件에 먹구름… 그 全貌



◇레이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CIA局長에 임명된 윌리엄·케이시가 그의 전력이 말썽이 되면서 막중한 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문제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告發기사로해서 내 과거에 잘못은 없지만 소요스러워진데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며 자리를 떠난 휴겔 前CIA副局長。

하루아침에 세계情勢를 뒤바꾸어놓을수 있다는 막강한 힘을 지닌 美CIA가 한 有力신문의 告發記事로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닉슨대통령을 사임케한 워싱턴·포스트의 特種記事로해서 CIA부국장 휴겔이 현직에서 물러나더니 이번에는 CIA의 총책임자 케이시局長의 의자가 흔들거리고 있다. 언론과 議會로부터 마구 공격을 받고있는 CIA는 世界정세는 커녕 자기 방어에도 절절 매고있는 형편이다.

■워싱턴·포스트紙 全力投球

케이시CIA국장의 「厄日」은 7월14일에 닥쳐왔다. 워싱턴政界의 특종기사에서는 절대적인 자신을 갖는 워싱턴·포스트紙가 1면 톱기사에서 「휴겔CIA부국장, 증권조작으로 고발당하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보도방식은 지난날의 워터게이트사건을 연상케하는 全力投球의 것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넣은 포스트紙의 2명의 민완기자 가운데의 한사람인, 현재 편집간부로 승진한 우드워드국차장의 진두지휘아래 4명의 기자가 모두 6천어의 기사를 썼다.

1면외에 8, 9면을 모두 채운 전형적인 告發報道였다.

그것에 의하면—

74, 75년께 휴겔부국장은 브라더·인터내셔널社의 사장으로 있었다. 이 회사는 자봉틀과 타이프라이터를 제조하는 일본의 브라더工業(본사 名古屋)의 산하회사인데 휴겔사장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증권업을하는 토머스(49), 사뮤엘(47)의 매크넬 형제에게 자기회사의 경영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여 이익을 올리게 하고 있었다.

동시에 매크넬형제에게 댓가로 회사증권을 사게 해서 줏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서로가 이익을 올리고 있는동안은 괜찮았지만 형제측의 장사가 어려워져 휴겔이 융통해준 자금이 막힌것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 북새통에 금년1월 휴겔은 케이시국장의 추천으로 CIA에 들어가게 되었다.

형제는 그후에도 심하게 빚독촉을 받자 신문기자와 접촉, 휴겔과의 전화응답의 테이프와 함께 줏가조작의 실태를 고백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휴겔은 「매크넬형제는 나에게서 돈을 뜯어내기위해 나를 협박했지만 굴복하지 않았기때문에 신문에 정보를 누설했다」고 응수했다.

증권거래법위반은 어쨌든 경영자로서 스스로 기밀을 누설하는 인물이 CIA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추적 위치로 일컬어지는 「비밀공작담당부국장」이라는 자리에 앉는데 대한 불신의 소리는 높아가기만 하고 있다.

결국 16일에 이르러 「아무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직책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임한다」고 깨끗하게 은퇴선언을 했다.

백악관과 CIA도 「이제는 일단락됐다」고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케이시국장의 의혹사건이 퍼진 것이다.

케이시국장이 70년대초 뉴올리언즈의 농산물회사의 중역이었을때의 얘기이다. 이 회사는 주식을 공모했지만 그때 거액의 부채가 있는 것을 숨기고 倒産후 그 사실이 드러나 민사소송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케이시국장은 지명 승인의 의회청문회에서 진술하여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휴겔사건이 일어나자 케이시국장의 정보에 대한 생각이나 자질이 검토대상이 되었다.

■國務省보다 취직인기

워싱턴교외 버지니아州 랑크레에 본부를 둔 CIA는 요원1만5천명, 연간예산7억5천만달러의 큰 기구다.

카터집권시대에는 사양길이 두드러졌던 CIA지만 실상 요즈음은 그 재생이 눈부시다.

지난 6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사이에서 국무성보다 CIA지망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레이건정권이 되자 「강력한 미국」을 뒷받침하는 CIA의 역할이 대학출신 젊은이들에게 새삼스럽게 재평가된 것이다. 그 중심에 자리잡은 것이 케이시국장이다.

두꺼운 테의 큰 안경, 벗겨진 이마와 투툼한 입술에 단단한 몸집, 마치 장사의 이미지를 지닌 케이시국장은 2차대전중 OSS(전략사무국)의 멤버로 활약한 알짜 정보맨이다.

약화된 CIA를 재기시키기 위해서는 안성마춤의 인물로 일컬어졌는데 그의 중점정책의 하나가 비즈니스세계에서의 정보활동강화이다.

■前要員이 리비아工作

CIA스태프에는 외교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일반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후 외국에 나가는 민간요원의 두 종류가 있지만 실업계에서 실적이 있는 케이시국장은 이 민간인의 강화책으로 휴겔을 기용했던 것이다.

휴겔副局長은 株價造作說로 引責사퇴

추천한 局長도 聲討대상…前要員의 테러指導도 말썽

「비즈니스세계의 엄격성이 스파이세계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바닥에 있어 이러한 수법이 CIA의 전문인들에게 반감을 사고 이번의 일련의 불상사가 드러났다는 설도 워싱턴에 퍼지고있다.

CIA가 충격을 받는 또하나의 사건은 지난달 중순 뉴욕·타임즈紙가 보도한 前CIA요원의 리비아工作이다.

미국은 中東, 아프리카에서의 테러활동의 많은 배후에 리비아의 가다피대령이 암약하고 있다고 보고 5월에는 워싱턴주재 리비아외교관을 추방했지만 이 가다피대령이 거느리는 리비아에 「스파이、사보타지행위、심리전」을 지도한 것이 쿠바침공작전에도 참가했던 에드윈·윌슨등 前CIA요원 3명이다.

■高性能폭약까지 密送

이 3명은 그밖에 「工業用爆破」이라고 속여 고성능폭약 RDX 1만7천㎏을 리비아로 밀송한 것도 밝혀졌다.

CIA는 7월1일부터 공보실, 의회대책실의 두 기구를 사실상 폐지하고 「유리장벽의 CIA시대는 끝났다」고 본격적인 CIA 재건책을 착착 진행중이라는 것을 한창 인상깊게하고 있는 도중이었다.

또 CIA이외의 국방정보국(DIA)、국가안전보장국(NSA)등 11개 정부정보기관의 조정과 분석의 일원화를 꾀하기위해 CIA국장이 의장이되는 「정보분석평의회」의 설치도 결정했다. 잘 나가고 있는 재건강화에 갑자기 함정이 생긴 것이다.

■「政治的임명」이 禍불러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실은 레이건정권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것은 레이건대통령 탄생에 기여한 인물을 중요직책에 앉히는 「정치임명」이 연달았기 때문이다.

케이시국장이 레이건 측근에 가까운 것은 유명하지만 휴겔은 뉴햄프셔州의 레이건 선거대책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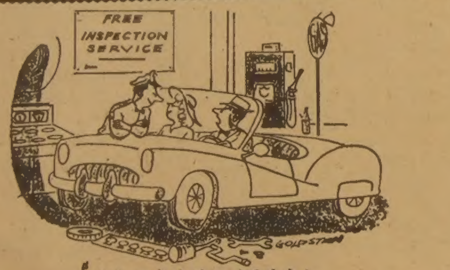
레이건대통령은 「케이시국장에 대한 신임은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있기는하나 골드워터상원의원등 의회의 비판이 거세어짐에 따라 그 태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外誌에서〉

숨은 간첩 신고하여
애국하고 상금 타자
★간첩선 신고 최고 5천만원
★간첩신고 최고 3천만원

해외 걸작 만화

「진료·순서」
"잠깐만요. 제가 먼저 왔어요."



"이봐, 고장난 것은 자동차야!"

「개구장이의 생일 선물」
"돈이 없었거든요."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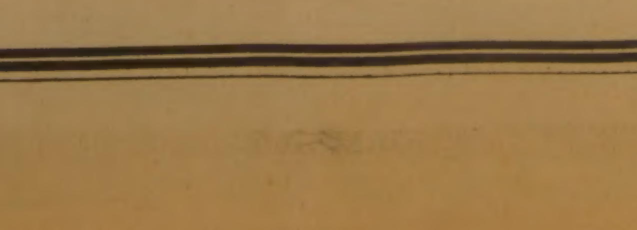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챠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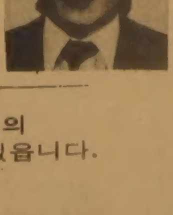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외길 人生

누가 뭐라든 내가 좋아 내가 한다

生計도 팽개친채 한길로 一貫하는 별난사람들

누가 시켜서 한일은 결코 아니다. 스스로 좋아서 택한 길이다. 그들은 代를 이어 묵묵히 家業을 傳承해 왔고 또 철새를 보호하는데 평생을 바쳐왔다. 남이야 뭐라든 그들은 生業까지도 포기하면서 오직 봉사정신으로 한결같이 외길을 걸어왔다.

인간문화재 箭筒匠 金東鶴씨

전통적 화살통만드는게 자랑
4代째 백년간 家業으로傳承

◇4대째 家業을 이어 화살통을 만들어 온 金東鶴씨.

4대째 가업을 전승, 40년간 오직 화살통 만들기에 온 정성을 기울여온 외길인생이 있다.

慶北浦項시 鶴山동에 살고있는 金東鶴씨(50)가 바로 그 장본인.

그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실용성을 잃어버린 화살통의 꺼져갈것같은 제작기법을 이어오고있다.

金씨집안에서 화살통을 만들어온것은 증조때부터 金씨에 이르기까지 1백년이상을 가업으로 계승해 오고있다.

벼슬길에서 낙향하여 취미로 만들어 쓰던 화살통이 그대로 4대째 생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金씨는 화살통을 만질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화살통을 어깨에 메고 늠름하게 말을 타고 산과 들을 질주하면서 사냥을 즐기던 기개와 멋이 느껴진다고 했다.

慶北迎日군神光면에서 출생한 그는 10살때부터 日帝의 감시를 피해 忠北 丹陽으로 피신해 있던 조부 金高城씨를 따라 방랑생활을 하면서 몸틈이 화살통 제작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해방후 4년동안 부친으로부터 본격적인 제작 기법을 전수했으며 6·25사변이 일어나기 직전 丹陽에서 浦項으로 옮겨와 현재까지 정착하면서 화살통제작에 정성을 쏟아오고 있다.

화살통의 기원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新羅시대때 화랑들이 등에 메고 다닌것이 처음인데 金씨가 갖고있는 화살통의 제작기법은 각종 무늬가 새겨져 있는 중국의 제작기법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것이다.

요즘 각종 민속공예품들이 대부분 세태에 따라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화살통만은 제작기법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金씨의 최대자랑이다.

화살통은 대를 잘라 그늘에 2~3시간 저장해 두었다가 껍질을 벗기고 양잿물에 24시간을 삶은후 대의 매듭을 잘 처리, 나타나는 각종 무늬를 도안한후 칼로 이들 무늬를 섬세하게 처리한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천으로 대나무를 닦고 왕겨를 헝겊에 싸서 광택이 나도록 문지른후 고리쇠를 풀로 붙인다.

그다음 옻칠과 용머리모양의 화살통뚜껑을 물푸레나무로 깎아붙이고 놋쇠로 만든 거북모양의 장식품을 단다.

원래 화살통의 문양은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화살통에는 龍을 깎아 붙였고 문과급제자는 松鶴을, 선비는 四君子를 수놓았고 무과급제자는 山虎를 도안했다.

이제 화살통은 연로한 궁도가의 소장품으로나 관광객들의 애완품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

활쏘기는 체력단련과 정신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洋弓에 밀려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金씨는 1년에 화살통을 큰것 작은 것 합쳐 50~60개정도 만들고 있다.

작은 화살통은 1개에 3만2천원, 큰 화살통은 4~6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특별히 조각을 한것은 10만원정도 받고 있다.

그러나 완성품이 나올때까지는 3개월이나 긴 시간이 걸려 월수입은 고작 15만원정도로 겨우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다.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해서 생산량을 확대, 더 많은 수입을 올릴수도 있을것 같으나 그는 기업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선조로부터 전수해온대로 제작하고 있다.

그는 지난75년 서울에서 열린 전국관광민예전시회에서 특선을 차지했고 73·77·78년도에는 인간문화재공예작품전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철새보호가 河鳳鎭옹

生業터전 잃어가며 철새保護
捕獲막다 총맞아 죽을고비도

30여년간을 하루같이 철새보호에 몸바쳐온 노인이 있다.

철새서식지 慶南河東군玉宗면宗化리의 河鳳鎭노인(70)은 반평생을 철새보호에 바친 자연보호의 숨은 기수다.

철새의 요람지인 宗化마을은 군소재지에서 30㎞나 떨어진 晉陽·河東·山淸군의 군계지점으로 德川江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벽촌.

河노인은 이곳 자기소유 5천여평의 왕대밭을 철새서식지로 제공, 생업의 터전을 잃어가면서까지 34년간을 黃鷺, 白鷺, 왜가리등 보호철새들을 자식 기르듯 돌보아 왔다.

올들어 이곳 서식지에는 예년의 배가 넘는 1만여마리의 철새들이 찾아들어 주변 야산의 소나무와 밤나무밭 까지 점령, 5천여개의 크고 작은 둥지를 틀고 집단서식을 해 일대장관을 이루고 있다.

河노인이 철새를 돌보게된 것은 1947년 섣달그믐날로 두쌍의 백로가 자기소유의 왕대밭에 날아들어 둥우리를 틀면서부터 비롯된다.

日本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다 해방되면서 고향을 찾아온지 두해째를 맞은 당시 36세이던 그는 새로 마련해 이사한 자기집에 처음 보는 하얀새가 찾아들자 길조라고 생각, 온가족과 더불어 동네사람들을 얼씬도 못하게하고 이 새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河노인은 백로가 처음 날아든 그해부터 78년까지 31년간을 하루도 빼지않고 철새들의 동태를 일일이 관찰해 일기를 써왔다. 河씨에 따르면 이들 철새는 우수경칩때부터 한로가 될때까지 둥우리를 틀어 새끼를 치며 서식하고 10월이면 떠나간다는 것이다. 河노인이 이같이 새를 보호하는동안 말썽도 많았다.

백로떼가 서식한지 10년째 되던해에 河노인은 큰아들과 백로보호를 둘러싸고 마음이 상해 무려 3개월간이나 말조차 하지않고 지냈다한다.

그의 아들은 5천여평의 왕대밭에서 연간 1만그루의 대나무를 생산, 5백여만원의 수익이 굴러드는 유일한 생업의 터전인데도 철새때문에 수익이 1백만원으로 줄게되자 철새를 내쫓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河노인은 내집에 찾아온 길조를 보호해야 한다고 완강히 맞섰다.

끝내 집안식구들은 7남매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케한 수익높은 왕대밭을 철새들의 터전으로 내놓기로 하고 河노인의 뜻을따라 철새보호에 온정성을 기울여 왔다한다.

백로떼가 찾아든 처음 10년간은 백로알이 신경통, 위장병등에 특효약이라고 해서 알도둑이 설쳐 애를 먹었고 뱀, 독수리, 부엉이까지 틈만나면 알을 훔쳐가 횃불을 밝히고 밤새워 지켰다.

또 6·25때는 법질서가 문란해지자 일부 지방자치대원들이 백로를 총으로 쏴 잡아가는 바람에 말리다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지난10여년간은 농약공해로 백로들이 떼죽음을 당하고있다면서 철새서식지를 잃게될까봐 河노인의 걱정은 태산같다.

벼멸구가 극성을 부린 78~80년사이에는 매일 10여마리씩 죽어갔다한다.

河노인은 지난 71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 보호지로 지정, 당국과 합동으로 철새를 보호토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껏 시원한 대답이 없다한다.

河노인은 매년 살충제를 쓰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현서식지의 대나무와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새로운 서식지의 마련이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철새보호대책을 애타게 바라고있다.

◇34년동안 생업도 포기해가며 철새보호에 몸바친 河鳳鎭노인.

왜가리 管理人 申章澈씨

왜가리管理4代…보호인 죽자 墓찾아 울고
내에서 行巾잃자 물어다 마당에 떨어뜨려

천연기념물 13호인 왜가리를 연 4대째 돌보고 있는 집안이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忠北 鎭川군 이월면 노원리 노곡부락의 申章澈씨(58)가 그 4대 관리인이자 주인공—.

왜가리떼는 申씨의 집 뒤에 있는 1천2백년 묵은 은행나무 위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죽는 날까지 왜가리를 돌보며 살겠다』는 申章澈씨 뒤에서는 그의 아들 申동노씨(37)가 5대 관리인직을 맡을 채비를 차리고 있다.

왜가리는 백로과에 속한다. 머리는 백색, 목은 회백색, 다리와 부리가 모두 긴데, 부리는 날카롭고 뾰족해 논이나 하천, 호수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아먹기에 편리하다.

이 새는 4월~6월에 큰 나무의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청록색의 알을 네개씩 낳는 습성이 있다.

왜가리가 노곡부락에서 서식한지는 이미 수백년전—. 그중 申씨 집안에서 왜가리를 돌보기 시작한것은 약1백년전으로 申章澈씨의 증조부인 申直熙씨 때부터였다고 한다.

申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申直熙씨는 왜가리 서식처인 은행나무 곁에 집을 지으면서 왜가리를 돌보기 시작했다는데 당시만 해도 1백여쌍이 서식했고, 왜정 때는 최고 1백40여쌍이 들끓었다고 한다.

또 60년대초까지만 해도 백로가 여러 쌍 끼였으나 8년전부터 모습을 감췄다고 申씨는 전한다.

◇왜가리 관리로 4대를 이어온 申章澈씨.

왜가리 관리는 현재 4대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은 귀한 새를 보호해야겠다는 사명에서 우러나온 봉사였을 뿐이지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다』고 申씨는 강조한다.

따라서 증조부 때나, 조부, 부친 때까지도 완전 무보수—. 申씨 역시 초창기에는 아무 댓가 없이 관리하다가 왜가리가 문공부로부터 천연기념물 13호로 정식 지정된 지난 64년부터 월 2만원씩의 관리비를 받고 있다고 한다.

申씨에 따르면 왜가리는 봄에 왔다가 가을에 떠난다고 한다. 그 기간동안 申씨에게는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왜가리를 돌보는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왜가리의 알이 신경통에 좋다는 풍문 때문에 봄이면 밤을 이용해서 알을 빼어가는 사람이 많아 애를 먹었다고 한다.

철 들고부터 환갑을 3년 앞둔 현재에 이르기까지 왜가리와 더불어 살아온 申씨는 『왜가리의 울음만 들어도 그 상황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왜가리나 백로는 사람이 저희를 해치는지, 돌보려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며 알과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영물』이라고 설명한다.

지금부터 59년전, 그의 아버지 賢福씨가 친구의 장례에 참석하고 돌아오다가 냇가에서 행건을 빠뜨리고 돌아오자, 왜가리가 그것을 물어다가 안마당에 떨어뜨린 일도 있고, 賢福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난 73년11월4일에는 다섯마리의 백로가 산소에 앉아 슬피 울다가 영영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왜가리나 백로와 같이 귀한 새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보호운동은 때에 꼭 맞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이미 4대 전부터 자연보호운동을 계속해 온 申章澈씨는 『죽는 순간까지 왜가리를 돌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일명 石工校長 盧東煥씨

찾아오다 辭職한다는 僻地국민교로 부임

全北長水군長水읍 십십산골 장안산 계곡 가파른 산허리에 자리잡은 德山국민교운동장에는 돌 다듬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교학생이 61명에 교장·교감, 그리고 6명의 교사가 이 벽촌 학교의 전식구다.

학생들의 책 읽는 소리가 창문을 넘어 산골짜기마다 메아리질 때 운동장 한구석에서 돌 다듬는 소리가 장단을 맞춘다.

자연석에 새마을 모자를 쓴 교장 盧東煥씨(57)는 하고 한날 운동장에서 돌을 쪼개어 무궁화·동산을 꾸며나가고 있다.

그래서 학교주변 산촌주민들은 그를 〈석공교장〉이라부른다.

산허리에 위치한 德山국교는 층계도 많다. 층계마다 정성들여 쌓아 놓은 석축과 돌계단은 모두 〈석공교장〉의 작품이다.

계속되는 석공일로 그의 손바닥은 못이 박혀 있고 손톱은 멍이 들어 시퍼렇다.

그가 이 곳으로 부임한 것은 지난해 4월1일. 長水읍에서 해발 8백m의 밀목재를 넘어 계곡을 굽이굽이 돌아 6㎞에 달하는 가파른 산길을 올라 이 학교에 첫 부임했을 때 그를 반기는 60여명의 고사리손들을 움켜쥐며 그는 속으로 몹시 울었다.

보이는 것은 하늘과 산뿐,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는 해발 630m에 세워진 德山국교 주변은 온통 돌멩이 뿐이고 정원이나 운동장과 정원 그리고 허물어진 석축들로 마치 폐허만 같았다.

부임후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을 넘기자, 땅이 솟아 오르면서 군데군데 쌓아 놓은 석축은 모두 무너졌다.

盧교장은 금년 3월 새로 부임한 韓圭學교감(45)과 함께 학교주변에서 돌을 주워 날랐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교장과 교감은 석수와 조수가 되어 돌을 깎고 다듬어 석축을 쌓고 경사진 정원에 흙을 날라 평판을 만들었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작업을 되풀이 했으나 아직도 일은 끝이 없다. 운동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쌓아야 하고 계단도 만들어야만 된다.

학교 어린이들에게 일을 돕도록 할수가 없다. 길도 멀고 또 집에 가면 일을 거들어야 되기 때문에 숙제 없이 일찍 귀가시킨다.

멀리는 해발8백m의 산을 넘어 4㎞를, 깊은 계곡의 물을 건너 통교하는 학생들도 있다.

50여가구도 안되는 골짜기에는 7개 부락이 띄엄띄엄 살고있다. 많이는 14가구, 적게는 2가구, 멀게 떨어져 있다. 농로나 마을길은 물론 있을리 없다.

일손도 부족하다. 화전에 고추, 마늘, 채소등을 심어야 되며 공휴일엔 고사리도 꺾어야하고 염소도 몰아야 된다.

그래서 숙제를 낼수가 없단다. 버스는 물론 바퀴 달린 것은 구경도 못한다. 학생들이 제일 보고 싶은것은 남해 바다. 학교가 세워진 이후 24년동안 2백43명의 졸업생을 내면서 수학여행은 몇년전 어느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요행 한번 외에는 없다 한다.

3년전 전기가 들어오면서 TV를 볼수 있게 된 벽지 학교 학생들은 바다를 무척 동경하고 있다.

그러나 산골 소득으론 이같은 꿈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교사들 사이엔 이 학교로 부임하면서 넘어오는 밀목재를 〈사직고개〉라 한다. 학교를 찾아오다가 사표를 던지고 만다는 유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盧교장은 티없는 어린이들의 밝은 꿈을 키워주기 위해 정성들여 돌을 다듬고 있다.

◇학교를 다듬기위해 돌을 깎기에 여념이 없는 盧東煥교장.

民俗

목에줄걸고 땅에엎드려 끌어
웃음·해학넘치는 農閑期놀이
50년만에 再現된 密陽「게줄다리기」

◇50여년만에 원형이 再現된 慶南密陽지방 민속놀이인 「게줄다리기」.

경남 密陽지방에서 韓末이전에 머슴들사이에 성행했던 민속놀이인 「게줄다리기」가 50년만에 재현돼 명맥을 잇게 됐다. 지난 7월25일 金東鮮씨(66·전密陽문화원장)의 증언으로 密陽郡山外面 마을축제에서 재현된 이 놀이는 보통 줄다리기가 손으로 끌고 당기는것에 비해 줄을 목에 걸고 땅바닥에 엎드려 마치 게처럼 기어서 당기는 경기.

지난70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光山郡의 「고싸움놀이」가 마을사람이 전원 참가하는 대규모 줄다리기인데 비해 이번에 재현된 게줄다리기는 작은 부락에서 정월과 2월농한기에 머슴계군들이 모여 여흥과 단합을 위해 소규모로 했던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金씨의 고증에 의하면 옛날 밀양지방에는 토호들이 많았고 따라서 머슴인구도 많았으며 농한기에 이들머슴집단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 놀이가 권장됐다는 것이다.

이 놀이에 사용되는 줄은 가운데 지름이 1m30㎝정도의 새끼로 된 원형대들보를 중심으로 여기에 줄이 달려 전체모양이 바다에 사는 게처럼 생긴것.

1대1로 하는 줄과 3대3으로 하는 줄, 5대5로 하는 줄등 세가지 유형이 있다. 1대1인 경우는 줄을 좌우로 하나씩 달고 3대3인 경우는 좌우에 줄을 3개씩 단다. 또한 5대5인 경우에는 좌우에 5개의 줄을 달아 서로 끌어가도록 돼있다.

놀이는 심판이 가운데줄을 그은후 원형대들보위에 올라가 징을 한번 두들기는 것으로 시작된다. 줄꾼들은 소가 멍에를 메듯이 목에 줄을 걸치며, 줄은 두다리 사이를 거쳐 뒤로 빠져 연결돼있는 형태가 된다.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서로 끌려가지 않기위해 땅을파헤치기도 하고 바다게처럼 엎드려 움직이지 않고 버티거나 발로 옮겨간다. 그모습이 꼭 게처럼 생겨 「게줄다리기」란 이름이 붙었다.

승부는 3판2선승제.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詩와의 散策

◇端午는 옛날부터 남녀가 만나도록 허락한 날. 봉건사회에서도 이 날만은 누구나 계곡, 들판으로 가게 해 自然속에서 어울리도록 했다.

端午

卞鍾植

우리네 조상들의
생각은 참 멋들어졌지.

삼단 같은 머리
창포물에 감은 머리
더욱 윤이 나고.

집안에만 갇혀 있던
처녀도
부끄럼 없이
그네로 허공을 탄다네.

鞦韆가

아무리 쓰기로서니
民俗이라니 사랑하라.

동구밖 씨름판
어여차 힘과 기술 다투기
우리 마을 壯士 났다네.

우리 조상들의
놀이는 참 멋들어졌다네.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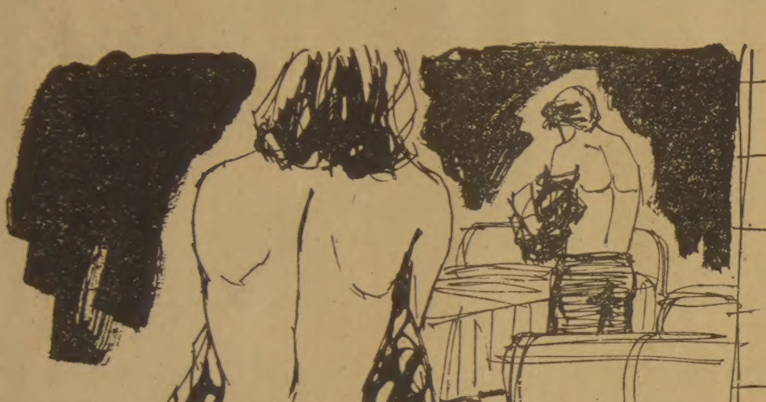
金洪信 作
崔然石 畫

『애들 떼구 가지 않아도 되겠니?』
병구가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말했다。술값과 팁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내석이 막상 내가 나서자 겁이 난 모양이었다。
『내가 패싸움이나 하는 그런 놈으로 알았니?』
『그래도 떽치파가 만만찮은 패거리들이잖니。괜히 내가 네 제사 지내 주게 될까봐 그런다。』
『그러게 애들 좀 데리구 가자。』
『이게、재수 없는 소리하구 있어。』
『넌 신문도 안보니? 패싸움해서 시끄럽게 구는 기사도 안보냐。말이다。떽치 애들이 몇십명 떼거리로 덤빈다면 몰라도… 이삼십 명이야 간단히 해치울수 있으니까 염려마。너보구 제상 보라구 하진 않을테니까。』
평소에 내 실력을 과시하는 내석이었는데도 떽치파와 붙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내석은 얼어 있었다。
『그 여자들만 잡아버리면 되잖아。』
병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꽥소리 말고 좇아와。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있어。』

지난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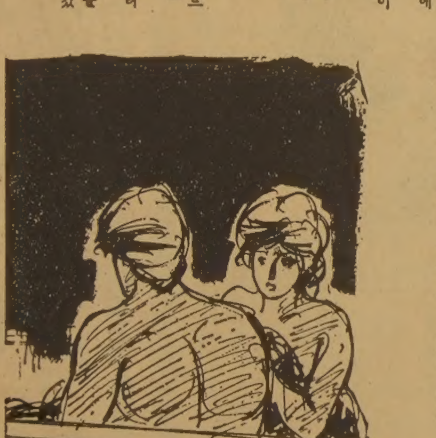
일본여자 행세하던 여자는 갑자기 미국여자 행세를 시작했고 병구를 모르는 체했다。도리어 부녀자를 희롱하는 불량배취급을 당했다。병구가 두 여자를 후려치고 도망가다가 장충단 선수에게 잡혔다。치료비를 물어주고、가진 곤욕 다 치르고 나니까 그 여자는 서울에 사는 한국여자였다。총잡이는 여자 제비족 배후세력 떽치파를 다 잡을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떡 먹다 체할까 봐 그런다。』
우리는 조금 서둘러 떼칸홀 근처로 나갔다。지형정찰과 분위기를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넌 그 여자들만 알려 주고는 얼씬거리지 마。』
『알았어。』
떼칸홀은 어두웠다。어둡고 검붉은 조명 때문에 분간하기 어려운 홀이었다。조금 지나자 암조응이 되어 분위기며 사람들 표정을 알 수 있었다。나는 구석자리를 골라잡았다。무대 위의 악사들은 흥에 겨운지 몸놀림이 보기 좋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너 그렇게 퍼마시다가 여자들 놓쳐。정신 차리고 똑똑하게 살펴 봐。』
초조해서 그런지 연신 술을 따라 마시는 병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병구는 두리번거리며 보이지 않는다고만 했다。
『재들 같은데…저기 춤추는 애들。』
병구가 내게 바싹 기대며 무대 오른 편을 가리켰다。
『확실한지 똑똑히 봐。』
『맞아、재들야。』
병구가 자신있게 말했다。
사이키 조명 아래 새하얀 원피스는 신선하달 만큼 찬란한 색상을 드러내고 있었다。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이 어우러지는대로 그녀의 자태는 순간순간 변하고 있었다。하얀 실크의 치맛자락이 몸을 돌 때마다 무대를 휘돌고 돌았다。
『거、삼삼하게 생겼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조명 아래선 하얀 옷처럼 어울리는 게 없었다。그녀는 그것을 아는 여자 같았다。춤동작도 유연했고 활짝 웃는 얼굴도 티없이 젊어 보였다。
『어때、대단하지。』
병구의 목소리가 들떴다。
『지랄하구 있다。』
『그냥 끝장 보고 말지。』
『너 손아귀에 들어올 줄 알아?』
『그게 쌍방의 정신 위생상 좋잖아。』
『너는 당해도 싼 녀석이야。그 새 정신 놓고 있으니。』
『좋은게 좋은거 아냐、뭘。』
『그냥 무릎 꿇을 애들이 아냐。결정적 순간에 몽땅 털어먹는 애들야、임마。』
『엔조이하자는 거잖아。』
『아가리 닥치고 있어。재들 자리나 알아봐。』
병구가 엉거주춤 일어나 여자들이 앉는 자리를 확인했다。
『놈씨가 둘 붙었는데。』
『새치기해야지。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눈에 띄면 안돼。』
나는 병구를 앉혀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화장실 입구쯤에서 여자들과 같이 앉아 있는 사내들을 지켜보았다。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꼴이 금새 화장실을 다녀가야할것 같았다。
사내가 화장실 쪽으로 다가왔다。나는 옆으로 비켜 주었다。사내가 화장실로 들어갔다。나는 약간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갔다。
사내가 바지를 올리고 돌아섰다。나는 다짜고짜 사내를 양변기가 있는 칸으로 끌어당겼다。
『다 당신、누구요。』
『쉬、조용히 해。당신 파트너가 일본여자지?』
『아닙니다。내 친구 파트너예요。』
뒤가 켕기는지 고분고분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들 사기꾼야。같이 호텔에 갔다간 신세 망쳐。내 말 알아들어?』



어때、삼삼하지 춤동작도、활짝 웃는 모습도 티없이 맑고
입놀림 좀 봐、일본여자 행세하며 아양떠는 저 간악함을

『예、무슨 말인지 짐작이 갑니다。』
『친구를 몰래 불러내서 튀어。술값은 내고 말야。』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 말 믿어봐。재들 잡으러 나온 사람야。빨리 꺼져。』
『그럼、형사님…알겠읍니다。』
『눈치 채지 않게 해。』
『웨이터 시켜서 불러내죠、뭘。』
『곧장 나가。미련 두지 말고。당신들 오늘 운 좋은 거야。』
『고맙습니다。잘 알겠읍니다。』
사내는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나갔다。나는 사내의 등뒤에서 웃어 주었다。사내가 씨익 웃고는 카운터에 계산을 했다。
두 사내가 빠져나갔다。나는 웨이터를 불렀다。
『이거 받아라。』
1만원권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웨이터는 머리를 깍듯하게 조아렸다。
『재들 알지?』
『자주 오는 손님이죠。』
『이 자식이、너 떽치 몰라?』
『압니다、알아요。』
『그럼、시키는대로 해。가서 파트너가 술값 안내고 튀었다고 일러。』
『괜찮을까요?』
『이 자식이、재들 버릇 가르치려고 그래、임마。어서。』
웨이터는 꾸벅 절을 하고 여자들 쪽으로 갔다。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떽치파가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알 것만 같았다。웨이터가 그 한마디에 쩔쩔 기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저…아가씨、같이 있던 남자 손님들이 아가씨한테 계산하라면서 급히 나갔어요。그래서。』
웨이터가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여자들 얼굴이 대번에 변했다。
『뭐라구、그 사람들이?』
째지는 소리였다。
『그 사람들이 우리더러 계산하라구?』
『네 그랬읍니다。』
『개자식들…후딱 나가자。』
여자들이 벌떡 일어섰다。나는 그 자리로 들어서며 말했다。
『이봐、아가씨들。술값이야 내가 치러 주면 되잖아。그까짓 거 몇 푼이나 된다구 이래?』
『뭐라구요?』
여자가 반문했다。
『얼마나 돼。내가 계산할께。술값을 아가씨한테 씌우는 녀석들도 있구만。』
그렇게 돼서 나는 그 여자들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자세히 뜯어보니 이런 곳에 와서 무작정 흔들어 댈 나이는 지난것 같았다。병구 말로는 서른 살이 넘은 여자가 너무 젊어 보인다고 했었다。병구 말은 틀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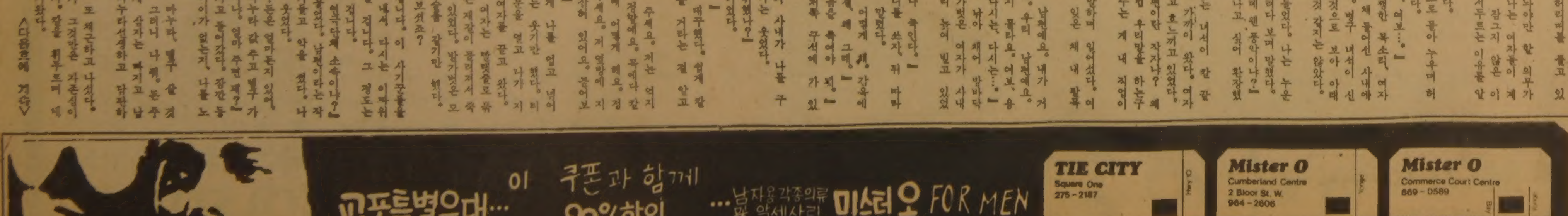


『엔 일본에서 나온지 보름밖에 안돼요。그래서 말이 서툴러요。한국말을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사람을 잘못 봐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간악한 짓으로 육체 하나로 벗어먹는게 아니라、뭇 사내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여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설마 막달라 마리아 생각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건 아니겠죠。그런 여자들이 있어야만 함부로 몸을 흔들어대는 사내들 버릇을 고친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멀쩡한 우리나라 여자、잠실에 사는 이 여자가 지껄이는 저 입 좀 보세요。썩 훌륭한 일본여자 행세를 하면서 일본말로 지껄이는 저 입놀림과 그 뒤에 숨긴 음험한 계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내버려 두라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여자가 왜색시 노릇하는 것만 봐도 피가 끓는 판인데、멀쩡한 우리나라 여자가 일본여자 흉내를 내어서 사내들을 홀리는 저 꼬라지는 그래 그냥 두고 보라는건 아니시겠죠。
저 혀 풀린 일본말 좀 들어 보세요。한국남자들 친절하다면서、외로와 죽겠으니 따뜻하게 해 달라는 저 교태 좀 보십쇼。
나는 여자들한테 홀린 척하며 따라 나섰다。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들의 수법이 동원되는 찰나인 것이었다。
『젠 취했어요。외로와서 저래요。저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재 좀 외롭지 않게 해 줘요。일본인 남편하고 이혼하고 여기 와서 살겠다고 저래요。』
일본여자 행세하는 여자는 알아들을 수 없게 일본말로 뭐라고 지껄이고 있었고、다른 여자는 나에게 일본 여자를 즐겁게 해 주라고 떼를 썼다。
『그럼、아가씨만 외롭잖아。어디 같이 가서 한잔 더 하지 그래。』
『난 가야 돼요。남편이 기다려요。』
『너무 정숙한 척하지 마。내겐 정력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럼、재미 못 보잖아。』
『취한 여자하구 무슨 재미…。』
『찬물에 샤워나 하구 그러면 돼。재 끝내 주는 애라구요。』
『뭘 어떻게 끝내 줘。』
『다 압시롱。』
『그럼、옆방에서 자면 되잖아。충직한 신하처럼 알아서 모실 테니까。』
여자도 따라나설 마음이 생긴 것 같았다。나는 가까이 보이는 곳을 가리켰다。여자들은 서슴없이 앞장 서서 들어갔다。
멀찌기서 병구 녀석이 손을 들어 보였다。나는 호텔을 가리키며 뒤따라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두 여자는 거침 없이 옷을 벗었다。원피스 속에는 앙증맞게 생긴 브러지어와 실낱같은 속옷 한개 뿐이었다。건방진 것이 내 가슴 속과 아랫도리에 숨어 있었다。나는 냉정한 척하느라고 담배를 빼어 물었다。
『몸매 좋은데、그래。』
『벗으면 더 화끈해。』
『남편이 어느 녀석인지、대꼬챙이처럼 뒤틀려 죽겠다。』
『자지러지지。이래 뵈두 왕년에 놀던 솜씨가 있다구。』
두 여자는 마지막 옷도 벗었다。나는 샤워실 문을 열어 주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병구가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너、아예 자구 나오려는 건 아니지?』
시샘어린 투로 말했다。
『넌 망이나 잘 봐。그리고 수상쩍으면 벽을 세번 쳐。알았지?』
『재미 좀 보구、그냥 보내지 그래?』
『너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지랄야。빨리 들어가서 망이나 봐。』
『나 진짜 혼자 놀아나면 재미 없어。』

여자는 벗은 몸으로 怪聲을 지르며 사랑만 호소하고
재미 보는데 웬 풍악이야、어허、혼나고 싶어 환장했나

병구가 주먹을 쥐어 보이고 옆 방으로 들어갔다。나는 다시 태연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사장님、들어와서 같이 해요。』
샤워실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나는 샤워실에다 대고 소리 질렀다。
『날 봤다가 아가씨들 기절할까 봐 그래。』
안에서 몸살 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나는 허리띠 안쪽에 감추고 나온 포승을 확인하고 침대에 벌렁 누웠다。멀지 않아 벌어닥칠 떽치패거리들 작태가 궁금했다。
여자들이 밖으로 나왔다。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들의 육체는 너무나 균형잡혔고、너무나 성적 매력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
『난 저쪽 방에 가 있을게。외로운 애부터….』
여자가 원피스로 앞부분만 가리고 옆방으로 갔다。나는 의미 있게 웃어 주었다。
『그래、이 친구부터 기절시켜 놓고 잘께。』
나는 옷 벗는 시늉을 했다。일본여자는 발가벗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나를 불렀다。
『날、사랑해 줘요。』
더듬거리는 목소리에서 교태가 흘러났다。내가 침대로 다가갔다。사기꾼만 아니라면。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색정어린 육체였다。다혜의 큰 눈과 가슴을 생각했다。그러나 나는 이 순간만은 다혜하고 헤어지더라도 이 여자를 해치우고 싶었다。
하나님、솔직한 것도 죄가 됩니까?
이 음험한 여자를 해치우고 싶습니다。그렇다고 사내들이 다 도둑놈은 아닙니다。나를 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도덕적이거든요。하나님、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랫도리를 용서해 주세요。용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직업이니까요。
나는 웃옷만 벗은 채 여자를、일본여자 행세를 하는 여자에게로 갔다。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로 뭐라고 지껄이며 나를 끌어안았다。그녀의 손이 내 허리띠를 풀고 있었다。
나를 발가벗겨 놔야만 할 의무가 그녀에게 있었다。나는 여자들이 계획적으로 문고리를 잠그지 않은 이유와 이 여자가 서두르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재빨리 앞으로 돌아 누우며 허리띠를 졸라 매었다。
『어마!여보、여、여보….』
정확한 발음、멀쩡한 목소리、여자는 앞가슴을 가린 채 들어선 사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병구 녀석이 신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층에서부터 올라온것 같지는 않았다。
『너、죽인다。』
사내가 칼을 빼 들었다。나는 누운 채 두 녀석을 올려다 보며 말했다。
『허허、저게 혼나고 싶어 환장했구나。』
『형님 재미 보는데 웬 풍악이냐?』
남편 행세를 하는 녀석이 칼 끝을 세우고 침대 가까이 왔다。여자가 내 어깨를 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저게 니 남편이란 자자냐? 왜놈 새끼가 제법 우리말을 하는구나。왜놈 혼내 주는 게 내 직업이지。』
내가 이렇게 말하며 일어섰다。여자가 부끄러움도 잊은 채 내 팔목을 잡았다。
『아녜요。우리 남편예요。내가 거짓말한 거예요。우리 남편예요。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여보、용서해 주세요。다시는、다시는….』
사내가 여자를 낚아 채어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발가벗은 여자가 사내에게 매달려 소리 높여 빌고 있었다。
『이 연놈을 다 죽인다。』
사내가 악다구니를 쓰자、뒤 따라온 다른 사내가 말렸다。
『임마、죽이면 어떻게 해。감옥에 처넣으면 될 걸 왜 그래。』
『안돼。이 연놈을 죽여야 돼。』
『참아、여봐、저쪽 구석에 가 있어。』
티셔츠 차림의 사내가 나를 구석으로 밀었다。나는 웃었다。
『이 친구가 취했나?』
나보고 한 말이었다。
『그래、취했다。』
나는 물러서며 대꾸했다。쉽게 잘 무릎을 꿇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여보、용서해 주세요。저는 억지로 끌려왔어요。정말예요。목에다 칼을 대고 끄는데 어떻게 해요。정말예요。믿어 주세요。저 옆방에 지영이 엄마도 잡혀 있어요。물어보면 되잖아요。』
여자가 능숙하게 나를 엮고 넘어갔다。그래도 나는 웃기만 했다。티셔츠의 사내가 문을 열고 나가 지영이 엄마라는 여자를 끌고 왔다。
지영 엄마라는 여자는 빨랫줄로 묶여 있었다。입에는 재갈이 물려져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발가벗은 모습이 차라리 예술품 같기만 했다。
하나님、두고 보셨죠?
박살을 낼 겁니다。이 사기꾼들을 아주 쇠도곤이 내서 다시는 이따위 짓을 못하게 할 겁니다。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느이들 어느 연극단체 소속이냐?』
내가 이렇게 물었다。남편이라는 작자가 칼을 치켜들고 악을 썼다。나는 벌름거리며 웃었다。
『얼마 주라?돈은 얼마든지 있어。임마。느이 마누라 값 주고 뺄구 가면 될 거 아냐。얼마 주면 돼?』
내가 미리 치고 들어갔다。잠깐 동안 녀석들은 어이가 없는지、나를 노려 보았다。
『이왕 버린 마누라、뭘루 살 것도 아니잖아。그러니 나랑 돈주면 되잖아。제 삼자는 빠지고 남편선생하고 마누라선생하고 담판하자。』
내가 이렇게 또 채근하고 나섰다。남편이란 작자가 그것만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칼을 휘두르며 대게 들어왔다。

〈다음호에 계속〉



全南體高에 2년간 出戰정지

中高축구연맹서 징계 경기중 집단으로 審判에폭행

한국중고축구연맹은 4일 전국 추계 중고축구연맹전서 심판폭구타, 말썽을 빚은 全南體高팀에대해 2년간 각종 대회출전을 금지하는 한편 對漢陽工전서 퇴장당한 車鍾泌선수의 자격을 영구박탈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중고축구연맹의 처벌결과를 추인했으며 앞으로 경기장내의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추계전국중고축구연맹전에 출전한 全南體高 일부선수들이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구타, 큰말썽을 빚었다.

4일 하오 議政府공설운동장서 벌어진 대회 8일째 고등부 4조 漢陽工-全南體高대전 후반 15분께 漢陽工이 FW金鍾珉의 득점으로 1-0으로 리드하자 全南體高일부선수들은 선심인 정은모씨가 오프사이드를 잡지 못했다고 항의, 정씨를 그라운드로 끌어들여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흥분한 선수들은 사태수습에 나선 대회 심판위원장 李周燮씨와 申균씨(배재고 코치), 崔炳坤씨(한양공고 코치) 등도 구타했다.

全南體高선수들이 상의를 벗어던지고 심판을 구타하는 모습을 본 관중들은 『장래 이나라의 스포츠를 이끌어나갈 체육고 선수들이 심판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라운드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다니 한심하다』고 개탄하고 선수들의 그라운드 폭력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입을모았다.

이날 사고에 앞서 7월29일의 고등부 濟北高-粟谷綜商 대전에서도 粟谷綜商선수가 오프사이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구타했었다.

전국中高축구 3게임 無勝負

中央 | 中大附高 | 輔仁商
宇信 | 注文津水 | 雲湖高

【議政府】中央高는 5일 議政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추계중고축구연맹전 9일째 고등부 5조경기에서 대추격전끝에 宇信高와 3-3으로 비겨 5조에서 1무승부를 기록했다. 中央은 利川農高(1무)와의 대전을 남겨놓고 있으며 宇信은 2무승부를 기록했다. 中央은 2골을 리드당하다가 韓誠熙 金琅鎬 金俊鉉이 1골씩 터뜨려 동점에 성공했다. 宇信은 李基根이 1골, 申昊哲이 2골을 넣었다.

12조 경기에서는 中大附高와 注文津水高가 0-0으로 비겨 양팀모두 1승1무를 기록했으며 같은조의 輔仁商高와 雲湖高대전도 1-1로 끝나 두팀이 각각 1무1패를 마크했다.

◇제9일전적

▲고등부5조
서울우신 3(2-1 1-2)3 서울중앙
(2무) (1무)

▲동12조
보인상 1(0-1 1-0)1 충북운호
(1무1패) (1무1패)
주문진수고 0(0-0 0-0)0 중대부고
(1승1무) (1승1무)

◇제8일 전적

▲고등부4조
한양공고 1(1-0 0-1)1 전남체고
(1승2무) (1승1무)

▲동1조
신흥고 1(1-0 0-1)1 서울실고
(1승1무) (1승1패)

信一、激戰끝에 우승

花郎旗야구 延長12회서 善隣제압 郭昇勳이 決勝打날려

【釜山=聯】信一高가 연장12회초 郭昇勳의 결승중월3루타로 강적 善隣商高를 3-2로 격파하고 제33회 화랑기쟁탈 전국 고교야구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5일 九德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최종일 결승전에서 信一高는 8회까지 善隣商高에 2-1로 뒤지다가 9회초 全炳國이 좌전안타로 나가 2、3루 연속스틸과 善隣商 포수의 견제 악송구로 홈인, 2-2의 동점을 만들고 연장12회초 6번張光一의 에러진출에 이어 7번 郭昇勳의 결승타로 3-2로 역전승, 대회 첫우승을 차지했다.

信一은 78년 황금사자기 후 처음 전국대회를 제패했다.

◇최종일결승전

신일고 000100001 001 — 3
선린상고 020000000 000 — 2
〈12회연장〉

朴利熙선수 귀국

지난4월 유고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선수로 출전, 한국남자탁구를 9위로 이끌어올린 朴利熙가 4일 휴가차 일시귀국했다.

西獨그렌자우젠클럽에서활약중인 朴은 지난주 세계남자16강이 참가하는 제2회 월드컵탁구대회에 출전, 9위를 차지했다. 朴利熙는 오는20일께출국, 西獨의 후반기시즌경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화랑기 결승 1회초 信一高의 全炳國이 슬라이딩으로 善隣商수비를 뚫아내고 2루스틸에 성공하고있다.【釜山·聯合】

韓國 3敗후첫勝利

韓中야구 8安打로

韓國실업선발팀은 4일 서울운동장에서 나이터로 속행된 韓·中친선야구 4차전에서 朴承昊의 싱글홈런등 8안타를 빼내 5-3으로 승리, 3연패끝에 첫 승리를올렸다.

韓國은 이날 3회까지 1-1로 맞섰으나 4회 朴承昊가 싱글홈런을 날린데이어 6회 다시 우월2루타를 터뜨리는등 3타점수훈을세워 5-3으로 이겼다.

WBC 서울總會 앞두고 KBC、準備에 분망

총경비 8千여만원 예상

오는 9월6일 新羅호텔서 개막되는 제17차WBC(세계권투평의회)총회를 앞두고 한국권투위원회(KBC)는 행사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다.

69년 제5회 총회를필리핀의 마닐라서 개최한 이래 아시아서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WBC총회에는 WBC 집행부임원을 비롯하여 50여개국의 대표와 돈킹씨를 비롯한 유력 프로모터등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

KBC는 지난5월 WBC집행위원회(파리)서 총회 한국개최 문제가 최종확정되자 준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8천여만원의 개최경비를 10여명의 이사들이 분담키로 했다는 것.

이번 총회서는 한국어를 필두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채택, 회의가 진행되는데 동시통역에 드는 비용만도 2천여만원.

총회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WBA 주니어미들급과 WBC 웰터급등 2개의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있는 슈거·레이·레너드(미국)의 타이틀 박탈문제가 주의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레너드는 9월16일 WBA 웰터급 챔피언 토머스·헌즈와 대결하는데 현재 WBC는 이대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한국은 이번총회때 『세계랭커들은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다른세계랭커와 대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의할계획이다.

각국 대표들은 총회기간중 문교장관과 서울시장이 베푸는 리셉션에 참석한다.【炅】

◇入場式 연습 鳳凰大旗를 향한 젊음의 퍼레이드. 제11회鳳凰大旗대회 개막에 앞서 5일 참가 49개팀들이 서울운동장에서 입장식예행연습을했다.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1·2회전 일정표

	11 시	1시반	4 시
6일(목)	①(1회전)③ 마산고—광주상	심석종—청주고	대구상—보성고
7일(금)	10시반 덕수상—강릉고	1 시 경남상—목포상	3시반 전주고—휘문고
8일(토)	남대전—배문고	세광고—명지고	대전고—중앙고
9일(일)	부산고—경기고	재 일—영동상	광주일—동산고
10일(월)	포철공—동대문	경동고—대구고	경남고—선린상
11일(화)	성광고—서울고	충암고—인천체	마산고(2회전) 광주상—대광고
12일(수)	심석종 청주고—성남고	경남상 목포상—배명고	신일고—광주일 동산고
13일(목)	부산상—남대전 배문고	덕수상 강릉고—북일고	경동고 대구고—군산상
14일(금)	대구상 보성고—춘천고	마산상—세광고 명지고	성광고 서울고—공주고
15일(토)	인천고—포철공 동대문	경북고—대전고 중앙고	전주고 휘문고—충암고 인천체
16일(일)	부산고 경기고—장충고	진흥고—경남고 선린상	배재고—재일 영동상

<① 1루:후공、③ 3루:선공>

鳳凰大旗 고교野球

강호 馬山高·光州商 첫게임 激突

4強戰 20·21일 決勝은 23일

11~16일에는 2回戰 16게임

한국야구의 내일을거는 草綠의 대행진이 오늘6일부터 서울운동장 잔디그라운드에서 펼쳐진다. 고교야구의 王者를가리는 제11회 鳳凰大旗 전국고교야구대회는 상오10시의 화려한입장식퍼레이드에 이어 11시 馬山高-光州商高의 대전을 스타트로 18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49개팀이 벌이는 대회 총 게임수는 49게임. 첫대전인 馬山高-光州商高전을 비롯, 예측을 불허하는 강자들의 대결이 연일 팬들앞에 전개된다.

예선관문없이 모든 팀들에게 자유참가의 문을 활짝연 鳳凰大旗대회는 우승으로 향하는 길도 가장 험난해 적게는 5차례、많게는 6차례의 고비를 넘겨야만한다. 11일까지는 1회전 17게임이 벌어지며、11일 馬山高·光州商高승자-大光高전부터 16일까지 2회전 16게임이 계속된다.

8強을 가리는 3회전 8게임은 17일부터 19일까지、4強을 가리는 준준결승4게임은 20·21일 이틀동안 벌어진다.

대망의 결승진출을 가리는 준결승 2게임은 22일、草綠·朱紅·紫朱의 鳳凰大旗 주인을 가리는 결승전과 3·4위전은 23일 펼쳐진다.

1회전 出戰팀 戰力분석

馬山高 — 林曉澤중심의 打線 매서워

◇장순조 감독

청소년대표 林曉澤을 중심으로 하는 타선이 매섭다. 타격면에서는 어느팀에게도 자신만만. 왼손타자인 林曉澤의 배팅은 특히 날카롭고 파워가 대단하다.

대통령盃서는 지난해 鳳凰大旗우승팀 北一高와 공방전끝에 10-9의 대등한 안타를치고 7-6으로 석패. 처음 부딪치는 光州商高의 馬水龍이나 朴京柱투수정도는 충분히 공략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光州商高 — 張彩根·柳佑錫에 기대걸어

◇최주현 감독

지난해에 비해 다소 전력이 뒤진다고는 하나 팀의 전통이나 저력으로보아 馬山高보다는 한수위다. 승부의 관건은 馬水龍 朴京柱, 그리고 2년생 孫文坤의 마운드로 馬山高의 맹타력을 얼마나 잡아누르느냐에 있다. 빠르고 무거운 볼을 던지는 신병기 孫文坤과 장타력의 張彩根、단타와 빠른발의 柳佑錫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心石綜高 — 金正洙의 投球力에 승패가

◇이무일 감독

같은 京畿道의 기성 강호 仁川高、東山高를 공포에 몰아넣은 강타력을 가졌다.

金榮贊 李英濟 李浩元의 상위타선은 화약고. 타력좋다는 淸州高에 별로 뒤질게 없다.

아직 전국무대에 잘 알려지지않았으나 침착한 에이스 金正洙의피칭으로 淸州의 공격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을지가 승부의키.

淸州高 — 마운드 든든하고 打力좋아

◇전만기 감독

이제 막 더지기 시작한 관화산과 강 화랑대기 준결승서도 다.

朴勝俊 金鍾友 李바오로등이 버티고있는 善隣商高와 13개의 안타를 주고받으며 8-5로 분패했지만 善隣의 간담을 서늘케했다. 李寶和 李揆晃 李相明외 맹타력에 心石綜高의 2년생투수 金正洙가 과연 견뎌낼수 있을지.

金鎭圭 李揆晃의 마운드도 믿음직하다.

大邱商 — 李龍洙등打力좋아 樂勝예상

◇김종우 감독

鳳凰大旗서만은 언제나 힘이 솟구치는 팀이다. 3、4회대회의 覇者、5회대회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력이 급강하、전국대회에선한번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鳳凰大旗서만은 선전、3위를 마크했었다. 馬洙鎬、李拓基、金動基의 마운드가 비교적안정된 편이어서 普成高에는 낙승을 장담하고 있다.

金楨鎬、李龍洙、金動基의 타력은 수준급.

普成高 — 鄭燦久등 打擊으로 승부

◇김대권 감독

열심히 팀을갈고 닦아근래 전력이한결 향상됐다.

그러나 청룡기 대회서는 東山高에、대봉기대회서는 春川高에 뜻밖에 예선패、다소 외기소침해있다.

大邱商은 최근 전력이크게 떨어져 해볼만한 상대. 普成 역시 타력에 의존하는 팀으로 鄭燦久 趙光文 崔欽植의 타력으로 승부를 노리고 있다. 평균 4~5 득점은 낙관.

AGF會長 한국에 體育會長 초청

아시아경기연맹(AGF)의 라자·싱회장(印度)이 曺相鎬대한체육회장초청으로 6일낮12시20분 JAL편 訪韓한다.

우리나라의 86년 아시안게임유치신청과 관련, 내한하는 싱회장은 9일하오까지 서울에 머무르면서 蠶室대운동장, 泰陵사격장등 주요체육시설을 돌아보며 국무총리를비롯, 체육계 주요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싱회장은 또 7일하오 鄭周永서울올림픽준비위원장이 롯데호텔에서 마련하는 만찬회에 참석, 국내체육계인사들과 요담을 가지며 8일하오에는 워커힐호텔에서 曺相鎬대한올림픽위원장이 베푸는 만찬에 참석한다.

싱회장의 이번 방한은 韓國의 아시안게임유치를 앞두고 큰 도움이 될것으로 평가된다.

루마니아 蹴球선수 西獨으로 망명

【하노버4日UPI=聯】루마니아의 축구 국가대표선수 마르셀·라두카누(26)가 지난5월31일 西獨원정 경기도중 탈출, 西獨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西獨당국자들이 4일 밝혔다.

루마니아의 육군축구팀인 라두카누는 西獨에서 도르트문트팀과 원정 친선경기를 벌이던중 전반전과 후반전사이의 휴식시간을 이용、하노버로 빠져나왔으며 라두카누가 소속된 스토·부쿠레슈티팀은 라두카누가 끝내 결장한가운데 나머지 시합들을 끝내고 귀국했다.

한편 라두카누는 4일 하노버축구팀에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는 국제규칙에 따라 1년간은 西獨에서 선수로 뛸수가 없다.

라두카누는 올해 루마니아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됐은 물론 「올해의 최우수축구선수」로까지 뽑혔었다.

農協、檀大 꺾고 決勝에 진출

女일반 大부 全國여자테니스

제17회전국여자테니스대회 3일째경기가 5일 장충코트에서 열려 여대·일반부에서 지난해 우승팀 農協이 檀國大를 2-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제3일전적

▲여중부준준결승
중 앙 2-0 대명A
안암서A 2-0 평택B

▲여고부준준결승
경북A 2-0 중앙A
브니엘 2-1 주문진A
동래A 2-0 울 산

▲여대·일반부준결승
농 협 2-0 단국대

美매켄로 準決진출

佛카르다스 테니스

【랍다드쥐(프랑스)3日UPI=聯】금년도 윔블던 챔피언인 미국의 존·매켄로는 3일 니스에서 개막된 카르다스초청테니스대회에서 프랑스의 앙리·르콩트를 2대0(6-4、6-1)으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또한 南阿공화국의 요한·크리크도 프랑스의 야니크·노아를 2-1(7-6、2-6、6-3)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올랐다.

U大會대표단 解團

루마니아의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했던 韓國대표선수단의 해단식이 5일상오11시 체육회강당에서 베풀어졌다.

韓國은 이번대회서 레슬링에서 銀메달1、銅3개、테니스 혼합복식에서 銅메달을따내 종합20위를 차지했다.

印서 국제배드민턴 11월8일 9國초청

【뉴델리4日AP=聯】印度정부는 오는11월8일부터 14일까지 印度 서부 푸나市에서 국제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배드민턴협회(BAI)는 한국을 비롯、영국·중공·일본·덴마크·스웨덴·인도네시아·스위스 말레이지아등 9개국에 대해 대회참가초청장을보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1981년도 SUPER TEN 골프시합

장 소 : GLEN EAGLE GOLF CLUB BOLTON, ONTARIO,
시 일 : 1981년 9월6일、7일 양일간
TEE OFF : 12시 정오
참가자격 : OPEN 시합에 GROSS 10등까지를 자격자(하기명단 참조)
참 가 비 : $55.00
시 상 : ●GROSS 3등까지 ANNUAL CUP
●NET 3등까지(HAOICAP에 의한) ANNUAL CUP
●SUPER TEN 10명 시상
●LONGEST DRIVE CONTEST
●NEAREST HOLE,
●STRAIT BALL CONTEST.
접수방법 : 1981년 8월29일까지 하기준비위원에게 접수요망
준비위원 : 정 정 홍(678-2444)
원 장 호
김 만 구(486-0397)

1981년 8월 3일

1981년 TOP TEN명단

1. 이 기 훈	15. 김 진 기	30. 정 창 현	45. 강 태 영
2. 박 영 철	16. 김 용 기	31. 박 종 연	46. 이 석 범
3. 최 상 수	17. 윤 여 경	32. 차 자 윤	47. 김 태 수
4. 이 광 민	18. 조 성 호	33. 오 석 원	48. 신 동 삼
5. 함 태 호	19. 강 공 선	34. 정 길 수	49. 김 현 철
6. 이 창 희	20. 김 만 구	35. 홍 진 표	50. 이 호 영
7. 고 광 남	21. 심 재 환	36. 한 강 국	51. 박 상 선
8. 곽 창 수	22. 이 영 현	37. 김 홍 랑	52. 이 창 복
9. 박 노 욱	23. 차 인 규	38. 김 창 갑	53. 오 재 원
10. 배 용 문	24. 이 제 민	39. 김 영 옥	54. 김 경 철
11. 최 호 영	25. 원 장 호	40. 장 인 수	55. 김 경 철
12. 차 선 경	26. 홍 기 표	41. 강 태 룡	56. 유 기 훈
13. 정 용	27. 정 정 홍	42. 엄 주 익	57. 이 병 문
14. 백 운 산	28. 김 형 봉	43. 정 용 주	58. 백 광 수.
	29. 최 병 인	44. 하 청 남	59 유 영 갑

MOLSON'S Brewery (Ontario) Limited

주최 : 토론토한인골프협회
후원 : MOLSON

MOLSON'S Brewery (Ontario) Limited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北歐理事會」와 關係강화

南총리 巡訪계기 通商도 크게 늘어날듯

個別 政策協議會신설 推進
對北韓 평화提議 支持 확대
傘下 각료회의·外相회의등과도 協力

정부는 이달말 南惠祐국무총리의 北歐巡訪을 계기로 北유럽지역의 常設協議體인 北歐理事會(Nordic Council)와의 既存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通商增大는 물론 1·12및 6·5제의등 우리의 평화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北歐지역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질 방침이다.

南총리의 北歐巡訪은 지난 6월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巡訪에 이어 정부가 地域間常設協議體를 상대로 벌이는 두번째의 首腦級 外交布石이라는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이번 巡訪대상국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가입해있는 北歐理事會는 美蘇간의 武力대결, 특히 北大西洋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體制간의 군사적 對峙를 무마하는 均衡子 역할을 해온데다 巡訪國모두가 南北韓동시 修交國이라는 점에서 EC(歐共市)나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외교적비중과 관심이 높은 地域間協議體로 알려져있다.

정부와 한관계자는 南총리의 이번 巡訪을 지점으로 우리와 北歐3國과의 交易量은 현재의 4억7천만달러線(수출3억5천만, 수입1억2천만달러)을 훨씬 上廻하는수준으로 伸張될것으로 분석하고 특히 北歐理事會와 그산하기관인 北歐定期각료회의, 별도기관인 北歐정기外相會議를 채널로 정부의 對北歐 수출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또南총리의北歐순방을 계기로지금까지 美, 英國등 西歐의核心우방과年例的으로 개최해온政策協議會를확대운용, 이번巡訪대상국들과도 개별政策協議會를 신설, 개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관계자는『北歐理事會가 전통적으로 脫政治的 성향을보여왔다』고 전제,『만약 이번 巡訪을 계기로 우리와 政策協議會와 유사한 常設기구의 설립에 합의할 경우 北歐를겨냥한 우리의 경제외교는 새로운 차원을 맞게될것』이라고 이번巡訪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이들국가들이 中立내지 南北韓과 同時修交하고있는점을 應用, 지금까지 韓半島문제에관해 對韓비방과 僞裝평화공세를 벌여온 北韓에대해 이번기회에 全대통령의 1·12및 6·5對北제의를 비롯한 우리의 평화통일 방안의 合理性과 그들 선전의 虛構性을 이들 국가들에게 주지시킬 방침이다.

그런데 北歐理事會는 北歐지역의 對內外협력과 경제·안보의 결속을위해 2次大戰이후 신설됐으며 이번巡訪대상국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이외에 노르웨이, 아이슬랜드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다.

佛, 地下核實驗실시

【파리4日AP=聯】프랑스는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군도의 무루로아 환초핵실험장에서 지하핵실험을 실시했다고 프랑스 국방성이 4일 발표했다.

韓·日에 戰域核배치 검토

美국방성高位관리 再確認

【워싱턴3日聯=聯】미국방성은 일본을포함한 아시아지역에 戰域核軍(TNF)을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며 이계획에 대한 검토가완료되면 TNF의 동북아배치에관해 일본과 협의할 의향인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미국방성 동아·태평양담당국장 도널드·에스·존즈해군소장은 이날 방미중인 일본참의원의 하다·유다까(秦豊)의원(新政클럽)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사실을 밝혔다.

하다의원은 회견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존즈국장은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있다면서 미국은 극동에서 발발하는 긴급사태에 관해 오는9월 일본과 공동대처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할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다의원은 존즈국장이 이같은 긴급사태와 관련한 일본의 역할에 언급, ①일본의 對韓경제지원 ②駐韓미군에 대한 일본의 군사기지및 여타편의시설 제공등을 예로 들었다고 말하고 이와동시에 일본자위대의 방위분담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존즈국장은 또 극동지역에 대한 TNF배치는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 한국과 일본에 TNF를 배치할생각임을 시사했다.

社會漫評

『高位層 목소리』강습회…

地平線

오늘이 七月七夕, 내일은 立秋. 한낮엔 무더위가 아직 극성을 부리고있지만 立秋를 하루앞둔 탓인지 아침저녁으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분다. ▼七夕날은 曝書曬衣—축축하고 곰팡이가난 옷과책을 볕에 쬐는 날이고 저녁엔 牽牛와 織女가 한해에 단한번 만나는 悲戀의 날이기도 하다. 牽牛星과 織女星을 보면서 처녀들은 바느질이 늘기를 빌고, 총각들은 그별들을 제목으로 시를 짓기도했다. 까마귀와 까치가 하늘위 銀河水에 놓은 烏鵲橋에서 東쪽에 떨어져있던 牽牛와 西쪽의 織女가 만난다는 전설엔 異說도 많다. 中國의 七夕詩에선 織女가 牽牛를 만나러 가고, 일본에선 牽牛가 織女를 맞으러간다고 되어있다. ▼어떤 전설에선 牽牛가 織女를 얻었을때 天帝한테 2萬錢을 빌었는데 그돈을 갚지못해 처벌을 받고, 七夕날에만 銀河水를건너 織女를만날 수있게 됐다고한다. 또다른 전설에선 織女가 훌륭한것을 天帝가 불쌍히여겨 牽牛와 결혼시켰는데 織女가 베짜기를 게을리 하자 天帝가두 사람사이를 갈라놓고 한해에 한번만 만나게했다는 얘기가 있다. 唐의 玄宗과 楊貴妃가 사랑을 속삭인것도 七夕날이지만 두사람의 사랑도 역시 영원치는 못했다. 아름다운 七夕전설은 구슬픈가락인데 이날을계기로여름장마뒤의축축한기운을털며 가을바람을 맞게도된다. ▼立秋는 凉風이 불고 白露가내리며 쓰르라미가 우는날이다. 三伏을며칠앞둔 때이니 가을에 끼워기분으로나마 맞으라는뜻이 머문지 모르겠다. 그러나 밤엔 산들바람이 솔며시부는것을 면 가을이 소리없이 다가오고있는 것이다. 가을秋 愁와 음이나뜻이비슷하고 哀愁를담고있다. 흔히들봄은처녀들이 사랑에눈뜨는 철이고 가을은 대장부가 인생의허무함을느끼는 계절이라고 한다. 그래도 독촉짜는 불볕더위에 누구나 서늘한 가을바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할것이다. 秋風은 商風, 金風, 素風, 凄風, 高風, 激風, 悲風, 淸風으로도 표현된다. ▼불명어리같은여름도 이제 한고비를 넘기고 결실의가을, 산들바람이 부는가을이 한발짝 앞에 다가선 환절기어귀에 어느새 서게되었다.

大都市 능력없는사람 빼고 邑面 능력있으면 賦課案도

民正 敎育稅案 月末까지 補完

各黨의견등 多角조정키로

民正黨은 정부가 발표한 敎育稅신설에 대한 補完策을 늦어도 8월말까지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與野간에 爭點이 되지않도록 각정당과 事前협의·조정할방침이다.

民正黨은 黨內의 政策委와 정책연구소 국회財務委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세의 補完개선책을 多角度로 검토시키고있으며 대도시 출신의원을 비롯하여 전체의원들의의사를 종합적으로 듣기위해 來週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李鍾贊대표위원은 5일정부가 교육세의 신설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것같다』고 지적하고 敎育稅의 課稅대상, 지역, 稅率등에 관해 黨內外의 의견을 들어 조속히 補完策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李珍雨 정책위의장은『지역구활동을하고 돌아온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는데 同調하고 있다』고 전하면서『民正黨은 이러한 국민의의사를 조속히 반영하기위해 자계의견을들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黨의 기본방향을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課稅지역을 6대도시로 한정한 정부의계획도 일리가있으나 邑面단위라도 擔稅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과하고 대도시의 경우라도 擔稅능력이 없는 시민에게는 부과하지않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李鍾贊총무는『敎育稅신설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 8월중에 財務委등 관계常委를 소집, 공청회나 공개간담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종합하여 국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정기국회가 열리면 공청회등을 개최할 겨를이없기때문에 敎育稅에 관한 국회의 사전예비심사나 각정당간의 異見조정은9월정기국회이전에모두 끝낼방침』이라고덧붙였다.

3黨대표 오늘會合

後援會·敎育稅·常委소집등 논의

民正黨의 李鍾贊대표위원 民韓黨의 柳致松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등 3黨대표들은 6일 하오6시30분 플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현재 각정당간에 의견이 엇갈려 있는 후원회설립과 교육세 신설, 財務委등 국회常委소집등 각종 정치현안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중순 韓民黨총재의 中東巡訪에 앞서 열렸던 3黨대표회담이래 두달만에 열리는 이번회담은 오는8일 西獨등 유럽巡訪길에 오르는 金국민총재의 환송을 위해 李대표가 마련하는것으로 알려졌다.

政界의 한 소식통은 5일『3黨대표회담에서 후원회나 교육세 국회운영등 현안문제에 대해 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인트·빈센트國 케이토首相 來韓

中南美 카리브海上에 위치한 세인트·빈센트國의 로버트·밀튼·케이토首相내외가 南惠祐국무총리의 초청을받고 6일상오6시55분 KAL便으로 來韓한다.

케이토首相은 도착후 중앙청광장에서 베풀어지는 공식환영행사에 참석하며 하오4시15분 南총리를예방, 양국수상회담을갖고 두나라간의 공동관심사와 현안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韓日閣僚회의도 서울開催를 희망

한국政府, 日에타진

【東京5日=聯】한국정부는 오는 9월10·11일 양일로 예정돼있는 제11차 한일정기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싶다는뜻을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타진해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정부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서울과 도오꾜(東京)에서 교대로 열려온 각료회의는 마지막 10차회의가 78년9월 서울에서 개최됐기때문에 순번으로는 이번에 도오꾜에서 열릴 차례이다.

이 소식통은『아직 개최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외상회담에서 협의할 성질의 문제』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제11회 鳳凰大旗 高校야구 오늘開幕

서울運動場서 熱戰18日間
在日同胞팀참가·上午10時개막식

盛夏의 야구대제전 鳳凰大旗쟁탈 제11회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오늘상오11시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다. 在日同胞팀을 포함한 49개팀이 참가, 국내야구사상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이대회는 오는23일까지 18일동안 草綠의 그라운드를 수놓으며 영광의 11번째 草綠鳳凰大旗 수인공을 가리게된다.

49개팀 선수단이 젊음의퍼레이드를 펼치는 대회개막식은 상오10시에 시작된다.

참가 49개팀은 개막에 하루앞선 5일 하오2시 서울운동장에모여 입장식 리허설을 가졌다.

6일의 입장식에서는 경찰악대의 주악속에 대회기를 선두로 49개팀의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지난해우승팀 天安北一高의 주장 金相國의 선수대표선서에이어 서울특별시 朴英秀시장의시구로 플레이볼된다.

대한항공은 鳳凰大旗참가팀들을 위해 특별히 KAL기를 기증, 공수해온 하와이언·레이를 기증, 6명의 여승무원이 입장식에 참석한 각팀주장과 기수들에게 레이를걸어주게된다.

49個팀 總集合 올覇權은 어디로

◇高校야구 最大퍼레이드 창공을 가르는 白球의 쾌타음에 鳳凰大旗대회가 6일 개막, 열전 18일에 돌입한다. 11회를 맞는 鳳凰大旗 열전은 더위를 잊는다. 〈사진은 10회 鳳凰大旗대회 결승전 天安北一高-培材高대전광경〉

오늘의 對陣 (6日)
▲馬山高—光州商(11시)
▲心石綜—淸州高(1시반)
▲大邱商—普成高(4시)

내일의 對陣 (7日)
▲德壽商—江陵高(10시반)
▲慶南商—木浦商(1시)
▲全州高—徽文高(3시반)

〈입장권〉 ▲특석=2천5백원 ▲일반=1천원 ▲학생=5백원

한독양말 협찬

駐韓美軍用 F16機 8臺 21일韓國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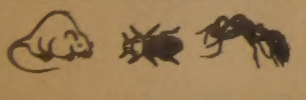
F4팬텀과 代替

【워싱턴4日=聯】미정부가 주한미공군력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노후한 F4팬텀기를 교체하기위해 한국에 배치하기로한 F16전투기중 1차분 8대가 오는21일 한국에 도착, 기념식을 갖게될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성소식통은 한국에 배치될 F16기는 교체되는 F4기와 같은 대수가 될것이라면서 나머지 F16기들은 오는83회계연도까지 모두 한국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에 처음 배치되는 F16기8대는 모기지인 미 유타주 힐공군기지의 제388전술비행단을 출발, 하와이와 괌도및 오끼나와를 경유하여 한국내 미군기지에 도착한다.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식은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도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배수
☎ 255-6849, 255-0713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399
은 : 온스당 US 8·5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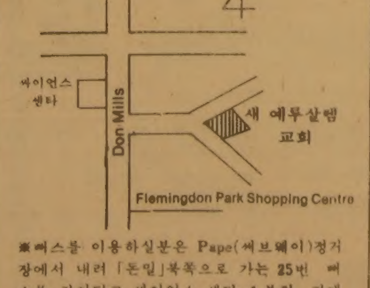
새예루살렘
신앙특별집회

강사 : 안이숙 선생
「죽으면 죽으리라」및「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시 : 9월 10일(목) 오후 7시30분
11일(금) 〃 〃
12일(토) 〃 〃
13일(일) 오후 2시

장소 : 새예루살렘교회
5 GREOBLE DR., DON MILLS
담임목회자 김승환

교회약도



※버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버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 있는 푸레밍돈·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Korean New Jerusalem Pentecostal Church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波「食糧데모」계속 擴大

軍民 위기對策班 구성

買占賣惜 團束委도설치

經濟전반·防衛부문관장

【바르샤바4日AP=聯】 폴란드 자유노조는 수도 바르샤바의 경찰당국이 식품기근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차량시위를 실력저지하고 있는데 반발하여 4일 『기동시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체스토호바, 라돔스코등 주요 공업도시에서 바르샤바 市內의 차량시위에 동조하는 경고파업을 단행, 정부에대한 육류배급확대 압력을 가중시켰다.

바르샤바의 일부 시민들은 3일밤부터 2백여대의 버스·트럭·전차등에 분승한채 식품기근사태에 항의하는 철야시위를 벌인데 이어 4일에도 제루졸림스키와 마르찰코브스키등 2개 간선도로의 교차로통행을 완전두절시키는 이나라사상 최대규모의 차량데모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함께 바르샤바 서남부 공업도시들인 체스토초바와 라돔스코에서는 도합 11만5천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상오11시부터 1시간동안 『식품기근사태와 사회개혁의 부진』에 항의하고 경고파업을 단행했다.

【바르샤바5日AFP=聯】 폴란드정부는 식량위기로인한 국내불안사태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부수상 야누츠·오브도브스키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민합동위기대책반을 긴급구성, 이나라 경제 방위관련문제들을 전담토록 한데이어 식량분배및 매점매석행위 단속만을 전담할 또다른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관영P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PAP통신은 軍民합동위기대책반은 이나라의 분배및 공급체제는 물론, 수출입 원자재 에너지등 전반적인 경제 방위관련부문을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야루젤스키수상은 위기대책반과 별도로 식량분배및 매점매석행위단속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고전했는데 폴란드전역에서는 현재 식량위기로 인한 식량약탈및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위한 軍·官·民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폴란드신문들이 보도한바 있다.

◇취소된外援…2천8백만弗 수표내보이는레이건 레이건 美 대통령(右)과 피터·맥퍼슨국제개발처(AID) 처장과 함께, 4일 2천8백만달러짜리 수표를 내보이고있다。外援이 취소돼 美납세자에게 반환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다 【워싱턴4日AP特約=聯】

勞組, 出動경찰에 과일제공

組織力과시 버스에 司令部

【바르샤바4日共同=聯】 경찰관들이 한사람씩 과일상자에 머리를숙여 사과를 꺼낼때마다 바르샤바군중들은 환성을 올렸다.

이 과일상자들은 자유노조 동조자들이 데모대들을 저지하기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공한 것이었다.

푸른색 제복을입은 경찰은 수십대의 버스·트럭·전차로 이어진 거대한 차량데모 행렬이 공산당본부 앞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기위해 그곳에 있는것이며 군중들은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속에 『놀라운 행진』을 지켜보려고 그곳에 나와있는 것이었다.

항상 번잡한 교통과 행인과 상인들의 소란스러움으로 분주한 바르샤바중심지가 갑자기 정지된 상태에 빠졌으며 언제 다시 모든것이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찰은 상부로부터 차량행렬이 제루졸림스키고차로를 지나 공산당본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지시를 받은 것이었다.

이 결과 공산당본부건물을 지나 1시간이면 끝났을 차량시위가 수일이 걸리는 경찰과데모대들간의 대규모가두대치상태로 발전되고 말았다.

경찰은 차량행렬이 黨본부건물을 지날수없다고 주장하고있는반면 데모대들은 당국이 이를 번복하지않는한 적어도 5일까지 현위치에서 꼼짝도 하지않을것이라고 맞서고있다.

이、팔難民村 포격재개

【베이루트5日AFP=聯】 이스라엘항공기들은 4일밤 미레바논 라스·알·아인지역 난방라시디에의 팔레스타인난민촌에 유포사격을 감행했다고 팔레스타인 소식통들이 5일 밝혔다.

팔레스타인소식통들은 이날밤의 팔레스타인난민촌 폭격은 10일동안 남부레바논에서 지속되어온 휴전을 이스라엘이 깨뜨린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소식통은 안포 공격후 30분이지난다음 이스라엘 헬리콥터들이 라시디에 지역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기독민병대의 요새인 바닷자윤과 할레아지디에 [illegible] 했었다고 주장했다.

캠프데이비드協定 反對

요르단, 사다트訪美때맞춰강조

【암만(요르단)4日共同=聯】 요르단정부는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美國방문과 때를같이하여 또다시 美·이스라엘·이집트3국의 캠프데이비드중동평화협정을 반대한다고 요르단정부의 한고위관리가 4일 밝혔다.

이관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요르단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이집트 양국정부의 중동평화계안이 中東전체 평화의 전제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메아리

管制士

미국의 여름은 잇단 파업열풍으로 한층 뜨겁게 달아 오르고있다. 미국인들의 생활에서 떼놓을수 없는 프로야구가 50일간이나 파업으로 유장 『살맛』을 벗어 뜨렸다. 야구경기가 없는 생활이 짜증나 부부싸움이 늘었다는 토픽기사를 읽으면서 그들 삶의 한 단면을 보는것 같아 절로 웃음이 나왔다. 프로야구 파업은 호지부지 끝났으나 2주전엔 50만명에 달하는 우편집배원들이 파업경고를 하여 또한번 신경을 곤두 세워야 했다.

이번엔 또 다른 파업이 바캉스철을 맞은 미국인들의 발을 묶어 짜증을 요구하면서 공항 관제사들이 일손을 놓은것이다.

광대한 미국전역엔 5백여개의 공항이있고 하루에 1만4천여편의 민간항공이 망망한 하늘을 거미줄처럼 수놓는다. 관제탑의 파업으로 이들의 절반가까이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하늘이 반신불수가 된 격이다.

비행기를 타면 가장 긴장감을 느낄때가 이착륙시다. 사고율도 이착륙때가 높다. 조종사와 관제탑의 교신은 [illegible] 규칙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illegible]. 관제사는 [illegible] 기상정보도 제공하는 일을 맡고있다. 특히 시계비행이 아니고 계기비행의 경우는 전적으로 관제사가조종사를 『조종』해야하는 만큼 한 임무를 맡는다. 조종사를 『비행기의 왕』 스튜어디스를 『하늘의 꽃』으로부른다면 관제사는 『하늘의교통순경』이다. 『클리어드 퍼 랜딩』의 명령없이는 비행기는 하늘을 [illegible] 수밖에 없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김포공항의 비행기착륙참사는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당시 사고원인이 여러갈래로 규명됐지만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한것도 빼놓을수없는 한가지였다.

하늘의 안전을 지켜주는 관제사의 공공적인 임무때문에 미국에선 관제사 파업을法으로 막고있다. 임금인상과 근무시간 조정을요구하는 위법적인파업이 어떤 정당성을갖겠는가…. 직업인의 권리주장과 자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조화될지 주목된다. 어떻든 세계의 하늘이 어지러워지는 불행은 없어야겠다.

美항공管制士 파업 이틀째

白堊館、6일零時 복귀명령

不應땐 解雇경고…全航空路 완전마비

【워싱턴4日AP=聯】 미전역의 항공로를 마비시키고있는 항공관제사의 총파업은 4일 정부와 파업노조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전역 5백개비행장에서 2일째에 돌입, 하루 1만4천편의 예정항공편중 6천편이 결항되고 연착소동이 계속되고있다.

데이비드·게르겐 백악관대변인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기관제사들의 불법파업에 강경입장을 고수하고있다고 밝히고 레이건 대통령이 정한 최후시한인 6일0시(韓國시간)까지 작업에 복귀하지 않는 파업관제사들은 해고당할것이라고 경고했다.

美法院 管制士파업에 쐐기

不法判決 PATCO에罰金

【뉴욕4日AP=聯】 로버스·플래트 미연방지법판사는 4일 임금인상과 근무시간단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있는 미직업항공관제사기구(PATCO)의 근무거부가 불법이라고 판시, PATCO에 파업1시간당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英鐵勞 전국적罷業

급료11%인상요구 20만참가

【런던4日UPI=聯】 영국의 2대철도노조는 4일 11%급료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55년이래 최초의 전국적인 철도파업을 요구했다.

전국철도종사원노조(NUR)와 기관사와 경비원, 화부원등의 노조인 기관사·화부조합은 오는31일 조합원20만명이 파업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할경우 영국의 모든 철도운행은 전지되며 올해 2억3천4백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국영철도회사의 적자폭은 더욱 증가하게된다.

韓日관계 새轉換期

解放36年에 다시본 오늘의 日本 <1>

◇船積 기다리는 日승용차 행렬 수출船積을 기다리는 일본승용차의 행렬。평화헌법을 앞세워 큰군비지출없이 무역전쟁에만 주력,일본의 국세는 전세계에 뻗쳐있다。

다시핀 벚꽃

敗戰 잿더미서 제2 經濟大國

國益·會社위해선 모두「사꾸라」

오일쇼크不拘 高度成長…각국서 日硏究붐

韓日관계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70년대초에 내내 파란이 쉬웠던 韓日관계는 활짝 개고 韓日外相회담(8월20일)→韓日閣僚회담(9월10일)→韓日頂上회담등을 거쳐 정상화를 서두르고있다. 나라를 되찾은 36년과 나라를 잃은 36년이 맞아 떨어지는 8·15다. 이의의깊은 光復의 날을 앞두고 일본의 현주소를 정확히파악, 韓日관계 定立의 이정표로 삼고자한다. 【編輯者註】

해방의 감격과더불어 시중에는 『소련놈 속지말고 미국놈 믿지말라, 일본놈 일어난다. 한국사람 조심하자』는 풍요가 퍼졌다.

이말처럼 일본은 敗戰의 잿더미에서 36년이 지난 오늘 자유세계 제2의 經濟大國이 됐다.

세계 시장 어느곳에 가도 일본상품이 없는곳이 없고, 세계 어느곳의 관광지에 가도 일본 여행객이 없는곳이 없다.

자동차의 연간 생산대수는 80년도 1천만대를 넘어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으며 시계도 연간 1억개를 돌파, 본고장 스위스를 압도하고있다. 스탠지스터라디오에서 시작한 일본의 전자산업은 TV·VTR 에어 IC(集積回路) LSI(超大集積回路)등 반도체 산업에까지 세계시장을 휩쓸고있다.

한반도의 1배반밖에 안되는 땅덩어리에서 1억1천6백만이 몰려사는 일본의 80년도 국민총생산(GNP)는 1조1천5백만달러. 세계GNP의 10%이며 미국의GNP의 절반에해당된다. 한국의 총GNP가 6백여달러이므로 약20배쯤 된다.

석유 석탄등 에너지의 85%를 해외에 의존하고있는 일본은 쌀은 남아돌지만 밀가루등 식량의 30%를 수입하고있다. 이런 어려운가운데 경제우등생이 됐다.

더우기 敗戰으로 일본은 潰滅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영토는 44%로 [illegible] 국내생산공장은 44%이상 공습으로 파괴 됐다. 6백만명에 이르는 원정병과 해외이주자가 몰려들어 극도의 식량난을 겪었다.

극심한식량을 얻기위해 몸을 파는 悲劇이 속출했다. 81년도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銀賞을 탄 『흙탕물의 江』(泥河)은 전후의 혼란기에, 강물에 배를 띄워 몸을 파는 어머니와 아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로서, 그당시의 일본의 사회상을 잘 나타내주고있다.

식량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구호미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총탄을 더보내라』고 다전할 정도였다.

일본은 50년 한국동란으로 연간 3억8천만달러의 軍需景氣에 힘입어 52년도에는 敗戰前의 상태에까지 회복했으며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오늘의 經濟大國으로 급성장했다.

일본이 자유세계 제2의經濟大國으로 성장함에따라, 일본에관한 연구서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가된 보겔교수의 『저패니즈·넘버원』과 라이샤워 前駐日美대사의 『더·저팬』은 1백만부를 넘어섰고 한달에 평균 10여종의 일본연구서가 출판되고있다.

이처럼 일본연구열이 높아지고있는 원인은 일본이 석유쇼크에도 불구하고 계속고도성장을 지속하고있는 비결을 찾아 내자는데있다.

이를 일본연구가들은 『주식회사 일본』의 우수성으로 종신고용제와 근면성과 무한한 연구심을 들고있다.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는 노사간의 협조를 낳게하며 생산성을올리고있다. 1967년을 1백으로할때 80년의 생산지수는 미국=1백29, 영국=1백39, 서독=1백84, 프랑스=1백90인데비해 일본은 2백31이었다.

일본을 부흥케한 또하나의 요인은 단결·협동심과 회사에대한 무한한충성심이다.

78년 3월 미국의 글라만 비행기회사가 일본의 닛쇼이와이(日商岩井)상사와 조기경보기 E C의 도입계약을 에워싸고 거액의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폭로됐다. 수사대상의 핵심인물인 담당상무 시마다(島田三敬)는 수사기관의 심문이 시작되자, 79년2월 회사빌딩에서 투신 자살했다. 『개인은 유한하되 회사는 무한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회사의 비밀을 지키기위해 자기목숨까지 끊는 현대적 『사무라이』는 수없이 많다.

그뿐 아니라 國益앞에 모두가 사꾸라가 되고있다. 주재상사원 모두가 정보원이 되어뛰고 있는것은 다아는 비밀이다. 지난4월 某의원이 韓日의원외교차 일본에 소리없이 들어왔다. 일본호텔에 묵은 某의원은 다음날 일본외무성관리로 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놀랐다. 쥐도 새도 모르게 東京에 들어왔는데 어떻게알고전화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재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와 나리따(成田)출입국관리소에서 VIP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자동통보하게 되어있기때문이다.

세계각국에 나가있는 종합상사의 주재원들도 그나라의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본사에 보고하고 이보고는 필요에따라 통산성과 외무성, 내각조사실에 보내져 종합분석, 국가에 유익한 정책자료로 삼는다.

이렇듯 일본의 부흥은 한사람의 힘이 아니다. 일본국민 모두가 땀흘려 노력한 결과인 것이다. 〈東京=宋孝彬 특파원〉

쿠데타軍에 굴복 볼리비아

메사 大統領사임

【라파스5日AP=聯】 루이스·메사 볼리비아 대통령은 4일 반군의 요구에 굴복,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정권을 군사혁명평의회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메사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가진한 성명을 발표, 『조국은 어떤 이유와 자존심이나 허영심보다 우선하는것이기때문에 정권을 군사혁명평의회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메사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더라도 자신이 착수한 국가재건계획의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사 대통령의 사임을 수락한 육·해·공군참모총장으로 구성된 3인군사혁명평의회는 東部의 산타 크루스에서 회담을 열고 반군지도자들과 이번 정치위기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다트 大統領 워싱턴에 도착

레이건과 頂上會談

【워싱턴4日AP=聯】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레이건 미대통령과 중동평화문제를 포함한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이틀간의 영국방문을 마치고 4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출고되는 最新型 美보잉767 美보잉社의 최신형 보잉767여객기가 4일 워싱턴州의 에버리트공장에서 출고되고있다. 【에버리트4日AP連=聯】

海外토픽

나의鬪爭 販禁해제

★출판해도 잘 안팔릴듯

유르겐·슈무드 서독사법상은 최근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투쟁』을 판금시키려던 당초 계획이 『참새를 해포로쏘는것과 같다』며 이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문교부의 회견에서 현재 고물시장에 나돌고있는 『나의투쟁』구판(舊版)이 그나마 몇권 팔리지 않고있어 만약 이책을 새로 찍어낸다 하더라도 출판사가 망할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책의 출판을 국이 규제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聯】

카스트로 미친짓

★熱帶病전파운운

진·커크패트릭 유엔주재 미대사는 3일 미국이 쿠바에서 생물전을 전개했는지도 모른다는 쿠바대통령 피델·카스트로의 언급에 언급, 『카스트로가 상당기간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것같다』고 야유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

할렐루야 찬양의 밤

주님을 찬양드리는 성가와 밴드, 무용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오셔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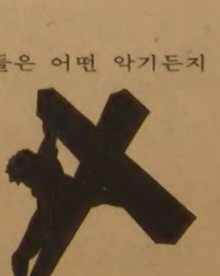
무 용: 할렐루야 무용단 10명
밴 드: 6인조 밴드(지휘: 옥 성 빈)
성 가: 본교회 찬양대
찬조출연 3명
특별출연: 조 광(한국무용가협회 이사)
구성, 안무: 옥 후 현

곳: 300 QUEENS, DR. TORONTO, ONT. M6L 1M5
때: 1981년8월23일(일) 오후4시
주 최: 연합한인펜티코스탈교회
교 역 자: 심 상 대

성가대지휘및 반주자 청빙:

믿음과 소명감을 갖고 봉사코자 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우는 잘해 드리겠읍니다.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사진 1매
기 간: 1981년8월31일까지
연 락 처: 300 QUEENS, DR. TOR. ONT.
전 화: 223-1914, 226-2583
교 역 자: 심 상 대
밴 드 부: 음률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악기든지 다 환영합니다.
밴드부담당: 옥 성 빈
전 화: 274-8439(R), 278-4867(B)



"하늘에선 주께 영광!"

나의 이력서

〈口述·尹 致 暎〉

윤치영 ⑬

첫아내와 死別

「中央」졸업후 두살年下의 규수와 結婚

21살때 함께 渡日 臥病석달만에 숨져

中央학교 재학중 나는 공부와 운동외에도 각종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상급학년때엔 「청년知識交換會」라는 모임을 주선해 安國洞집에서 학구적인 토론을 전개하기도 했고 議進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1주일에 2번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모임에서는 西歐의 사상과 철학, 민속문화, 세계관, 인생관등이 폭넓게 논의됐고 심각한 문제가 나올때는 연면 可否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校洞과 安國洞의 우리 집안엔 수많은 우국지사들과 신문화의 지도자들이 드나들었다. 내가 어릴적 보고 들은 開化의 선각자들도 있었고 그뒤에 출현한 新進인사들도 있었다. 月南 李商在선생을 비롯 俞吉濬·星濬형제, 金允植, 盧伯麟, 李甲, 金一善, 金嘉鎭, 李昇薰, 李東輝, 李鍾浩등등.

이들 인사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분은 그뒤 露領에서 수많은 교포들을 규합해 독립운동을 벌였고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추대됐던 李東輝선생이다. 가이제르수염에다 온 집안을 쩡쩡 울려대던 그의 음성은 지금도 귀전에 생생한듯하다.

1916년, 中央학교를 졸업했다. 이 한해는 나에겐 「終身」의한 해였다. 졸업후 유학을 가려했으나 집안에선 장가도 들고 좀더 수련을 한 다음에 유학갈것을 권했다. 中央학교3년을 졸업하던해 나는 장가를 들었다.

마침 장가들 때가 선친의 회갑이었고 조카 海葦도 그때 장가를 들어 집안에선 큰 경사가 났다고 했다.

당시 결혼은 철저히 보수적인 舊習에의해 이뤄졌다. 집안 어른들간의 약속이나 또는 중매에의해 짝이 지어졌다. 결혼전에 일생을 같이할 사람인데도 신랑신부의 相面은어림도없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말도안되는 얘기라고 펄쩍뛰겠지만 뿌리있는집안간의 약속인데다가 媒婆도 허술하게할수없는 처지여서 거의가 天生緣分으로 매듭된것이다. 훗날 1920년대 東京유학생을 중심으로 早婚에 반발, 糟糠之妻를 하루아침에 버리는 離婚사태를 빚은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었다.

난생 처음본 신부의 이름은 李丙暎, 나보다 두살아래인 수줍은 열일곱살규수였다. 紗帽冠帶하고 四人轎를 탄 舊式결혼이었다.

선친은 교분이 두터웠던신부의아버지와 나의 혼인을약속했다고한다. 장인어른인 李鳳九水使宅과 우리집과의婚事를 사람들은 武家집안끼리의 결합이라고했다. 韓末에 水使를지낸 장인을 당시에도 모두들 李水使라고 불렀다.

早稻田대학선배인 외숙 李丙藤박사(學術院長)가 李水사의 아들이니 나의매부가 되었다.

앞서 나의 둘째 누님(尹貞淑)은 李丙藤박사의 6촌형님(李丙琳)에게 시집을갔다.

李부인의 친정댁은 지금의 서린호텔뒤편, 체신부옆에 있었다. 얼마전까지도 당시의 대문이 그대로 있었다. 뒤늦게 사진하나 찍어둘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첫아내(뒤에 死別하고 재혼을했기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은 조용한 신부였다.

품성이 착하면서도 야무진 편이었다. 그뒤 내가 일본에 유학간 사이 아내는 梨花學堂에 나가 新學問을 열심히 배웠다. 남편따라 新式공부하느라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

첫아내와의 사이엔 아들을 하나 두었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4살때 병으로 숨졌다. 東京에서 여름방학때 집에 왔다간 사이 그비보를 듣고 난 하숙방에서 울음을삼켰다. 어린시절이지만 慘憾을 당하고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결혼후 부모님과 형님들이 계신 安國洞에서 나와 서울종로구 桂洞 184번지 (현 중앙중학교옆)에 分家했다. 내가 東京유학중 어머님께서 오셔서 며느리를 돌보셨고 지방에 있던 둘째형님(致晟)이 上京할때마다 우리집에 묵었다.

언젠가 여름방학에오니 致晟형님이 30대의 丈夫를 소개하며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靑山里전투를 지휘했고 故金斗漢君의 부친인 金佐鎭장군이셨다. 金장군은 당시 고향(洪城)에서 일경에 쫓기고 있던때였다. 金장군은 盧伯麟·李甲등과 함께 致晟형님과 절친한 친구였다. 이런 인연으로 훗날 해방후 나는 그의아들 金斗漢君의 도움을받으며 공산주의자들과 行動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21살 되던해인가 아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아내는 음악원에다녔다.

이 무슨 변고인가. 일본간지 6, 7개월뒤 아내는 병석에 눕더니 3개월만에 끝내 병원에서 숨졌다. 아내는 東京하숙방에서 소꿉장난같은 신혼생활중 음악학원에 다녔는데 결국 腎臟炎으로 숨을 거둔것이다. 아내의 유해는 牙山 先塋에 안장했다가 나중 廣州에 移葬했다. 짧은 新婚생활이었지만 두고두고 가슴이 아팠다.

◇고 침=나의 이력서중 7월25일자 ⑨회에서 필자의 외숙 韓鎭錫은 韓鎭昌으로, 7월26일자 ⑩회 12代祖 梧陰 尹斗壽公은 9代祖로, 19代祖인 祖父는 始祖로부터 19世孫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舊習에따라 18살때 집안어른들이 정해주신대로 舊式결혼을 했다。(사진은 당시 결혼식모습)

생맥주집마다 「發癌안주」

세業者 구속

비닐包裝서 대장균 검출

서울시경은 5일 불량생맥주안주를 만들어 팔아온 光明市 맛나니식품 대표 成逸兆씨(35·서울鐘路區 …洞380의156) 대원식품 대표 李龍秀씨(40·서울鐘路區新門路2街1의234) 신한상사 대표 尹德洙씨(40)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 特別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한상사 직원 許南順씨(23)를 수배했다.

안주를 생맥주체인점에 공급하면서 규격외의 비위생적인 포장지를 사용, 成씨는 지난 77년7월부터 지금까지 4백50여만봉지 1천8백여만원어치, 李씨와 尹씨는 지난3월부터 지금까지 각각 74만여봉지 2천9백80여만원어치와 1백60여만봉지 6천8백여만원어치를 팔아왔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한밤이나 헛간에서 만들도록 한 혐의도받고있다.

梨大生 2명 징역8월宣告

示威주동혐의

서울형사지법 李裕桂판사는 4일 梨花여대 학생시위와 관련, 구속기소된 趙起淑(21·정외과4년)金廷信(21·무용과4년)등 2명의 피고인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8월을 선고했다. 趙피고인등은 지난6월4일 梨花여대 캠퍼스에서 시위를주동, 백여명의 학생들을 부리면서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같은달11일 구속돼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學生體罰 말도록

文敎部 과잉으로 副作用 없게

문교부는 최근 초·중·고교에서 자기지형태의 학생체벌사례가 물의를 빚고있다고 지적, 각시·도교위는 이러한 지도를 철저히 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없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문교부는 5일 각시·도교위에 보낸 「학생체벌에 관한 검토및 대책」에서 …

문교부는 이점을자료에서 학생지도는 인격및 개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전제, 체벌은 결과적으로 신체에대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뿐더러 심리적인 위축, 수치, 왜곡등으로인한 정서적 불안감과 교사에대한 반감을 자극하기 쉽다고 밝혔다.

문교부가 학생체벌에 관한 대책을위해 조사한 체벌의동기, 방법및 문제되는 사례는다음과같다.

◇체벌동기=숙제안해옴, 학습태도불량, 도벽등 생활습관불량, 규율위반, 음주, 흡연, 불량서클가입, 이성교제등 교사지시불응및 반항.

◇체벌방법=세워놓기, 꿇어앉히기, 청소하기, 운동장돌기, 토끼뜀, 엎드려뻗치기, 뺨치기, 매나 출석부로 때리기

◇문제된체벌사례

天主敎 수난사를 映畵化

「초대받은사람들」 내일 切頭山서 크랭크인

映畵界 화제

朝鮮敎區설정 150주년紀念 外國人신부도 出演

史實·실존인물 바탕 본격 순교영화

敎友의 사랑·갈등삽입 딱딱함 벗어

◇崔夏園감독

張吉山

黃晳暎 作 崔石然 畵 (1644)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84)

블론디

딘·영 作

"여보, 당신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예금을 하고 있어" "당신은 뭘하고 있지?" "돈을 찾으려는 참예요" "마치 외로운 두척의 배가 밤바다에서 스쳐가는것 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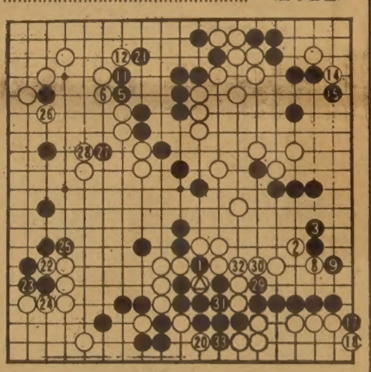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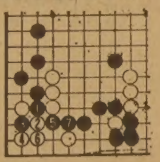
第4局 第8譜 101～133 (각5시간)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패싸움 과정의 妙手





그림자 놀이 ⑦6

趙善作 作 禹慶熙 畵 <167>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블로아 & 베다스트 하드웨어
•가정용, 살림도구(부엌)
•각종 전기제품 수리및 판매
•유리 (가구, 상점용)
•각종 철물및 PAINT
•PLUMBING 제품
•기 타
변 외 섭
☎ 531－6183 606 Bloor St.W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PM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피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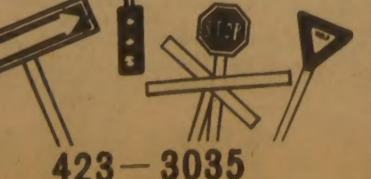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536-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athurst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헐, 김 선 남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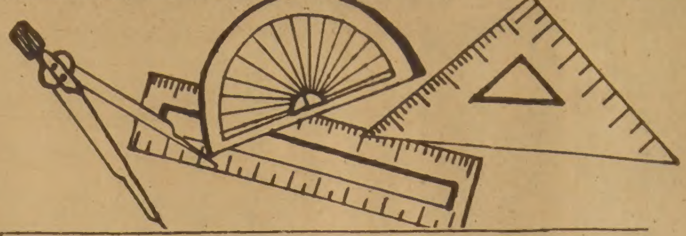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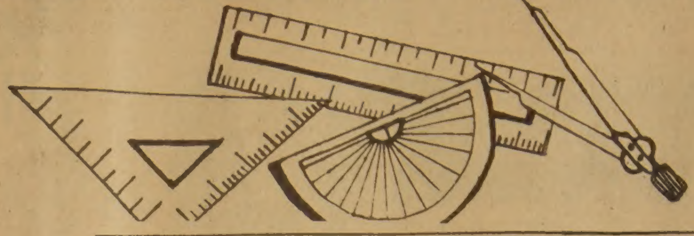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PHONE 789-7214

COMPANY LIMITED

BACK TO SCHOOL SPECIALS 1981





#	MIN QTY.	품목	정가	스페샬
		REFILLS		
05-229	(48)	50 Sheet Refill Ruled	1.05	.47
05-226	(48)	50 Sheet Refill Plain	1.05	.47
05-235	(24)	100 Sheet Refill Ruled	1.49	.68
05-224	(24)	100 Sheet Refill Plain	1.49	.68
05-233	(24)	200 Sheet Refill Ruled	2.75	1.20
05-225	(24)	200 Sheet Refill Plain	2.75	1.20
05-230	(12)	300 Sheet Refill Ruled	3.99	1.71
		BINDERS		
CP-456	(25)	1" Vinyl Double Trigger	3.00	1.20
CP-466	(15)	1½"Vinyl Double Trigger	4.25	1.55
CP-476	(10)	2" Vinyl Double Trigger	5.25	2.05
CP-6C	(25)	Fold Over Vinyl Clipboard	2.00	.95
CP1305S	(50)	Superpress Binder	1.09	.55
CP1356	(25)	5/8" Pressboard Binder	2.15	1.00
CP1356	(15)	1" Pressboard Binder	2.25	1.00
CP1156½	(25)	5/8" Poly Press Binder	2.49	1.20
CP1156	(15)	1" Poly Press Binder	2.49	1.20
		COLOURED PENCILS		
800P	(12)	Laurentian Pencils 8's	2.79	1.25
1200P	(12)	Laurentian Pencils 12's	3.95	1.85
2400P	(6)	Laurentian Pencils 24's	7.59	3.40
		DUO-TANG.		
06-241	(48)	Duo-Tang Cover 5 Pack	2.19	1.00
		NOTE BOOKS		
13-135	(16)	Coil Note Book 3Pack (80 Page)	3.99	1.85
13-224	(6)	Coil Note Book 200 Page	2.25	1.10
		LIQUID PAPER		
35647	(100)	Liquid Paper 2 Pack Reg. ret. value 3.18 spec.	1.99	1.15
		TAPE		
1011	(48)	Scotch Tape ½"x1010	1.00	.43
106	(48)	Magic Tape ½"x600	1.20	.53
		NOTEBOOKS		
13-020	(12)	Wild & Wonderful Coil	1.85	.83
13-111	(12)	3 Subject Coil	1.69	.77
13-220	(12)	Math & Science Coil	1.45	.70
13-210	(12)	Science Coil	1.95	.925
13-190	(12)	Autograph Coil	1.49	.75
12-102	(40)	Excercise Book 4 pack	2.25	1.00
		INDEX DIVIDERS		
07-261	(24)	8½'x11 5 asst. colours	.65	.30
07-232	(12)	8½'x11 5 w/cello tabs	.89	.42
		STENO PAD		
53-020	(72)	Wild & Wonderful 128 pg.	1.30	.63
53-122	(60)	Steno Pad 80 pg.	.85	.42
		TYPE PAPER		
21-120	(10)	Type Tablet 8½x11 36 pg.	.85	.40
21-121	(10)	Type Tablet 8½x11 60 pg.	1.35	.63
21-220	(30)	Type Paper 8½x11 144 pg.	2.20	1.05
		DUO-TANG		
06-248	(100)	Duo-Tang regular	.40	19.00
				.19
06-448	(80)	Duo-Tang 3 hole	.45	17.50
				.22
06-449	(50)	Duo-Tang 3 hole 4 pack	1.99	47.50
				.95
		FABER CASTELL		
10-108x	(24)	10 pack retractable pen	2.29	1.15
800LM	(24)	Laurentian Markers 8's	1.59	.80
1200LM	(24)	Laurentian Markers 12's	2.35	1.20
9740X	(12)	.05mm Pencil w/lead	3.29	1.65
VP10	(24)	HB Pencils 10/poly bag	2.09	1.10
		PAPERMATE		
9140P	(1)	Erasermate Pen & Refill 48 pens & 12 refills/Disp.	137.40	67.50
9135P	(1)	Standard Pen 48/Disp.	1.50	.75
9136P	(1)	Malibu Pen 48/Disp.	2.00	1.00
9137P	(1)	Villager Pen 36/Disp.	2.70	1.35
9138P	(1)	Profile Pen 36/Disp.	4.00	2.00
	(12)	Flair Blue/Blk/Red	.90	.45
	(12)	Flair Ultra Fine	1.00	.50

#	MIN QTY.	품목	정가	스페샬
		SCRIPTO		
T-519	(12)	Eraseable Pen Blk/Blue Red	1.29	.65
B-789	(12)	Mechanical Pencil Spec. ret.	.99	.50
		SHEAFFER		
720-C	(12)	No Nonsense Cartridge Pen	3.00	1.50
700C	(12)	No Nonsense Ballpoint Pen	2.00	1.00
24SCS	(12)	Cartridge Pen	2.50	1.25
WR199	(1)	Wire Rack Display	240.18	110.00
		BIC		
S225	(1)	5 Pack 3xM29+2xAF69	2.25	
		72/Disp.	162.00	74.50
M87B	(1)	3 Pack 3xM29 24/Disp.	.87	.39
S237	(1)	3 Pack Bic Clic24/Disp.	2.37	1.00
1C-149	(1)	Bic Crayon Markers 7 Pack 24/Disp.	1.49	.75
		GLUE		
531	(20)	Lepages Childern's Glue	.75	.38
901	(12)	Lepages Mucilage	.65	.33
231-3	(20)	Lepages Bondfast carded	.85	.43
60647	(1)	Bordens Prepack	36.84	17.99
	50 ml	12 Glue/12 School Glue .79		
	100 ml	6 Glue All/6 School Glue 1.49		
		CRAYOLA		
8	(12)	Crayons 8's	.65	.33
16	(12)	Crayons 16's	1.10	.55
312	(12)	Swan Chalk 12 Stick white	.70	.35
812	(12)	Colourex Chalk 12 Stick Coloured	.80	.40
		WHITMAN		
4129	(12)	Crayons 16's plastic box	1.20	.60
		HI LITER		
B774	(12)	Carter's Hi Liter	.99	.50
FB-774	(12)	Carter's Fluorescent	1.29	.65
		ALCO		
264	(12)	Staples	.60	.27
267	(12)	Rubber Bands	.60	.27
268	(12)	Push Pins	.59	.27
272	(12)	5 Pce. Eraser Set	.70	.33
274	(12)	6 Pce. Paint Brush Set	.70	.33
275	(12)	Paper Fasteners	.80	.38
294	(12)	Reinforcements 300's	.80	.38
281	(12)	Thumb Tacks 100's	.79	.38
355	(12)	Ball Bearing Compass	.79	.38
360	(12)	Pencil Sharpener	.60	.28
426	(12)	#10 Stapler & 500 Staples	1.49	.70
225	(12)	One Hole Paper Punch	1.50	.70
		PENCIL CASES		
121	(24)	Disney Pencil Case	1.00	.45
164	(24)	Map of Canada	1.00	.45
	(24)	3 Hole Pencil Case	1.00	.45
145	(24)	Disney Lunch Money	1.10	.50
80	(24)	Bugs Bunny Lunch Money	1.10	.50
107	(24)	Disney See Thru	1.10	.50
65	(36)	Tom & Jerry Giant Shape	2.30	1.10
147	(36)	Disney Giant Shape	2.30	1.10
110	(12)	Disney School Kit	2.79	1.35
MP5078	(12)	School Kit Muppet	2.79	1.35
		CLIP BOARD		
05-612	(12)	Masonite 8½x11	2.40	1.20
		THERMOS		
7624		Lunch Kits	9.59	5.20
		DICTIONARY		
		Webster School Dictionary	1.95	.90
1254		Denim Tote Bag	1.79	.65
1875		Dymo Labeller w/tape Retail Value 5.50 spec.ret.	3.99	2.00
58300	(12)	Sheet Protectors 12's	2.10	1.05
		MATH SETS		
52-518	(12)	Selectum 7 pc. set	1.50	.70
6	(12)	Buffalo 8 pc. set	3.19	1.60
301	(12)	Alco 9 pc. set	2.29	1.00
777	(12)	Buffalo 9 pc. set	4.50	2.25

PHONE: 789-7214

※ 이상의 가격은 NET PRICES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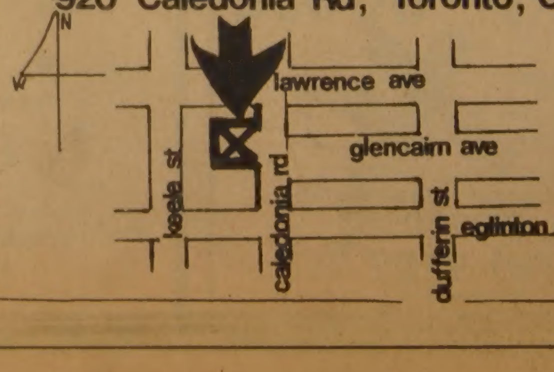
SALE은 CASE 혹은

PACK LOTS 만으로 판매함.

SPECIAL 기간 9 월11일까지

Dominion Smallwares Co, Ltd.

920 Caledonia Rd, Toronto, Ont.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쇠고기값 自律化

市場기능맡겨 適正價 유도
需給上 부족물량은 輸入충당

정부는 5일부터 한우육과 수입쇠고기가격에 대한 행정규제를 모두 철폐, 쇠고기정책사상처음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을 자율결정토록하는 한편 정육점에 대해서는 자율로 결정한 가격을 게시해서 판매토록하는 표시가격제를 실시키로 했다。高建농수산부장관은 수입쇠고기가격의 2元化에서 오는 정육점의 폭리등 쇠고기유통상의 부조리를 없애고 소의增殖기반을 다져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겼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쇠고기가격에 대한 기본시책으로 ▲국내韓牛의 생산자가격을 보장, 한우의 增殖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쇠고기 수급상 절대부족량을 수입으로 충당하되 다만 수입쇠고기의 판매이익금을 전액 축산기반조성자금으로 완전투자하겠다고 말했다。

韓牛肉·輸入肉 전문판매로 精肉店구분
돼지고기값은 連動制를 현행대로 實施

또▲쇠고기유통과정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쇠고기 가격에대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적정가격형성을 유도한다는 전제로 소매방법도 自律化, 정육점의 선택에따라 한우육·수입육, 또는 한우·수입육동시판매등으로 專門化,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구입할수있도록했다。농수산부는 쇠고기가격에 대한 행정규제를 푸는대신 수급 상태가 좋은 돼지고기가격은 현행대로 連動價格制를 그대로 실시해 각 시·도지사가 枝肉경락가격의 변동에따라 연동가격을 고시하도록했다。농수산부는 쇠고기가격에 대한 행정규제를 푸는경우 한우육과 수입육의 일시적인가격등귀를 예상하고있으나 가격결정자율화에 따른 정육점의 폭리를 자율규제하기위해 서울 시내의경우 4~5개소의 축협축산물직영판매소를 설치, 경락가격에 합리적인 이윤을붙인 적정가격으로 시범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정소매가격을 알려주고 일반정육점 축협직매장에 대해서는 적정가격판매를 유도키로했다。또 각정육점마다 쇠고기가격을 진열장에 게시한뒤 그가격대로 판매토록하는 價格表示制를 채택하는 한편 표시가격위반업소는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벌금5백만원이하)으로, 수입쇠고기의 한우육으로의 둔갑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으로 단속키로했다。

해설
需要量공급이 急先務
가격安定행정규제론 限界
精肉店따라 값이달라진다

서민층의 쇠고기嗜好시대가 끝났다。정부가 5일부터 쇠고기가격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 가격결정을 市場機能에 맡김으로써 한우육과 수입육의 가격현실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肉質이 어떠니해도 2천8백원에 수입쇠고기 한근을 사들고 돌아갈수있는 시절은 이제 옛이야기가 된것이다。

쇠고기가격에 대한 행정규제철폐는 피할수없는 경제추세의 반영이다。경제규모의 확대와 한우육의 절대공급량부족으로 정부가 그동안 傳家의 寶刀처럼 휘 式化했을뿐이었다。

소득향상에 따른 식생활수준의 개선으로 쇠고기수요가 크게 늘었고 특유의 국민적인 한우육편중경향으로 한우頭數는 지난74년의 1백77만8천마리를 최고로 매년 감소, 80년말에는 1백38만마리로 격감했고 관계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대로는 86년까지 거의 제로두수를 점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축산당국은 물가당국의 주장에 이끌려 한우增殖을 위한 착실한 長期계획에 매달리기보다 값싼 수입육을 들여와「국민모두에게 값싼 쇠고기를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국민의 偏食취향을 부채질했다。수입쇠고기때문에 자급자족할수있는 돼지고기·닭고기 소비가 늘지않고, 가격도 보합상태를 유지, 생산자를 울리는 결과를 낳은것도 그때문이다。정부는 지금 한우增殖기반조성자금마련을 위해 당분간 일정량의 쇠고기를 계속수입해야한다는 정책적인 모순을 범하면서까지 長期計劃수립에 몰두, 晩覺이나마 제대로 방향설정을 한것같다。이제 오늘부터 정육점의 자유경쟁시대가 시작된다。

적정이윤의 폭에따라 정육점마다 표시가격이 다를수 있기때문이다。농수산부당국은 축협직매점도 일반정육점과 같이 경매에 참가할수있게 문호를 개방했지만 당분간 수입쇠고기에대한 경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고 당장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으나「경락예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키로 결정하고 일시적인 한우가격상승에 대비, 수입육방출두수를 현재의 5백두에서 7백두로 늘려 신축성있게 수급에 대처키로했다。그러나 정부가 오늘부터는 3등품수입고기대신서울시내 일류호텔이 사용하는 2등품수입고기보다 값비싼 1등품을 공급함으로써 입맛을 고급화시키고 귀중한 외화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낳게될것같다。【金基奭기자】

拉北2백44일 태창號 돌아왔다
어제下午 仁川入港
船員17명 가족과 감격의再會

"蘇선 빨리보내는데 同族끼리 8개월이나" 가족들 분개

◇244일만에 自由 북괴억류생활 2백44일만에 돌아오는 제2 해창호와 선원들。인천항에 마중나온 가족과 감격의포옹을하고있다。

【仁川=林承茂·李基聲기자】 지난해12월2일 서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 북괴에 납치됐던 제2해창호(31톤·선장 尹福述·57)와 선원 17명이 강제억류 2백44일만인 4일하오5시 仁川항에도착, 귀환했다。

제2해창호는 3일 하오7시 북괴의 억류에서 풀려나 海州항을 출발, 4일상오8시 남방한계선에서 대기중이던 해군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仁川항에 무사히 도착,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귀환 어부들은 이날 하오3시30분 八尾島 묘박소에서 약1시간가량 검역절차를 마친뒤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날 하오5시 仁川항 해경전용부두에 상륙, 그리던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부두에는 지난29일 濟州에서 올라와 3일동안 기다리고있던 선원가족 19명등 2백여명이 나와 제2해창호가 도착하자 울음을 터뜨리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선장 尹씨의 부인 朴炯順씨(56·濟州市健入洞965)는『8개월동안 남편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다가 지난29일 방송을듣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기쁨을 감추지못했다。朴씨는『남편이 납치된 사이 차녀 善子양이 결혼했다는 소식부터 남편에게 전해야겠다』고 머트리기도。

사무장 許成國씨(33·濟州市健入洞133)의 부인 宋貞淑씨(29)는『죽은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돌아온것이 꿈만같다』며『이젠 외아들(18개월)의 이름도 아빠가 지을수 있게됐다』고 말했다。선원 李빈玄씨(34)의 부인 朴永林씨(30)는『7개월된 딸의 돌잔치를 위해 돈벌러 나갔던 남편이 이제사 돌아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선원 姜時俊씨(48)의 부인 高應淑씨(47·濟州市二徒2洞1115의6)는『그동안 남편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느라 위장병까지 생겼다。다시는 배를 타지않도록 말리겠다』며 북괴의 만행에 몸서리를 쳤다。

이날 선원가족들은 모두『소련에 억류당한 배는 11일만에 돌아오는데 북괴가 태창호를 8개월이나 억류한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분개했다。제2해창호선원들은 부두에 도착하자『대한민국만세』를 소리쳐 외쳤으며 가족들과 얼싸안고 재회의 감격을 나누느라 부두는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선원 1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선장 尹福述(55·濟州市健入洞965)▲기관장 鄭[illegible](45·北濟州郡翰林面下貴里2821)▲사무장 許成國(33·濟州市健入洞1357)▲선원 李益来(47·〃49)▲金珍洙(40·南濟州郡城山面新川里43)▲[illegible](23·濟州市一徒1洞181)▲어부 李琅鎬(34·〃一徒2洞1182)▲梁[illegible](58·〃健入洞1197)▲蔡英鎭(51·一徒2洞1214)▲姜時俊(48·二徒2洞1115의6)▲金泰俊(53·〃991의18)▲金石峰(48·北濟州郡舊左面中欺里1222)▲姜[illegible](〃991의8)▲吳규환(46·濟州市健入洞1075의2)▲金三柱(41·〃三徒1洞1452)▲金文澤(51·〃三徒洞1483)▲高[illegible](…2의19)

"국회財務委·文公委 連席회의 소집 고려"
李民正총무、敎育稅문제 다뤄

李鍾贊民正黨총무는 4일『敎育稅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財務委와 文公委의 연석회의소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총무는『금주중 총무회담을 열어 재무위소집에 관한 각당의 의견조정작업을벌일 생각이었으나 民韓黨측에서 불응하여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財務委의 해외시찰단도 귀국한만큼 재무위소집을 적극추진하고 관련 문공위와 연석회의를 열기위한 접촉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民韓黨이 재무위소집에 반대하고 있는데대해『교육세신설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만큼 계속반대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對亞 레이건·독트린推進
美誌보도 友邦과 협력…反蘇聯合강화

【워싱턴 3日=東洋】미국은 베트남전쟁후 아시아서 동요하고 후퇴해온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소련의 아시아 팽창정책에 공세를 취하는 이른바「레이건독트린」을 형성해가고 있다고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가 8월10일자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아시아에 대한「레이건독트린」은 ①反蘇연합강화 ②미국의 새介入 ③美군사력의 강화의 3요소로 구성되며 주로 일본, 중공, 아세안 5개국및 한국과 유대증진,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 시사주간지는 보도했다。

이같은 對아시아「레이건독트린」은 위의 아시아국가들이 나토처럼 국제기구를형성하지는 않고 상호협력강화에 목표를 두고있다고 同誌는 보도했다。

社告
본보 무료배부
우편파업 기간중
한국일보社

文敎部 局長급이상 大幅人事 19명

문교부는 4일 金在奎보통교육국장, 崔烈坤 사회국제교육국장을 관리관으로 승진시키는등 이사관급이상 19명에 대한 대폭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문교관리의자질향상을 기한다는 취지아래 본부국장급 12개직위중 9명을 교체했는데 교수등 외부로부터 박사학위소지자 4명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문교부의 국장평균연령은 51세에서 46세로 낮아졌다。

이날 단행된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교육연수원장 金在奎(보통교육국장)▲서울시교위 부교육감 崔烈坤(사회국제교육국장)▲국립중앙도서관장 盧啓鉉(동일원연구소교수·신규)이상관리관승진, ▲보통교육국장 金洛憲(경기도교위부교육감)▲교직국장 愼民範(嶺南大교수·겸임)▲사회국제교육국장 李桂熙(서울市教委관리국장)▲체육국장 吳德烈(교육정책실제2조정관)▲교육정책실제1조정관 崔鍾根(교육정책실교육연구관)▲편수국장 鄭聖範(교육정책실제1조정관)▲교육정책실 제2조정관 張炳圭(서울大 시설관리국장)▲교육시설국 외자사업관 李建名(강원教委 부교육감)▲"전설관 孔榮睦(全南大사무국장)▲서울大시설관리국장 魚彰秀(교육시설국건설관)▲국사편찬위 사무국장 李在善(교직 국장)▲예술원사무국장 朴性圭(체육국장)▲강원도교위 부교육감 朴大鉉(慶尙大사무국장)▲서울시교위 관리국장 李洪燮(교육시설국외자사업관)▲경기도교위부교육감 孫聖植(예술원사무국장)▲대학교육국장 金薰幸(부이사관서이사관승진)

"고위층詐稱 횡령사건 교훈삼아
公職者 기강확립을"
南總理、지점장 立件지시

南惠祐국무총리는 4일 高位人士를 詐稱하고 巨額을 횡령하려던 한국은행 釜山지점 사건과 관련、『모든 공직자들은 이번사건을거울삼아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범위내에서 최선의 의무를 다하고 결코 헛점을 드러내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南총리는 이날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지시하고『이번사건은 고위층 지시를 따를수밖에 없다고보는데 문제점이있다』고지적、『전화한통으로 소관절차를 밟지않고 이번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더이상 있을수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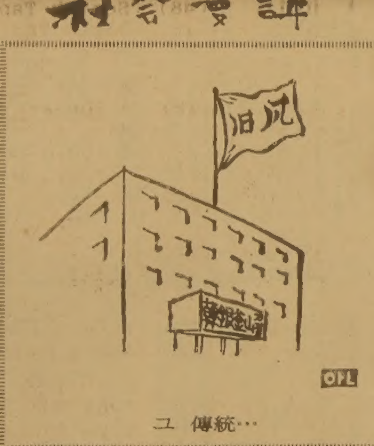
南총리는이어『권력기관이 전화한통으로 은행의대출을 지시하는일은 지금까지 없었으며 그러한 권력기관이 존재하지도않는다』고말하고『이번사건을 교훈삼아 모든공직자들은 근무자세의쇄신과 기강확립을위해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南총리는 또 이번사건의범인을잡는데 수훈을세운 韓銀釜山지점장 운전기사 張秀雄씨(41)를 표창할것과 지점장 朴元雨씨는 파면과함께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형사입건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弗貨 최고時勢 金값은 내리막

【워싱턴3日AP=聯合】美國의 달러貨는▲美國의 高金利정책▲폴란드사태의 악화▲레이건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증가등에 힘입어 3일 세계의 모든 주요통화에대해 일제히 폭등、약10년만에 최고시세를 기록했으며 한편金값은 온스當 4백달러이하로 하락함으로써 79년11월이후 최하시세를 보였다。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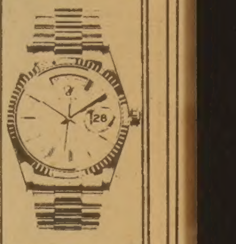
그 傳統…

地平線

옛말에 頭寒足熱이라야 건강하다고한다。머리는 차게하고 발은 따뜻하게해야 몸에좋다는얘기인데 요즘 사무실은 足寒이 되기쉬운 冷房때문에 전에없던 병이 많이생기고 있다。찬공기 일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冷房이 잘되어있는 방이면 마루위 10cm높이에서 찬공기의 흐름이 더욱 빠르다고한다。하반신이 차면 여성들에겐 생리지장을 가져오기쉬운데 냉방병환자가 냉방에서 근무하는 사무원 전체의 44%나된다는 조사보고까지있다。▼팔자좋은 얘기같지만冷房病이 부쩍늘고있는것이다。그래서 30도이상의 무더운 眞夏日이 40일이나계속되자두통·감기·요통환자가 많아졌다한다。아침부터 저녁까지 냉방시설이완비된 실내에서 찬바람을받다가 열기를내뿜는 거리에나서게되면 누구나 어지럽고 골치아프며 밥맛이 떨어지는 것을 흔히겪게된다。피부가거칠거칠해지고 화장이 잘받지않는다고 말하는 여자사무원들이 있는가하면 코와 목구멍이 칼칼해진다는 사람들도 있다。▼환기가 잘되지않는 냉방안에 오래있을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급격한온도차때문에 피부의 순응이 덜되는데서 냉방병은 더해진다。냉방병에 걸린 환자의 30%가 감기증상을 보이고、25%가량이 하반신에 냉감증세를 나타내며、22%는 코나 목구멍이 불편해진다。그밖에 요통 8%、신경통 7%、소화불량등이 8%라고 전문의들은 말하고있다。▼고도성장의물결을타고 냉방장치가 사무실은물론 일부부유층가정에까지 보급된것이 요즘 세상이다。냉방병대책이라도 따로 마련해야될판인데 그병에는 약보다도 옷을 두텁게입는것이 제일좋다고 한다。전기를 이용한 냉방은 아니지만 唐나라때는 氷山避暑라는것이 있었다。방안에 큰氷柱를 그릇에 담아놓으면 三伏때라도 짐승을 본뜬 氷山때문에 寒氣가 일어 솜옷을 입어야 방안에 앉아 있을수 있었다는 것이다。부러운 얘기같으나 楊貴妃의 一家인 楊國忠이 권세를 휘두를무렵의 일이지 서민들하고는 먼 얘기다。▼냉방은 전기값이 비싸게 들더라도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 필수품으로 돼버렸다。다만 덮어놓고 찬공기만 좋아할것이 아니라 냉방의 득실을 가려 살아나가는 지혜가 아쉬울뿐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394
은 : 온스당
US 8.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S미용실

●정확한 헤어·컽·
●우아한 퍼머먼트
●감각적인 컽팅

8월15일부터 1주일간은 내부를 수리합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중 손님들에게 보다나은
써비스를 위해, 미국 헐리우드에서
열리는 퍼머먼트및 헤어·컽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오니 앞으로 더욱 저희
미용실을 애용해 주십시요.

☎ 532-7094

영업사간 : 오전9시~오후8시
(화, 일요일은 문 닫음)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창헌

美航空관제사 總罷業

賃金인상·勤務시간 축소요구

國內線운항 마비상태

레이건 "철회않으면 解雇·형사처벌"

【워싱턴3日AP聯合】회원 1만5천의 미직업항공관제사기구(PATCO)는 회원들의 봉급인상및 근무시간축소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불만을 품고 3일하오8시(이하 한국시간)를 기해 미사상 최초의 항공관제사총파업에 돌입, 미국내선민간항공운항을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이에대해 로널드·레이건 대통령은 관제사들의 파업이 불법행위라고 지적, 이들이 48시간내에 업무를 재개하지 않을경우 해고될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파업참가관제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방안도 강구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폴리 PATCO회장은 이날 워싱턴地法이 PATCO의 파업을 위법으로 판시하기 20분전 성명을 발표 PATCO가 하오8시를 기해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는데 PATCO는 1만5천회원의 85~90%가 이번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美민간항공관제사들의 총파업돌입으로 3일 빈이룩인 뉴욕市 라가디아공항에서 승객들의 진이밀리고있는 모습이다. 파업을 알리는 피키트를복에건 두사람의 모습이보인다. 【뉴욕3日UPI聯合=聯合】

파업主導 22명 法院고소

【워싱턴4日UPI=聯合】美직업항공관제사협회(PATCO)산하 1만5천 관제사들의 파업으로 미국내 민간항공운항이 3일하오(한국시간)부터 전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미정부는 4일 당국의 파업중지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파업을 주도한 폴리회장등 PATCO간부22명을 불법파업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마트·브릴법무성대변인은 국내 11개도시의 검사들이 이날 22명의 PATCO간부들을 지난55년 제정된 정부고용원파업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연방고용원의 파업을 금지한 이법에의해 형사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브릴대변인은 아직 이들간부들에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24시간내 법정에 출두하지않을경우 법무성이 체포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軍관제사 急派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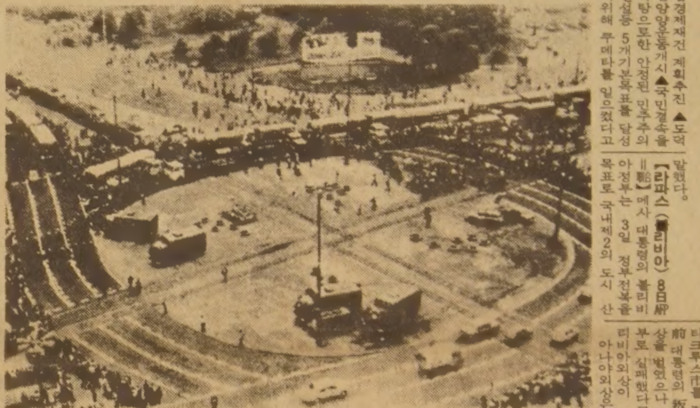
【워싱턴3日AP=聯合】미국은 민간항공관제사들의 파업기간중 이들을대신해 비상업무를 수행할수있는 7백~8백50명의 숙련군항공관제사들을 보유하고있다고 드루·루이스운수장관이 3일 말했다.

루이스장관은 이들 군관제사중 육·공군항공관제요원 1백50여명이 출동대기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성관리들은 비상대기군사관제요원들이 유사시 아틀란타 시카고및 뉴욕등지로 급파될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군항공관제사들은 미연방항공국(FAA)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덧붙였다.

波 식량데모 擴散일로

政府·勞組 협상결렬속 車輛시위



◇波운전사들의 車輛시위 폴란드 버스운전사들이 3일 바르샤바市 중심가의 로터리를 버스로 봉쇄하는 방법으로 이나라 식량부족사태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르샤바3日AP聯合=聯合】

高金利·불안한 國際情勢영향

—사상최고 달러貨 强勢가 뜻하는것

◇오일쇼크의 위세에 세계통화의 체모를 잃고 몸부림을 거듭하던 달러가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으로 다시 권위를 되 찾아가고 있다.

國際焦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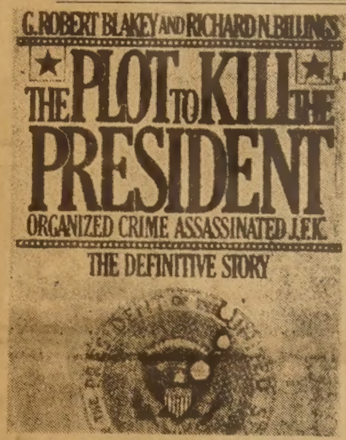
레이건 信賴도 한몫

1~2년 계속될듯… 西歐선 불만高潮

"케네디暗殺 마피아소행"

NYT社의 新刊「대통령살해陰謀」서 주장

쿠바大統領 카스트로 사주받아 正體폭로 우려해 오스왈드 죽여



◇마피아團이 케네디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新刊「대통령살해음모」.

【로스앤젤레스支社】

볼리비아에 쿠데타

前大統領주도 百94번째 협상결렬

퍼싱Ⅱ등 西歐배치 蘇의보류提議일축

【브뤼셀3日AP=聯合】미국은 퍼싱Ⅱ및 크루즈미사일의 서유럽배치계획을 보류해달라는 소련의제의를 8일다시 일축했다.

減稅案 승인

美上院 사상최대규모

海外토픽

다이어먼드의 寶庫

★天王·海王星에 새로운주장

「아바」2년내 解體 ★두夫婦구성…모두離婚

메아리

화채의 別味

世界의 社說

달러强勢 세계경제 타격

●아사히신문(日·1日字)

美國益만 내세우는 海洋法

●아사히신문(日·2日字)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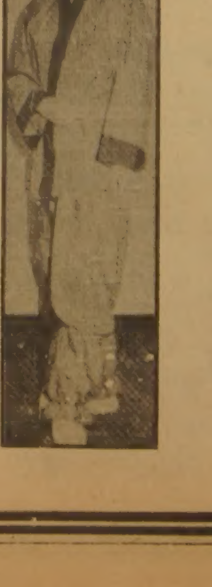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경력 :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 제4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SALESMAN REQUI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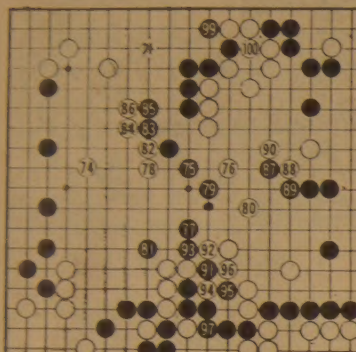
TOP SALARY
ALL BENEFIT

DOMINION CITRUS & DRUGS
THE ONTARIO FOOD TERMINAL

CONTACT MR. JAY ZELIKOVITZ
TEL : 259—5481 ext. 17

第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7譜 74~100 (각5시간 덤5집반)



白(名 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이날점심식사는 百濟格이라는 浦鐵 奉군—。常駐 일본인기술자가 특별히, 두대국자와 해설자 趙南哲8단 그리고 「감초」격인 나도 아울러 자택에 초대를 해주었다네。순일본식에다 약간의한국식을 곁들인 별미랄까, 양도푸짐 맞아서 포식을피하는 대국자에게는 한말로 안성마춤。名人과도전자는 적당한요기로 스태미너가 倍加한모양인지 오후부터 갑자기 열전을 벌이기시작하더군。

奉군。名人이 고심끝에 白74는、약간불리한 현상황에서는 다목적奇手라는국후평일세。자재도 당장은 나처럼 어리둥절할테지만 그러나 뒷날 이점이 공수양면에 멋진구실을 하게 된다네。

그건 차차 알아보기로하고、黑75에서 발단한 중앙의 일대공방전은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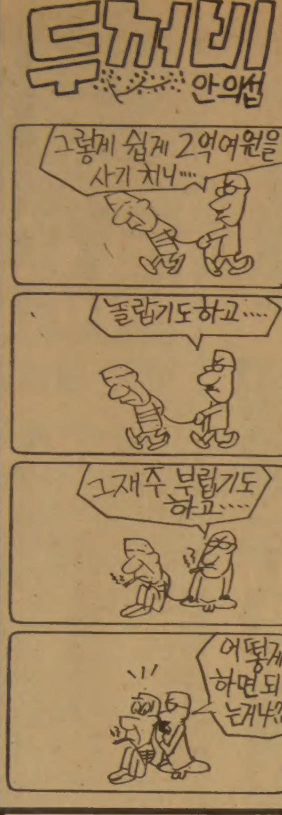
白74、多目的 奇手

그대로 치열무쌍。점마다 진박감을더해가는 바람에 차분히 설명할 틈도없을 정도일세。따라서 국후검토때의 의견들만 적어두니 혼자서 연구해보게。

우선 黑77은 요소이며 다음에 91、93으로 끊는수를 노린것。그러나 『어펀지 허약하고 실제로도 애써나와 끊은보람이 신통치않다。77은 「간」자리를 지켜서 상변黑을 안정시키고 싶다』는 趙8단。

白78은 74때보아둔 맥점。白80때黑81도 역시 서둘러 黑「간」로 보강해야 편했을거라는 중론일세。한편 白은 82이하 86으로 되고보니 白74가 빛을낸셈。

黑은 마침내 91、93으로 애초 계획을 단행했으나 여기까지 77、81두수를 소비하고 黑97의 惡形으로 겨우패를 만들었으니 수지가 도통 맞지않는장사。이런것을 勞而無功이라 할지드모르지。98 : 94 【一凡】



佛國寺 月精寺 당국서 紛爭調整나서

兩側주장 첨예화 "法的해결보다 和解설득"

대한불교조계종이 임명한 慶州 佛國寺와 강원 月精寺등 2대사찰의 신임주지부임을 둘러싸고 승려들이 찬·반으로 갈려 집단패싸움끝에법정투쟁까지 벌이는등 분쟁이 걷잡을수없이 번져가자 관계당국이 조정에 나섰다。

4일 정부의 한고위당국자는 『종교적분쟁에 국가공권력이 개입하는것은 자칫 어느 한쪽을 편드는 인상을 줄수도있어 어려운 문제지만 두사찰의 분쟁이 사회적으로 큰물의를 빚고있는데다 법과 질서는 어느경우든 지켜져야 당연한 일인만큼 가까운시일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어 『현재 두 사찰의분쟁이 폭력충돌양상보다는 법정투쟁 단계로가있어 법외해결을 기대할수도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화돼있고 감정적으로 대립돼있어 법의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쉽사리 승복하지않고 다시폭력소동으로 치닫을소지도있다고 지적、『진상조사나 수사권발동등에의한 법적해결보다는 화해종용에 우선을 두고 양측을설득해 나가겠다』고말했다。

현재 佛國寺의경우 지난달 24일 신구주지 양측의 충돌에이어 29일 진주지 崔月山스님측이 大邱지법 慶州지원에 번 신임 金月棠스님에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신임주지측은 즉시 종전의 佛國寺직인을 무효공고하고 경북도에 새주지직인등록을 마치는등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慶州지원에 명도소송을 내고있는데 법의판결이 나더라도 현재 사찰을 점거하고있는 전주지측이 쉽사리 물러서지않을것같은 전망이다。

月精寺의 경우도 역시 신주지측이 사찰에서 완강히버티고있는 가운데 양측이 모두 관할 平昌경찰서에 배임횡령등 협의로 맞고소를 제기해놓고 있는상태。지금까지 관할경찰은 양측의 폭력충돌만을 막기위해 경찰병력을 투입했을 뿐이고 검찰역시 조사에는 나서지않고 있었다。

偽造공문 "對共作戰用" 기재

"交通罰金내려 犯行"

韓銀釜山지점事件

【釜山=聯】=정부고위층을 사칭、韓銀釜山지점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의 현금을 사취했던 범인 邊一亨(48)은 『국가안보회의를거친 긴급명령이니 대공작전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화 1억7천만원、미화 7만5천달러、일화 1천2백만엔을 지급하라』고 기재한위조공문서를 朴元雨 지점장(51)에게 제시한 것으로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邊은사건당일인 지난달 31일 상오6시30분께 지점장 朴씨에게 『나는한국은행총재인데정부고위인사의 공문을 가지고가는사람이 있을터이니 그공문의지시대로 하라』고 말한다음상오9시30분께지점장실에 나타나 타자로된 이위조공문서를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속아넘어간 지점장朴씨는 위조공문내용대로 한·미·일화 2억5천8백50만원을 포장해 邊에게인계하고、자기승용차로 보내면서 운전사 張秀雄씨(41)와 청원경찰 金東傑씨(41)에게 동승 邊의 행방을 확인보고 지시했다。

지점장승용차를 탄 범인은 위대공작전업무수행중임을 거장하려고 경남도경에 잠시들르는체하다가 金海공항으로가『작전상 일반택시에 실고 군부대로 간다』면서 돈을 택시로 옮겨싣자 운전사 張씨가 수상히 여겨 범인을 추적、범인이 공항부근 공군부대앞에서 하차하자 이부대에 신고、검거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경찰에 이첩

했다。

한편 범인邊은 이날 경찰에서 『교통사고 벌금 40만원을 내지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다。『배우지못한 제가 사회에 큰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특히 釜山지점장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범행동기는。

▲지난 7월초 교통사고를 내 면허정지 58일에 벌금40만원을 통보받았으나 벌금을 내지못해 운전을 못했다。벌금도내고 가족의생계도 돕기위해이같은범행을저질렀다。

—왜 그같이 많은돈을 요구했는가。

▲많이 요구해야 의심을 사지 않을것같아 더 요구하려다 그정도로 했다。

—범행계획은。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범행했다。

—할말이 있는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잘못을 뉘우치고 있다。특히 지점장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범인주변 고향이 서울 城東區 玉水洞이며 지난71년 8월 경남金海로 이사와 78년1월부터 현재주거지인 金海市東上洞797에 보증금10만원에 월세 1만8천원짜리 3평단칸방에서 부인 李錫蓮씨(41)를 비롯、2남2녀의 자녀와함께 살고있다。

지점장 파면 운전사 포상

韓銀人事委 결정

한국은행은 4일 인사위원회를열고 우리나라 금융사상 유례가 없는 釜山지점의 거액사기인출사건은 일부 공직자들이 책임과 권한을 충실이행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경각심을 주기위해 朴元雨부산지점장(51)을 파면키로 결정하고 수훈을 세운 운전기사 張秀雄씨에게는 재무장관 표창을 상신했다고 발표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⑫

佐翁 尹致昊

月南 李商在선생과함께 佐翁 尹致昊는 초기 韓末과 韓日合邦의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울분을 대변하고 선두에 서서 民知개화와 救國교육에 앞장선 2 大巨人이었다。

나보다 33세나 年上인 佐翁은 武風의 우리집안의 우뚝한 開化派요 근대적 지식인이자 선각자였기때문에 집안에서도 정신적 求心點이었다。집안에서 佐翁의 한마디는 그대로 「방향」이었다。

당시 나라안팎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佐翁에게서 나는 어렸을때부터 여러가지 가르침을받았다。내가 훗날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고 또 李承晩박사를 도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것도 모두가 佐翁의 가르침때문이었다。佐翁은 어린동생과 조카들에게 늘『우리가 무식하고 몽매했기때문에 나라를 잃었다。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위해서는 실력、즉 교육을 통해 힘을 기르는것밖에없다』고 역설했다。

佐翁은 高宗2년인 1865년忠南牙山郡屯浦面에서 군부대신을지낸伯父 尹雄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어렸을때부터 천재로 소문났던 佐翁은 줄곧 서당에서 한문공부만하다가 17세때 朴定陽을 수반으로하는 紳士遊覽團에참가 첫해외여행을했다。이미 西歐의 문물을받아들였던 일본의 모습은 佐翁에게있어 놀라움과 신기함뿐이었다。佐翁은 뜻한바있어 일본에남아 洋學者로 유명한 나까무라(中村正直)의 同人社에 들어가공부、日語에 출중한 실력을보였고 이어 金玉均의 권고로 駐日和蘭領事館서기관에게서 영어를 배웠다。

民族의 울분대변 救國敎育등 앞장

獨立精神등 일깨워 活動기틀 이룩

◇韓末開化의 先覺者인 佐翁은 나에게 從兄이자 스승이었다。

18세때 그는 韓美통상조약으로초대駐韓공사인 푸트 (Lucius H. Foote) 장군의 통역으로 발탁되어 귀국했다。

佐翁은 미국공사관의 통역으로있으면서 한국의 국제관계를위해 힘쓴것이 高宗에게 인정받아 한국정부의 主事도 겸했다。高宗이 佐翁을 아끼고 좋아했던일은 여러가지 逸話를통해 널리알려지고있다。

하루는 一人二役으로피곤한 佐翁이 궁중에서 벽에기대 졸고있는것을 高宗이보고 御前으로데리고가 봉을들어 「今日 總理通商事務衙門 主事 尹致昊를 眠笑衙門總理大臣에 임명한다」는 勅書를 내리셨다。이후 佐翁은 금반지에다 「眠笑…」8字를 새겨서 평생을끼고다녔다。

佐翁은 머리를자르고 양복을입고 上海中西學院에 입학、4년간 새학문을배워 훗날 南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를만들었다。中西學院의 알렌교장은 졸업후 미국유학을주선、밴더빌트대학과 에모리대학에서 5년간 神學과 영문학을 배우게했다。語學의 천재인 그는 재학중 학교와 사회단체에 초청받아 한국실상을 알리는 웅변으로 이름을날리었다。

1894년 10년만에 귀국、學部協辦中樞院議官을 지냈다。佐翁은 「救國은 민중啓蒙가 지름길」이라고 판단、미국서 돌아온 徐載弼과 독립신문을 일으키고 月南등과 獨立協會、萬民共同會를 통해 自主民權과 自强운동을 역설하며 정부의 秕政을 공격했다。

독립협회가 해산된뒤 부친의 주선으로 德源(元山)과 三和(鎭南浦)監理를 맡아 貪官汚吏가 들끓는 韓末에 유일한 賢吏로 주민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았다。특히 그때 광산과 목재채벌을 위해 날뛰던 외국인들의 횡포를 유창한 英·獨·日語로 굴복시킨것은 유명한 얘기로 전해오고있다。

1904년 外部協辦(외무차관)이된 佐翁은 기우는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으나 力不足이었다。

1904년 영국군함한척이 아시아순방중 仁川에入港했다。해군군악대는 한국을방문한 예의로 한국 國歌를 연주하겠다고제의해와 조정은 크게당황했다。이에 高宗은 佐翁에게 國歌제정을 下命했다。佐翁은밤새워 작사하고 급한대로 이를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民謠 올드랭사인 (Auld Lang Syne)에 맞춰 연주하게했다。이것이 오늘날의 애국가가된것이나。훗날 애국가作詞를 두고 논란이많았는데 隆熙2년6월25일 弘學書舖 발행책자 에도 수록돼있고 또 많은사람들이 佐翁 작사를 증명하고있다。

1905 乙巳보호조약으로 官職을 떠난 그는 開城에 韓英書院을설립、초대회장에 취임했다。그러나 日帝의 가시로 여겨졌던 佐翁은 1911년 데라우찌(寺內) 총독을 암살하려했다고 조작한 105人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獄苦를치렀다。그뒤 佐翁은 YMCA 3代 총무에 취임、종교와 교육에 전념했다。그러나 日帝는 그의활동을 감시해오다가 興業俱樂部사건으로 구속했고 전쟁말기에는 創氏改名을 강요하기도했다。佐翁은 8·15해방을 開城에서 맞았다。開城松嶽山아래 廣文岩자택에 고요히 隱居하던 佐翁은 해방된지 3개월반만인 1945년12월9일 80세를一期로눈을 감았다。그분의 一生에대해서는 日帝末과 관련시켜 일부 논란이 있는 모양이나 愛國愛族과 민족 開化의 一念으로 걸어온 그의足跡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알림=2일자 일부지방 ⑩회는 ⑪회로 바로잡습니다。

流星의 賦 <14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㉟

박순이 영의정이고 이이는 이조판서이고 성혼이 이조참판이고 정철이 예조판서에 있었으니 일단 강한팀을형성했다고할수있었으나 여전히 정국은 불안했다。동인들이 호시탐탐 그들의 허(虛)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끼리의 의논이 또한 맞지 않았다。우선 전、정희적、홍여순、김천응을 단죄하려 하였는데 신응시、이해수、홍성민등이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삼정승이 절대권을 잡고 대간이나 시종은 삼정승의 결재를 받은 연후에야 정무를 시행할 수있도록 하자는 이이의 진의는 무슨 까닭인지 임금의 윤허를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철과 박순은 이순인(李純仁)을 파직시키려 하는데 이이와 성혼이 이를 반대했고、이이와 성혼은 이발(李潑)의 형제를 등용하려 하는데 정철이 이를 반대했고、박순과 정철은 서익(徐益)을 등용하려 했는데 이이와 성혼이 이를 반대했다。

중이 법당에서 소를 잡아 먹어도 의논만 맞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허심(許心)하는 사이에 의논이 맞지 않으니 일이 순조로울 까닭도 없고 따라서 마음이 맞을 까닭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는 이조판서가된 이래 심복 백유함(白惟咸)을 이조 낭관으로 삼고 서인(西人)들을 계속 발탁하면서도 죄를 받아 귀양살이를 하고있는 허봉、송응개、박근원등을 풀어줄 의향을 비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협량(狹量)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이는 이해의 이월 시무육조(時務六條)를 올리고 정사에 일대 변혁을 감행할 양으로 임금의 권고를받고 조정에 다시 들어온것이 었는데 사사건건 뜻대로 되지 않자 사표를내고 석담(石潭)으로 돌아가버렸다。

그러나 임금은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서울로 올라와 다시 사퇴를 청했다。이때 이이는 이미 지병(痼病)으로 인해 몸이 편하지 않았다。그래도 임금은 그의 사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바뀌니 갑신년(甲申年)、서기 1584년、선조17년 정월 16일。이이는 한성 대사동(大寺洞)에서 영면하고 말았다。향년 49세였다。

…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이이의 부보(訃報)를 듣자 크게 애통했다。그 곡성(哭聲)은 바깥까지 들릴 정도였다。궁녀한 마음의 백성들도 머리를 조아리며 곡하고 호통(號慟)하며 아쉬워했다。태학생(太學生)、금군(禁軍)、일반시민、하속관리(下屬官吏)、각관아(各官衙)의 아전(衙前)들도 모여들어호곡(號哭)하며 제전을드렸다。

발인하는 날、횃불을 들고 장송하는데 사람들의 무리가 수 십리에 뻗었다。그리고 그 슬피 우는 소리는 들판을 진동케 했다。(…)』 한편 성균관에선 이이의 부고가 전해진 날 대부분이 소식(素食)을 했는데 그 가운데 고기를 먹는 자도 있었다。

이이의 반대당인 송혼의 조카인 홍유경(洪有慶)은 승부와의 관련엔 아랑곳없이 통문(通文)을하여 앞을 모아선 제전을 준비했는데 동인의 자제들은 이에찬여하지 않았다고 되어있다。

한데 그때 이이의 집엔 양식이 없었다。황차 염습(殮襲)할것이 없어 남의옷을 빌어썼다고 한다。

張吉山 (1644)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84)

『결맹서(結盟書)』를 쓰겠소』

풍열이 붓을 들어 적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정묘(丁卯) 사월 초닷새 구월산 오진암에서 함께회합한 사람들은、뜻을 같이하여 썩은 나라를 뒤엎고 백성들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맹세하며、성사되기까지 서로의 나누어 맡은 일을 힘써 행하고 도우며 한시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미륵의 도솔타천을 실현할 것을 결코 잊지 않으리니 천지신명은 이를 굽어 살피사 도와 주시며 동 틀리는 자 천벌을 내리시라』

적는대로 읽고나서 풍열이 그 옆의 흰 여백 가운데에다 크게 누를 황(黃)자를 휘갈겨썼다。

『황은 대지요、역사의 시원이며、천하의 근본이고、백성들이니라』

그리고는 그 아래로 풍열이라 조그맣게 적어 넣고는 붓을 길으로 돌렸다。

『사발 모양 동글게 적어나가게』

옥여가 적어 원편으로 돌려 나갔다。그들은 못쓰는이가 강선흥 우대용 오계손이였고 대선법주는 천자문이라도 떼었던 제법 제 법명을 써넣었다。선흥이는 김가 대신썼고 우대용과 오계손은박대근이 써주었다。풍열에게되 결맹서가 되돌아가니 그는다시한번 읽어보고나서 설유징에게 내주었다。

『운부 큰 스님께 전하시오』

설유징이 두 손으로 받아 봉하여 품에 넣었다。결맹이 끝난뒤에 월정사 대웅전에서 구월산 식구들을 위한 재를 올린다하여 모두들 오진암을 내려갔다。

그날 밤이되어 손님들은 명일 출발을 약정하고 오진암에서 하루 더 묵게되었는데、월정사에는 길산이 안무당때문에 내려와 있었고、묘정 대선법주 여환 옥여등의 승려들은 모두 큰절의 대중방에 들었다。안무당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간신히 잠만 자는 형식이라 길산은 머리맡을 지키다가 밖으로 나섰다。마당에는 신록에서 풍기는 훈향이 그득하였고、처마끝의 풍경이 고즈넉하게 땡그랑거리고 있었다。길산은 정원 가녁의 바위에 걸터앉았다。신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당을 전너서 누구인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공양은 드셨읍니까?』

하여 보니 여환이었다。

『예、바람이 제법 훈훈합니다』

길산이 인사조로 말하였고 여환은 곁에 걸터앉았다。

『모친 께서는 어떠 신지요?』

『보살님을 말씀이 아침결에 잠깐 정신이 들었다 합니다。워낙 노환이시라 예측할 수가 없지요。한꺼번에 여러 환난을 겪으셔서…』

여환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별이 흐터진 하늘을 바라보며 여환이 말하였다。

『참 묘한 일이지요。저는 오래전에 장무령의 넋을달래는 기도를 벌써 드렸었지요』

『감사합니다。덕분에 제가 별 탈없이 지내온듯 하오。이 다음에 어느 길을짜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 옛새의 먹이가 되어간다 하여도、기할에 넋을 이 염불은 받아 두었으니 극락왕생은 떼어 놓은 셈이지요』

길산은 털털한 기분이 되어 그렇게 농엇거렸다。여환은 거기서부터 듬을 들이지 않고 계속하였다。

『제가 기거하던 암자로 장무령의 참혹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낙이 있었음니다。아시겠지만…문화재인말서 함께 사셨다는…』

모든종이 위의 生 <166>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⑮

그의 부인은 열시쯤 왔다。

나는 그의 부인이 오는 것을 먼빛으로 지켜보았다。비치백일듯 싶은 오린지색의무늬가 있는 둥근 가방을 한손에 들고、그녀는 내가 지켜보고 있는 길목 위로 불쑥나타났다。

거의 한 시간 전부터 나는 방갈로로 올라오는 길을 부감할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그녀의 출현을 기다려온 것이다。

물론 잡지 따위에 실린 흐린 사진으로는 몇번 보았고、또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는 그녀를 얼핏 본 일도 있지만 나는 그녀를 잘알지 못했다。거리에서 우연히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이 그의 부인이라는 것은 알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궁금증이 방안에서 나를 불러낸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는 비록 그녀와 내가 적대관계에 놓일지라도 그런 것을 표면화 시킬만큼 어리석은 나는 아니었다。그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킬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나 역시 그녀를 의도적으로 훔쳐보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그의 부인에 대한 갈등 따위는 내게 없었다。그녀가 빼어난 미인이거나、발랄한젊음을 소유하고 있거나、그런 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숨겨진 여자답지않게 부인에 대해 투기하는 따위의 원색적인 감정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것들중의 하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지정해준 방갈로에서 얌전히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뛰쳐 나간 것이다。그런 내 행동은 아무래도 그가 뒤쪽 창문밑의 풀나무 두개를 제거한 행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것 같다。그래도 나는 그가 흔히 말하는 공처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아내에게 뭔가 마음의 부담을 주고싶지 않은 세심한 배려。이런 경우는 애처가라고 해야 한는지。내게 그런것에 대한 동경도 없었다면 거짓말이다。사랑받는 여자의 어떤 전형으로써 그녀를 보아두고 싶은 유혹따위、내 동기는 그런 순하디 순한 것이었다。

달려가 그녀의 손짐을 받아주고 싶은 충동도 느끼며 나는 능선에서 수풀 사이로 그녀의 힘겨운 행진을 내려다 보았다。왜 그가 마중을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 나는 도리어 그에게 분개할 지경이었다。부인에게 그런 어려운 임무를 부여하고도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듯한 그가 미웠으며、부인에게는 혈육처럼 따스한 정까지 느껴졌다。

그런데 부인이 그의 방갈로 마당앞에 이르렀을 때였다。내가 몸을 숨긴 곳은 거기까지도 빤히 내려다 볼수있는 위치였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능선을 타고 처음의 장소에서 얼마쯤 이동했다) 그때 그가 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 내며 나왔던 것이다。멀리 보기로도 그것들은 서너 개의 짐보따리였다。아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그것들을 들고 방에서 튕겨나왔으며 철수를 서두른 것이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나는 그가 부인에게 짐보따리를 나누어 들것을 요구하는 동작、의아해 하는 부인의 시선、위쪽 방갈로를 힐끔거리는 그의 당황한 몸짓 따위를 아주 짧은 시간동안 보았다。그리고는 곧 그가 앞서고 부인이 뒤따라 산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만으로 된 아주 짧은 행렬을 본 것이다。

수풀더미 뒤에서 나는 잠시 매우 환상적인 무언극(無言劇)을 구경하는 관객처럼 매혹되어 있었다。그러다가 그들이 곧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자 비로소 현실로 되돌려진 느낌이었다。얼마동안은 기묘한 배반감이 내 혈관을 들끓게 했다。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고、미친 여자처럼 나는 헤실헤실 웃기 시작했다。어리석은 도망이군、하고 생각하기도 했고、이쯤으로 그에게 자유를주어버릴까、하고 생각하기도 했다。그래도 웃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으며、그렇게 웃으면서 나는 능선에서 내려왔다。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9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직 원 모 집

지난 5월 확장 이전하고 6월1일부터 캐나다 교민사상 최초로 일간을 발행하고 있는 본 〈한국일보〉사는 업무량의 격증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 자 : 기자 경험자 또는 기자로 훈련받고 싶은 분. 외부취재, 사진촬영 번역, 편집등을 원하시는 분.
업무사원 : 전화응답, 자료정리등 총무부 근무
발송사원 : 신문에 주소찍기, 우편국 발송, 식품점 배달등
광 고 부 : 광고게수, 광고문 번역, 광고장부 정리, 디자인등

①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은 없읍니다.
②무자격자라도 근무를 희망하시면 일차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③희망자는 이력서 1통 지참,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④신문사 일은 항상 새롭고 도전적입니다. 쉴새 없이 머리를 써야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들입니다. 교포사회는 물론 캐나다사회를 최단시간내에 알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 첩경입니다.

신문사의일의 특징은 활동적이며 진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발전을 원하는 진취적이며 건설적인 인재만이 적임자라 하겠읍니다.

1981년 8월 일

한 국 일 보 사
1025 DUPONT ST. (W. OF DOVERCOURT) (416) 533-2361~4

馬山工 徐庚祚 해트트릭

秋季중고축구 全谷高5대0大破 결선에

서울體는 坡州工꺾고 1승

【議政府】馬山工은 4일 의정부공설운동장서 벌어진 추계중고축구연맹전 8일째 고등부 8조경기에서 단신HB 徐庚祚(1m68)가 해트 트릭(3골)을 기록하여 全谷高를 5-0으로 대파, 2연승으로 결선에 올랐다。

이날 2조의 서울體高는 坡州工高를 3-1로 물리치고 1승을 기록했다。

서울體高는 전반3분 朴泳德이 첫 골을 넣어 리드를 잡은후 李相都(20분) 韓吉童(29분)이 잇따라 득점, 전반서 승세를 굳혔다。

4조의 群山第一高는 通津綜高(김포)와 맞서 전반서 1-0으로 리드당하다가 후반에 접어들어 宋衛坤이 페널티·킥(4분)으로 타이·스코어를 만들고 14분에 宋이 결승골을 성공시켜 2-1로 역전승, 1승1패를 마크했다。

◇제8일전적

▲고등부2조

서울체고 3 (3-1, 0-0) 1 파주공고 (1승)(2패)

▲동4조

군산제일 2 (0-1, 2-0) 1 통진종고 (1승1패)(1무2패)

▲동8조

마산공고 5 (1-0, 4-0) 0 전곡고 (2승)(2패)

J代表 太平洋배구 參加 15일出國

배구협회는 81년도 太平洋연안 청소년배구대회에 참가하는 남녀주니어대표단을 오는15일 현지로 파견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이번대회에는 日本 中共 美國등 남녀9개팀이 출전, 패권을 가리게되는데 여자팀은 3연패를 노리고 있으며 남자는 지난해 2위에 이어 우승을 바라보고있다。

한편 남자대표는 이대회가 끝난뒤 밴쿠버등 전지훈련을 거쳐 9월1일 콜로라도·스프링스에도착, 3일부터 14일까지의 제2회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게되며 여자는 귀국했다가 10월 멕시코세계선수권에 나간다。

日고교 野球팀 訪韓 오는9월 3차親善경기위해

【東京3日=聯】日本고교야구연맹은 오는8일부터 14일동안 오오사까(大阪)의 고오시엔(甲子園)구장에서 개최되는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가 끝난후 日本고교대표팀을 선발, 韓國에 파견한다고 3일 발표했다。

고오시엔대회 상위4개팀 가운데 선발되는 日本대표팀은 9월1일 오오사까를 출발, 3·4·5일 3차례 친선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文湧冠등 張訓합류 世界J排球 대비

대한배구협회는 4일 귀국한 유니버시아드 대표가운데 주니어대표를 겸한 4명의선수(文湧冠·柳重卓·李龍普·殷興基등 4명)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로 제2회 세계주니어선수권(9월3~14일·美國콜로라도)에 대비한 훈련에 빠졌었는데 仁荷大에서 그동안 전력을 다져온 다른 8명과 합류하게된다。

劉鍾哲 감독은 文湧冠등 4명의 대표가 합류하게되면 오는14일까지 최종출전멤버를 확정하고 팀워크를 완벽하게 다듬어 하와이의 太平洋연안대회및 9월의 제2차 세계주니어선수권서 우승을 획득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大邱高,創團 5년만에 첫霸權

◇태그아웃 대봉기 우승을 가리는 大邱高一群山商高의 결승전。1회초 연속포볼과 적시타로 5점을 얻은후 大邱의 2루주자 全鍾和가 李相永의 내야안타로 홈까지 노리다 태그·아웃되었다。 【大邱·聯=鼓】

初盤부터 밀어내기로 勝機

데드볼·포볼로得點 群商제압 7-1

大鵬旗야구 【大邱=聯】大邱高가 창단 5년만에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진 제3회 大鵬旗쟁탈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강적 群山商高를 제압하고 첫 우승을 차지했다。4일 이곳 시민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최종일 결승전에서 大邱高는 에이스 李成根의 호투로 群山商高의 공격을 봉쇄하며 1회초 群山商高마운드의 난조로 얻은5四死球와 金鍾和、李相永의 적시타로5득점, 승기를 잡고 7-1로 승리, 전국대회서 처음 우승했다。

2冠王을 노리던 대통령盃 우승팀 群山商高로서는 선발 裵大浩와 구원투수 李東鎬의 5四死球, 그리고 어려울때마다 위기를 구해주던 1년생 趙啓顯의 어깨고장이 치명타였다。

처음 전국대회 결승에오른 大邱高는 홈그라운드에서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 1회초 첫 공격에서 승기를잡았다。

1死후 2번 林淳太가 볼을 고르고 群商선발 裵大浩로부터 2死후 4번 李成根이 경원포볼, 5번 寶相이 메드·볼로나가 만루를 만든후 6번高賢喆이 또다시 구원에나선 群商 李東鎬으로부터 포볼을골라 밀어내기 선제 1점을 올렸으며, 7번 朴鍾哲도 밀어내기 포볼로 1점을 추가했다。 9번 李相永은 투수앞내야안타로 1점을 추가, 大邱高는 첫공격에 무너질수없는 5-0의 승세를 굳혔다。

3회까지 大邱高의 李成根에 무안타로 눌리던 群山商은 5-0으로 뒤진 4회말 1死3루에서 5번 趙啓顯의 첫 좌전안타로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大邱高는 6회초8번 全鍾和의 우중월 2루타에 이어 1번 朴起雄의 적시 내야안타로 1점을보태 5점차의 리드를 고수했다。

계속된 만루찬스에서 8번 全鍾和는 우전적시타로 2점

3일의 준결승전에서 大邱高는 李滿雨의 위력적인변화구로 청룡기 우승팀 慶北高를 2안타로 완봉, 3-0으로 이겼었다。

◇최종일결승전

대구고	500	001	010	7
군산상고	000	100	000	1

◇제7일 준준결승

대구고	000	110	010	3
경북고	000	000	000	0

國民·朝興銀 결승진출다툼

전국女子테니스 水協·圓光大 각각누르고

제17회 전국여자테니스대회가 3일장충코트에서개막, 4일 벌어진대회 이틀째여자일반부 1회전경기에서 國民銀行은 裵京淑、金美順、楊正順의 활약으로 창단1년의水協을 2-0으로 완파, 준결승전에 진출했다。朝興銀行도 圓光大에 2-0으로 완승, 國民銀行과 결승진출권을 놓고 겨루게되었다。

國民銀行의 裵京淑은 첫단식에서 裵晟淑을2-0으로、金美順·楊正順조는 복식에서 裵晟淑·張貞月조를 2-0으로 각각 제압했다。

◇제2일전적

▲여중부2회전

서울중앙 2-0 전일A

대명A 2-1 산청

대구A 2-1 안양서B

▲여대일반부1회전

국민은행 2-0 수협

조흥은행 2-0 원광대

優勝圈 아마복싱 5일부터 奬忠體

제13회 전국우승권 아마복싱대회가 2백5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5일부터 9일까지 奬忠체육관에서벌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금년도 각종대회에서 우승하지못한 선수들이 출전한다。

오스틴 覇權 웰즈파고女테니스

【샌디에이고3日AFP=聯】미국의 신예 트레시·오스틴(18)은 3일 美샌디에이고市(캘리포니아州)에서 거행된 총상금 12만5천달러의 웰즈파고 여자테니스대회 결승전에서 동료인 팜·슈라이버(19)를 2대1(6-2、5-7、6-2)로 제압하고 지난 윔블던대회 준준결승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거창대성여고 A팀의 禹美淑이 釜山브니엘여고 吳長蓮과의 단식경기에서 힘찬 백핸드로크로공격하고있다。

너무도 衝擊 高3生의 性문제

東大 趙貞淑씨 1,200백명대상 조사

유명 産婦人科에 月30명相談

바캉스·聖誕節 1~2개월후 많아

상상보다 훨씬 심각한 現實

서울시내 고교생중 남학생의 27.7%, 여학생의 14.5%가 『성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10대의 性보고서가 나왔다。이보고서는 피서지에서 10대의 혼숙 캠핑이 성행하고있는 시점에서 밝혀진것이어서 놀라움의 강도가더하다。이 보고서를 입수한 한국일보가 산부인과와 약국、각종상담실을 상대로 취재한결과 「10대의性문제」는 어떻게보면 보고서의 고발보다도더 심각한상태에 와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짙게했다。10대의성병、미혼모、조혼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 선진국의 전철이 이제 남의나라 얘기만은 아닌것같은 시점인듯 하다。이보고서는 학교와가정과 사회가 10대의성문제에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고철저하게 대처해나가야된다는 절박감을 일깨워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趙貞淑씨(42·여)가 東國大 교육대학원 연구논문인「고교생의성교육필요성에 관한 고찰」을 작성하기위해 서울시내 12개 남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고교 3학년생 1천2백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에서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한남학생은 조사대상자 6백10명중 27.7%인 1백69명에 달했고 여학생은 조사대상자 6백명중 14.5%인 87명이었다。

또 성경험의상대는 남학생의 경우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48.5%로 으뜸이고 다음이 윤락여성(25.4%)、가정부(23.1%)의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도 성관계의상대는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62.1%로 가장많고 과외선생(21.8%)、학교교사(10.3%)도 상당한 수에 달했다。

또 이연구에의하면 성경험상대는 주로 친구의소개(34.8%)、빵집 또는 모임에서(26.2%)、유흥업소에서(22.4%)알게돼 호기심(51.5%)이나 욕구불만의 해소(23.8%) 또는 강제(11.2%)에 이끌려 성을 경험한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성을 경험한후 대개 후회하고있거나(34.4%) 다소 걱정하고있으나(32.0%) 전혀 개의치않은 학생도 28.1%나 되었다。

또 이들중 남학생의 70.5%, 여학생의 23.0%가 자위를 경험했으며 애무나 키스는 남학생은 78.7%에 여학생은 66.8%가 해본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본사취재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서울龍山區葛月洞 M산부인과병원상담실에의하면 매월20~30명의 10대소녀가 성문제로 상담해오고 있고임신 5~6개월된 여학생이 부모손에 이끌려 찾아오기도 한다는것。

서울江南區新沙洞에개업하고있는 산부인과의사 盧모씨(45)도 매월30~40명의 10대소녀들이 성병이나 임신으로 병원을 찾아오고있고 이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증언했다。盧씨는 또 『병원을 찾는 10대는 외관상으로 분명학생이지만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했다고 신분을감추고있다』고 말하고 『매년 크리스머스 1~2개월후와 여름바캉스시즌 1~2개월후에 이같은 10대가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바캉스시즌을 맞아 서울여의도와 江南터미널부근 약국등에는 멘스기간을 조절하고 피임도 되는 약을 사는 사복차림의 여학생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띈다。

서울역앞 S약국에는 매일 10~20여명의 바캉스차림을 한 10대여학생들이 『해수욕을하기위해 멘스를 조절해야겠다』며 피임약을 사간다。서울 中區南大門路4街 N약국 약사 徐모씨(54)는 『10대 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피임약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성문제로 생명의 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상당하다。원장 李鍾辰씨(44)에 의하면 매일 80~1백여 통의 상담전화가 걸려오는데 이중 10~15%가 10대의 전화라는 것。10대의 전화상담중 성문제가 30~40%로 으뜸을 차지하고있고 다음이 가출문제、진학문제등의 순이다。

중앙청소년지도육성회 상담실의 성문제상담자 金鍾五씨(47·여·서울廣南中교감)에의하면 입시、성병、자위행위등으로 고민하는학생의 상담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10대의 성문제연구 논문을 낸 趙씨는 성에대한 新·舊가치관의 갈등에따른 일관되지않은 우리사회의 성도덕관、현대사회의 자극적인성환경、성교육의 불모현상을 그 원인으로지적하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성경험의 실태는 전통적가치와는 다른방향에서 세계적인추세의 흐름을 감이해 한시바삐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梨花女大 金在恩교수도 TV나 잡지에 비쳐진 어른들의 퇴폐적인 성유희와 남녀별학(別學)에따른 이성에대한 무지가 청소년들을 성의무방비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주장、청소년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남녀공학의 실시와 조기성교육실시、건전한 성문화의 토착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方□□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信一高·善隣商쟁패

花郞旗 하루延期 오늘決勝戰

【釜山=聯】信一高와 善隣商高 두 서울팀이 제33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야구 패권을 놓고 5일하오 결승전을 벌인다。4일로 예정됐던 결승경기는 비로인해 하루연기됐다。

信一高는 3일 九德경기장서 벌어진 7일째 준결승전에서 徐孝仁의 4회초 선제 솔로호머와 張光一의 6회초 2점호머로 光州眞興高의 좌완에이스 金正洙를 다운시키고 5-1로 승리, 결승에 진출했다。

信一의 에이스李載弘은 이날 산발3안타로 호투했다。

◇제7일준결승

신일고	000	112	100	5
진흥고	000	000	001	1

▲홈런=徐孝仁(4회초) 張光一(6회초·2점·이상신일)

U大會 선수단歸國

81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루마니아·부쿠레슈티)에 출전했던 한국선수단 474명이 예정보다 하루늦게 4일하오1시30분 KAL편으로 귀국했다。

대한체육회는 金浦공항에서 이들 선수단에 대한 환영식을 베풀었다。

클러크 優勝 美볼보 國際테니스

【노드콘웨이(뉴햄프셔州)3日UPI=聯】아르헨티나출신의 호세·루이스·클러크(22)는 3일 美노드콘웨이市에서 벌어진 총상금20만달러의 볼보국제테니스대회 최종 결승전에서 동향의 라이벌인 에로모·빌라스(28)를 2-0(6-3、6-2)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랭킹5위인 클러크(3번시드)는 이날우승으로 2만8천달러의 상금과 부상으로 자동차(시가2만달러상당) 1대를 받았다。

韓國、밴쿠버와비겨 韓·加친선야구

【밴쿠버=聯】韓國야구대표팀은 4일상오 이곳 센트럴파크 스타디움에서벌어진 밴쿠버올스타팀과의 친선경기에서 3-3으로 승부를가리지못했다。

韓國은 이날 1회초 1번 金一權이 포볼로고른뒤 3번 張孝祚가 우월투런홈런을 터뜨려 기세를올렸으나 선발河基龍의난조로 2、3、4회에 각각 한점씩을허용해 3-2로 뒤지다 6회초 9번 吳大錫의 좌전적시타로 자신히비겼다。

韓國	200	001	000	3
밴쿠버올스타	011	100	000	3

▲홈런=張孝祚(1회초·2점) 백리(3회말)

大田서 合訓에돌입 青少年 축구代表팀

【서울=聯】대한축구협회는 오는10월3일부터 16일까지 濠洲멜번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파견할 18명의 선수들을 확정, 4일부터 大田에서 합숙훈련에 돌입했다。

올해 22번째參加하는 在日同胞학생 野球팀

◇1956년(단기 4289년) 在日同胞학생야구단의 광복후 첫모국방문을 기념, 한국일보사가 제작기증했던 환영手旗。

56년 光復된 祖國땅 처음 밟기시작

매년 국내팀과 親善경기…야구發展 이바지

張勳·裵壽贊·金星根씨도 本大會 거친 人物

在日同胞학생 야구팀의 모국방문은 금년으로 22회째。在日同胞팀은 鳳凰大旗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고있다。1956년故 張基榮한국일보 社主의 집념으로 처음 광복된 조국땅을 밟았던 在日同胞학생야구팀은 매년국내고교팀들과 친선경기를 가져 국내야구발전에 이바지했으며 鳳凰大旗대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日本 프로야구사상 최초로 3천안타의 기록을 세운 張勳(롯데·오리온즈소속)은3회째인 1958년 모국방문 在日同胞 학생야구단 일원으로 참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심고 대화자로서의 길을 열었다。裵壽贊(韓國大감독)·金星根(信一高감독)씨등도 이대회를 거쳐 성장、모국에 돌아와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했으며 지금은 후배양성에 헌신하고 있다。

매년 모국을 방문、국내야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던 在日학생팀은 71년 在日협회측 사정으로 모국방문을 포기、오히려 매년 무료이어오던 새로운 전국야구대회 鳳凰大旗창설의 계기를 만들었다。

8월7일부터 9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첫대회에는 在日同胞팀은 참가하지 못했으나 국내등록 38개팀중 馬山高를 제외한 37개팀이 출전、고교야구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在日同胞팀은 72년 제2회대회부터는 단일팀으로 국내고교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모국의 그라운드에 힘과 기를 펼쳤다。2회에는 8強、3회에는 4強으로 국내팀들을 위협하더니 74년 제4회에서는 결승전까지 진출、大邱商高에 10-5로 석패해 朱紅 鳳凰大旗(준우승)를 차지했다。

裵龍則(4회)은 감투상、白義弘(6회)、金忠夫(7회)는 우수투수상、洪新夫(6회)와 金京治(7회)는 최다안타상을수상、훌륭한 기량으로 국내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在日同胞팀은 지난해 회일정과 수학기간의 중복으로 부득이 불참했으나금년 다시 명문13개교 18명으로 구성、대회9번째 출전길에 올랐다。【鼓】

교민의 빛 한국일보·토론토 구독문의 533 2361

김용순무용연구소
동 부(SCARBOROUGH)
장소 : 한인회관대강당(20 MOBILE DR.)
시간 : 수요일 : 5시~7시30분
토요일 : 10시30분~3시까지
서 부 (MISSISSAUGA)
장소 : Burnhamthorpe Community Center Lounge "C"(1500 Gulleden Dr) (Burnhamthorpe & Dixie)
시간 : 금 : 6시~7시30, 7시30~9시까지
중 부(DOWN TOWN)
장소 : Western Y. M. C. A(15 Robina Ave. (on St. Clair)
시간 : 화 : 5시~6시30분 학생반
7시~8 : 30분 주부특별교실
문의전화 : 751-8891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아세아한약방
●진풍용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특수 한약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678 BLOOR ST. W.
☎ : 530-0522 조 지 섭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강화,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전단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급 구
주방헬퍼구함 628 BLOOR ST. W.
☎ : 536-0290
한 국 관

일본식당 부엌에서 일하실분 구함
(오후3시~5시 사이)
☎ : 924-7501 459 CHURCH ST.
MICHI JAPANESE RESTAURANT

급 구
20세에서 35세, 영어하실 수 있는 웨이트레스 구함
☎ : 224-1060, 221-1507

재봉사 약간명 모집
보통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며, 또한 재단실에서 헬퍼하실분도 구합니다.
연락처 : 952 QUEEN ST. W. (오싱톤×퀸)

웨이트레스와 웨이터, 주방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CALL : MANAGER ☎ : 977-9519
MASA JAPANESS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 532-6160

밤12시에서 아침 8시 까지 일하실 여자분 구함.
1468 QUEEN ST·W
☎ : 531-2689

매매및 양도

카페테리아 급매 :
5일 오픈
☎ : 532 : 5966(오후3시이후 전화바람)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 233-2576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벅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호타리오
☎ : 783-1984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드라이빙 레스트랑 매매
새로 시작한 비즈네스이며 앞으로 발전성 있음.
가족 비즈네스 혹은 파트너 둘이 할 수 있음.
아스킹 : $185,000 IHOR DZIADYK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매 매〉
"가정 형편상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528 더프린 스트리트(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 531-4165

남녀 운동복점 매매
또한 재봉틀도 있고 재단업도 할수있음.
☎ : 531-2611
1552 BLOOR ST. W.
SMITH SPORTSWEAR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프렌차이스)
주매상 : $7000이상 렌트 : $1200
리스 : 5년+5년옵션
주5일영업. 다운페이먼트 5만불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내방 요망.
169 QUEEN ST. E

좋은 가격의 하우스 세일
개인세일 : 넓은 현대식 가옥, THORNHILL에 있는 2층집 방 네개, OAK으로 만든 용수철식의 계단, WALK OUT베이스먼트, 화장실 4개, 벽난로 2개, 센트럴 에어콘디쇼닝, 현대식 조명장치및 등등 실지로 와서 보세요. 오픈하우스 오늘합니다.
☎ : 881-8436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6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신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 현 CA Office 근무중
● Book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매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6637

로마노 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힐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식 당

CHINA HOUSE
CANTONESS & MANDARIN CUISINE
781-9122 825 Eglinton W.

KOREA HOUSE
*숯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8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식품점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536-7875

기 타

변호사 개업(黃永昊 律師)
WING H WONG
BARRISTER & SOLICITOR TRADE MARK AGENT
OFFICE : SUITE 214, 4455 Sheppard Ave. E. (at Brimley)
Scarborough Ont. Tel 298-6767

PICTURE FRAME WAREHOUSE 조 혜 숙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Pan-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렌트

세놓음 : 2 베드룸 베이스맨트
WARDEN×LAWRENCE
☎ : 751-9286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봉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3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홍 봉 대

流星의 賊 〈15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⑱

이이는 죽은 후에도 말이 많았다.

심회수(沈富壽)란 자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상소했다.

『임금이 이이를 대접하는 것이 생전과 사후가 다른것은 반드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것이다. 원래 임금은 중론을 물리치고 이이를 등용했던 것이니 그런데 무슨 사정이 개재되었을지 모른다. 이이가 서얼(庶孽)을 허통(許通)하려고 한것은 그 자신의 서자들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

임금은 이 상소를 보고 크게 노했다.

『심회수란 놈은 실로 피악한 놈이다. 내가 이이를 대접하는 것이 생전과 사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내 마음의 안팎이 다르단 말인가. 내가 중론을 배척하고 이이를 등용했다고 했는데 나는 간신들이 그를 모함하는 사설(邪說)을 물리쳤을 뿐 중론을 배척한 것이 아니다. 이이가 서얼을 허통하고자 한 것은 나라의 터전이 위태로울 때니 그런 편법도 써보자고 이이가 생각한 것인데 그것을 심회수는 이이가 그의 서자를 위해 꾸민 일일 것이라고 누가 말한다고 하지만, 남을 빙자하고 은근히 회수자신의 속셈을 드러내어 이이를 훼방(毁謗)한 것이 아닌가. 어찌 이이가 빨리 죽을 줄을 알고 그 따위 짓을 했겠는가 말이다』

이이에겐 경림(景臨), 경정(景鼎)이란 두 서자(庶子)가 있었다. 이이가 죽었을때 경림은 10세이고 경정은 다섯살이었다. 말하자면 이이가 특히 서출(庶出)들의 지위향상(地位向上)을 서두른 것은 이들 서자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부언하면 이이는 정실노씨(盧氏)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심회수가 선조의 이이에 대한 대접이 생전과 사후가 다르다고 할만한 대목이 있는 것이다.

가령, 영의정 박순이

『이이는 성심성의 국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불행히 죽음을 만나 그 포부를 펴지 못하고 돌아갔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데 없읍니다. 그러하오니 추숭(追崇)하는 은전이 있어야할줄 아옵니다』

하고 아뢰고, 금포의 유생 홍필신(洪弼臣)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생들이 이이를 추숭하고 그 후사(後嗣)를 세울 것을 청했는데 임금은

『이이에 대해선 그 위인(爲人)을 내가 잘알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그에게 관한 말을 내게 할 필요가 없다.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품(品)은 이미 높아 있는지라 새삼 추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처자(妻子)가 파주로 향하고 해주로 향하기로 한다니 연도에서 호송하도록 하고 장사 지내는 비용은 그 도(道)에 가서 말하란』

고 지극히 싸늘한 답을 한것이다.

찬성(贊成)은 종일품(從一品)으로 물론 높은 벼슬이지만 충신(忠臣)의 사후엔 으레 일계급특진(一階級特進)이란 것이 있을 법도 하고, 그 상위(上位)로서 정일품(正一品)의 관직이 있는 것이니, 선조의 평소의 말대로 이이를 진정 위인(偉人)으로 알았으면 이러한 처사는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 까닭이 궁금하기 한량이 없지만 야사(野史)와 항담(巷談)이상의 근거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는 형편이니 들먹이지 않기로 한다.

주간女性

「성난 황소」 5개賞
할리우드劇映協서

映畵

영화「성난 황소」가「할리우드 극영화협회상」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비롯한 5개부문을 휩쓸었다.

「성난황소」는 그랑프리외에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남우상, 최우수편집상, 그리고 최우수본상연기상을 받았으며「성난황소」다음으로 많은 상을 받은 화제작은「사계절」로 최우수 코미디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조연남우상을 받았다.

최우수여우상은「나는 나의 애인에게 편지를 보냈네」에서 주연한 시몬느·시그노레에게 주어졌으며 최우수여우조연상에는「멜빈과 하워드」의 메리·스틴버겐에게 돌아갔다.【할리우드=UPI】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獨占連載

"너무 피곤해… 잠깐 좀 누워야 겠어" "여보, 전화 와 있어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던데!" "그럼 아무에게나 전화를 거세요"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357
(R) 252-8602
유 원 덕

재카나다 대한체육회 1981년 8월15일
제1회 카나다 한국인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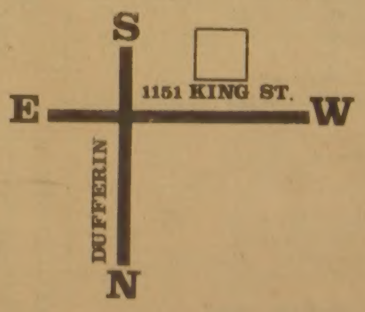
8.15경축

제1회 재카나다 전 한인 체육대회 와 기념 쇼

경기프로

경기시간	경기종목	경기 구분	경기장 구분	선수(팀)
	유치원생 경기			
11:30	과자 따먹기	개인	F	제한없음
	바구니 터트리기	단체	F	10 명
13:30	세발자전거 리레이	단체	T	4 명
	국교생 경기			
11:30	200m 리레이	단체	T	남녀 각4 명
12:30	바구니 넣기	단체	F	20 명팀
16:00	줄다리기	단체	F	18 명
	중학생 경기			
12:30	100m 경기	개인	T	남여각 4 명
16:00	장애물 리레이	단체	T	4 명
17:00	400m리레이	단체	T	4 명
	고등학생경기			
13:00	200m 경주	개인	T	무제한
14:00	800m 리레이	단체	T	남여각 4 명
	일반부 경기			
16:30	줄다리기(남)	단체	F	15 명
17:30	다리묶고 달리기	단체	F	8 명
18:00	바늘귀 끼기(여)	단체	F	부인4 명
13:30	공굴리기	개인	F	부인, 무제한
	노년부 경기			
13:00	통치기	단체	F	10 명
14:00	공나르기	단체	F	10 명
14:30	장년축구	단체	F	
17:30	마라톤	개인	T	무제한

인기가수　송 대 관
　　　　　장 미 라
정렬의 가수　서 유 미
인기가수　장 미 애
　　　　　김 숙 희
박력의 가수　토 미 킴
　　　　　최 정 민
　　　　　태 진 아
인기코메디언　이 순 주
　　　　　지 미 김(MC)
특별출연　백화전속모델



장소 LAMPORT STADIUM

일시 1981 .8 .15. 9.00 AM

우리 모두 참여하여교민 단결 과시하자